

제1회 고운 최치원 한·중 국제 학술대회

“9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인 최치원과 양주 그리고 군산”

주 최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군산대 인문과학연구소

일 시 : 2015년 5월 29일(금) 14:00~18:00

장 소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규장각실

第1回 孤雲 崔致遠 韓·中 國際 學術大會

“9世紀 東亞細亞의 國際人 崔致遠과 揚洲 그리고 群山”

主 催 : 群山近代歷史博物館, 群山大 人文科學研究所

日 時 : 2015年 5月 29日(金) 14:00~18:00

場 所 : 群山近代歷史博物館 奎章閣室

祝 辭



녹음이 푸르른 5월 새만금과 근대문화의 도시 군산에서 9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인 최치원 선생을 주제로 제1회 한·중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산시는 최치원선생의 탄생설화가 전해 내려오는 고장이기에 이번 행사가 더욱 뜻 깊다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국제학술세미나는 우리 군산시와 최치원 선생이 중국 유학시 거주했던 중국 강소성 양주시에 위치한 최치원기념관이 작년 9월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이후 내딛는 상생의 첫 발걸음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하겠습니다.

당대 문장가로 이름을 떨친 최치원선생의 흔적을 쫓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 군산시는 국내외 저명한 전문가 분들의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최치원선생의 희미한 발자취를 확인하고, 역사 문화 관광자원의 기초자료로 삼아 새만금과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라는 군산시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거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이번 국제학술세미나를 시작으로 향후 지속적인 최치원선생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군산시와 중국 양주시 간의 우호·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며 한국과 중국의 저명한 학자들이 연구한 소중한 자료들은 우리시의 역사 문화자원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광 스토리텔링 개발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금번 고운 최치원 국제학술세미나가 개최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중국 양주시의 최치원기념관과 국립군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관계자들 그리고 군산대학교 국어국문과 최현재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5. 5. 29

군산시장 문 동 신

祝 辭



문창후 최치원 선생을 기리기 위한 한중 세미나가 역사문화의 도시 군산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최치원선생에 대한 설화와 전설이 군산 옥구의 해안과 섬들을 중심으로 널리 퍼져있고, 고군산 일대에 최치원 선생의 숨결이 짙게 남아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자주 군산새만금과 최치원선생을 연계해 문화관광프로젝트를 추진하자는 주장이 제기될 정도로 문창후 최치원선생에 대한 관심은 군산지역에서도 높습니다.

신라말기 동방 최고의 문장가이자 유불선 3교에 정통하고, 한·중·일을 아우르던 대학자였던 최치원선생의 족적은 중국에도 많이 남아있고, 중국에서도 최치원선생은 한중문화교류의 시조이자 모범적인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치원선생이 도통순관으로 4년 동안 근무했던 양조우(揚州)에는 최치원 기념관이 건립되어 있어 최치원선생에 관한 많은 기억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최치원선생이 한국과 양조우 시의 우호교류에 있어 대표적 인물로 회자되고 있으니, '9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인 최치원과 양주 그리고 군산'이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간 다방면에 걸쳐 최치원선생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의 학술연구 발표 및 심층적인 토론이 있어왔지만 그 관심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선생이 남긴 족적이 하나의 관점으로 총합하기에는 광범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한중세미나가 최치원선생의 삶과 사상에 대한 새로운 조명으로 한중문화교류의 새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5년 5월 29일

군산대학교 총장 나 의 군

제1회 고운 최치원 한·중 국제 학술대회 “9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인 최치원과 양주 그리고 군산”

- ▣ 일 시 : 2015년 5월 29일 (금) 14:00~18:00
- ▣ 장 소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규장각실
- ▣ 주 최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군산대 인문과학연구소

[학술대회 일정]

시 간	진 행 내 용	발표자	토론자
14:00~14:30	• 개회식 (사회 : 김계태/군산대인문과학연구소장) - 군산시장, 군산대학교 총장		
14:30 ~ 17:00	• 주제발표		
	• 한국 “군산 설화 속 최치원연구”	이운선 (목포대)	오세정 (충북대)
	• 중국 “최치원 양주에서의 詩作분석”	동학방 (최치원기념관)	박영철 (군산대)
	• 한국 “당대 한·중 문인의 교류에 관한연구” - 동국문중 최치원을 중심으로	박병선 (군산대)	백승호 (한남대)
	• 중국 “최치원과 봉사입당문제”	여국강 (최치원기념관)	이진원 (군산문화원장)
	• 한국 “역사속의 최치원 ”	이재운 (전주대)	하태규 (전북대)
	• 중국 “2004~2014년 최치원 연구”	냉위국 (청도해양대)	최현재 (군산대)
17:00~17:30	• 폐 회		
18:00~	• 만찬		

[학술대회 세부일정]

I. 개 회 • 사회 : 김계태 (군산대인문과학연구소장) 장소 : 박물관규장각실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 14: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사 : 군산시장 • 축사 : 군산대학교 총장 	

II. 발 표 • 좌장 : 최동현 (군산대 국어국문과) 장소 : 박물관 규장각실

시 간	내 용	발 표	소 속
14:20 ~ 14:40	군산 설화 속에 나타난 최치원	이운선	목포대국어국문
14:40 ~ 15:00	최치원 양주에서의 詩作 분석	동학방	양주최치원기념관관장
15:00 ~ 15:20	당대 한·중 문인 교류에 관한 연구	박병선	군산대동아시아학부
15:20 ~ 15:40	최치원과 봉사입당 문제	여국강	양주 최치원기념관
15:40 ~ 16:00	역사속의 최치원	이재운	전주대역사문화컨텐츠학과
16:00 ~ 16:20	2004~2014년 최치원 연구 총괄	냉위국	청도 해양대

III. 종합토론 • 좌장 : 최동현(군산대 국어국문과) 장소 : 박물관 규장각실

시 간	발표자	토론자	내 용
16:40 ~ 17:10	이운선(목포대)	오세정(충북대)	군산 설화 속에 나타난 최치원
	동학방(최치원기념관)	박영철(군산대)	최치원 양주에서의 詩作 분석
	박병선(군산대)	백승호(한남대)	당대 한·중 문인 교류에 관한 연구
	여국강(최치원기념관)	이진원(군산문화원)	최치원과 봉사입당 문제
	이재운(전주대)	하태규(전북대)	역사속의 최치원
	냉위국(청도대)	최현재(군산대)	2004~2014년 최치원 연구 총괄
17:10 ~ 17:30	질의 답변		

第1回 孤雲 崔致遠 韓·中 國際 學術大會

“9世紀 東亞細亞의 國際人 崔致遠과 揚洲 그리고 群山”

- 日 時：2015.05.29(金) 14:00 ~ 18:00
- 場 所：群山近代歷史博物館
- 主 催：群山近代歷史博物館, 群山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學術大會 全體日程》

時 間	進 行 內 容	發 表 者	討 論 者
14:00 ~ 14: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開會式：(司會：金 桂 台/群山大學校人文科學研究所長) ▪ 祝 辭：群山市長, 群山大學校總長 		
14:20 ~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主題發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國 “群山說話 속 崔致遠 研究” 	李 允 先 (木浦大)	吳 世 晶 (忠北大)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國 “崔致遠揚州詩作淺析” 	董 學 芳 (崔致遠紀念館)	朴 永 哲 (群山大)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國 “唐代 韓中 文人の 交流에 관한 研究” 	朴 炳 仙 (群山大)	白 丞 鎬 (韓南大)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國 “關於崔致遠的奉使入唐問題” 	余 國 江 (崔致遠紀念館)	李 振 遠 (群山文化院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國 “歷史 속의 崔致遠” 	李 在 云 (全州大)	河 泰 奎 (全北大)
17:00 ~ 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國 “东国文学之祖” 崔致远研究的分歧与走向：中国大陆2004—2014年” 	冷 衛 國 (青島海洋大)	崔 顯 載 (群山大)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質疑答辯 / 閉 會 		
18: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晚 餐 		

《學術大會 細部日程》

時 間	發 表 內 容	비 고
I. 開 會		
第1部 開會式 (14:00~ 14:20)	14:00~14:20 開會辭：金 桂 台 (群山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長) 축 사：群山市長，群山大學校總長	司會： 金 桂 台 (群山大人文科 學研究所長)
II. 發 表		
第2部 發表/討論 (14:20~ 16:20)	<p style="text-align: center;">14:20~14:40 發表① 韓國 “群山說話今 崔致遠 研究” 發表者：李 允 先(木浦大 國語國文學科)</p> <p style="text-align: center;">14:40~15:00 發表② 中國 “崔致遠揚州詩作淺析” 發表者：董 學 芳(楊洲 崔致遠紀念館)</p> <p style="text-align: center;">15:00~15:20 發表③ 韓國 “唐代 韓中 文人의 交流에 관한 研究” 發表者：朴 炳 仙(群山大 中語中文學專攻)</p> <p style="text-align: center;">15:20~15:40 發表④ 中國 “關於崔致遠的奉使入唐問題” 發表者：余 國 江(楊洲 崔致遠紀念館)</p> <p style="text-align: center;">15:40~16:00 發表⑤ 韓國 “歷史 속의 崔致遠” 發表者：李 在 云(全州大 地域文化컨텐츠學科)</p> <p style="text-align: center;">16:00~16:20 發表⑥ 中國 “东国文学之祖” 崔致远研究的分歧与走向： 中国大陆2004—2014年” 發表者：冷 衛 國(青島海洋大)</p>	座長： 崔 東 現 (群山大學 國語國文科)
III. 綜 合 討 論		
第3部 綜合討論 (16:40~ 17:30)	<p style="text-align: center;">16:40~17:10</p> <p style="text-align: center;">發表① 韓國 “群山說話今 崔致遠 研究” 討論者：吳 世 晶(忠北大)</p> <p style="text-align: center;">發表② 中國 “崔致遠揚州詩作淺析” 討論者：朴 永 哲(群山大 歷史專攻)</p> <p style="text-align: center;">發表③ 韓國 “唐代 韓中 文人의 交流에 관한 研究” 討論者：白 丞 鎬(韓南大)</p> <p style="text-align: center;">發表④ 中國 “關於崔致遠的奉使入唐問題” 討論者：李 振 遠(群山文化院長)</p> <p style="text-align: center;">發表⑤ 韓國 “歷史 속의 崔致遠” 討論者：河 泰 奎(全北大)</p> <p style="text-align: center;">發表⑥ 中國 “东国文学之祖” 崔致远研究的分歧与走向： 中国大陆2004—2014年” 討論者：崔 顯 載(群山大 國語國文科)</p> <p style="text-align: center;">17:10~17:30 質疑答辯 / 閉 會</p>	座長： 崔 東 現 (群山大學 國語國文科)
第4部	18:00	晚 餐

< 목 차 >

1. 군산 설화 속 최치원 연구..... 이 윤 선 1
2. “최치원 양주에서의 詩作분석”..... 동 학 방 9
3. 당대 한중 문인의 교류에 관한 연구 박 병 선 23
4. “최치원과 봉사입당문제 ” 여 국 강 42
5. 역사속의 최치원 이 재 운 50
6. '동방문학의시조' 최치원 연구의 학설과 추세 : 2004년~2014년 연구총괄 냉 위 국 58

< 目 次 >

1. 群山 說話 속 崔致遠 研究.....李 允 先 1
2. 崔致遠揚洲詩淺析.....董 學 芳 9
3. 唐代 韓中 文人の 交流에 관한 研究 朴 炳 仙 23
4. 關於崔致遠奉使入唐問題 余 國 江 42
5. 歷史속의 崔致遠 李 在 云 50
6. “东国文学之祖”崔致远研究的分歧与走向：中国大陆2004—2014年” 冷 衛 國 58

군산 설화 속 최치원 연구

이운선(목포대 국문과 초빙교수)

< 目 次 >

1. 왜 다시 최치원인가?
 2. 서해, 그리고 군산의 최치원
 3. 대중국 아이콘 최치원
-

1. 왜 다시 최치원인가

본고는 줄고, <“서남해연안 최치원설화의 수용관념과 문화코드”, 남도민속연구 제18집, 2009. 6>를 일부 수정하여 요약한 글이다. 이 글은 그 전 2008년 군산대에서 개최한 <최치원 문화와 새만금 문화관광 학술대회>에서 “해양문화로서의 최치원 코드-서해연안의 최치원문화와 새만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바 있다. 오늘 “제1회 문창후 최치원선생 한중 세미나-7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인 최치원 양주 그리고 군산” 세미나에 설화와 지명관련 발표를 맡게 되어 영광이다. 줄고가 군산시와 중국 양주의 교류협력 및 상호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서해안부터 동해안에 이르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역사인물로서의 해양영웅 캐릭터들은 대개 서해의 임경업, 남해의 이순신, 최영, 서남해의 장보고, 왕인, 동해의 이사부 등을 대표적으로 거론할 수 있다. 설화적 인물로는 마고할미(설문대할망)에서 관음, 서복, 뽕할머니 외에 발굴 중인 설화인물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일부 캐릭터들은 이미 발굴되어 대형콘텐츠로 제작되고 있거나 제작 완료된 바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순신과 장보고, 왕인 등일 것이며, 동해의 이사부도 독도와 관련하여 기획된 바 있다. 조만간 대형 프로젝트로 기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군산의 최치원 캐릭터도 사실상 이러한 기획단계의 초입에 들어서고 있는 사례 중의 하나다.

이들 영웅 캐릭터들은 그것이 역사적 실존 인물이든, 설화적 인물이든 일정하게 Fac-tion(fact+fiction)

화되어 나타나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픽션화 되어 주장되는 단계를 거치고 있다. 곡성의 심청이나 장성의 흥길동은 그 대표적인 예에 속할 것이다. 연고와 크게 상관없는 픽션화의 단계를 거쳐, 지자체의 명운을 걸 만큼의 비중을 가지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역사적 실존인물이나 아니냐, 출생지나 아니냐를 가지고 법정 비화로 번지는 경우도 발생한다.¹⁾ 이 트렌드는 결국 지자체 혹은 당대 다중의-민중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욕망이 투사된 매개물 내지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흥미를 끈다. 역사적 사실로서의 팩트-물론 설화를 포함해서-와 다중의 상상으로서의 픽션이 만나는 지점들이 존재함을 드러내준다. 사실상 종교에서는 이 너머의 진실(ture)을 볼 수 있어야 하겠지만, 다중 욕망의 투사물이라는 그 너머의 진실(true)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할 요소 중의 하나다. 이 욕망의 투사는 대개 기능적 욕망들과 정서적 욕망들로 채워져 있어서, 그 분별의 지점을 찾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모두 당대 다중의 욕망을 환기시킨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수많은 해양영웅 아이콘들 중에서 시대와 공간을 관통하는 코드를 어떻게 추출하고 읽어내는가에

1) 줄고, 「설화기반 축제캐릭터의 스토리텔링과 노스텔지어 담론」, 『남도민속연구』, 2007.

따라 그 의미 혹은 성격 규정이 달라진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캐릭터들은 사실상 수많은 아이콘들 중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이 시대정신 혹은 역사정신 등에 비추어 재조명될 때, 이른바 코드로서의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역사적 실존인물, 혹은 설화적 가상인물들에 대하여 우리는 왜 영웅의 칭호들을 부여하는 것인가? 과거에 혹은 이 시대에 왜,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드러내고자 하는가? 이것은 각각의 접근태도와 방식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2. 팩션 속 군산의 최치원

최고운에 대한 설화는 전국적으로 분포한다. 고군산을 비롯한 해안지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다. 이 설화들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등 문헌으로 남아 있다. 일반인들에게는 주로 전설을 중심으로 한 구비담론으로 전국에 걸쳐 전승되어 왔다. 이후 일련의 소설화단계를 거치면서 『孤雲傳』 등으로 발전되었는 바, 양자가 일방적 경로를 통해 발전했다기보다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것으로 이해된다.

金富軾의 <三國史記>, 一然의 <三國遺事>, 徐居正의 <東國通鑑>, 吳灃의 <東史纂要>, 洪奭周의 <桂苑筆耕> 등을 포함하여 후세의 史家들이 보고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최치원은 신라 憲安王 1년(AD 857)에 신라의 沙梁部에서 태어나 12세에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고 18세에 賓貢科에 급제하여 宣州 漂水縣尉에 임명되어 23세때 兵馬都統 高駘의 종사관으로 書記의 책임을 지게 되면서 24세에 그 유명한 討黃巢格文을 짓게 된다. 唐의 문인들과 교류하면서 文名을 떨치고 29세에 신라로 돌아온다. 당시 국정이 문란하여, 지방으로 나가 武城太守 등을 지냈으며, 眞聖女王 8년(AD 894)에 時務十餘條를 상소하여 정치개혁을 주장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자 가족과 함께 가야산에 들어가 은둔의 삶을 살았다고 전해진다.²⁾

설화의 주인공으로서의 최치원은 돼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체 장수 노파에 의해 길러진 異人임과 동시에³⁾ 유령들과 詩로써 교류하며 사랑과 작별을 나누는 傳奇的 인물이기도 하다.⁴⁾ 본격적인 소설의 시대가 열린 후에는 文人理想國 天子의 위치를 차지하기도 하고,⁵⁾ 도술을 구사하는 도인으로 중국 천지를 무대로 초인적 활약을 펼치는 영웅이 되기도 한다.⁶⁾ 이것들을 설화기반 소설이라고 부를 수 있다. 후일에는 역으로 민간인들에 의한 구전전승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고군산지역의 최치원설화와 유사한 설화들은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다. 경북지방에 전해져오는 ‘최치원선생’⁷⁾ 강원도 금화군의 “금돼지와 원”⁸⁾ 평북 철산군의 “금돼지와 최치원” 충남 대덕군의 “최치원의 출생과 성공”⁹⁾ 그리고 전북 고군산을 중심으로 하는 沃溝 古群島洞窟¹⁰⁾ 등은 그 중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서해숙이 『구비문학대계』 및 기타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한 최치원 설화자료에서도 분포의 전국성을 볼 수 있다.¹¹⁾

	제목	조사지	제보자	출전	화소
1	최치원선생	경북대	송재환	한국민간전집	사포,명주실,뫼산바위굴,금빛돼지,잉태棄兒,경주최씨시조

2)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이 전북 부안에서 집필하면서 보냈던 은둔의 양상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다.

3) 최상수, 『조선구비전설지』, 조선과학문화사, 1949, 147쪽.

4) 『태평통회』 권육십팔 <최치원전>, 이 작품을 설화로 볼 것이 아니라 당대 전기소설의 전래 관계나 표현 수법으로 보아, 우리 소설의 최고 작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5) 沈義, 『大觀齋夢遊錄』

6) <崔孤雲傳>의 이본으로 알려진 20종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崔孤雲傳>, <崔致遠傳>, <崔문헌전>, <최충진> 등

김수중, 「고소설에 나타난 최치원의 신화적 성격」, 『국어문학』34집, 1999, 219쪽.

7) 최상수, 『한국민간전설집』, 통문관, 1958, 238~239쪽.

8) 최상수, 『한국민간전설집』, 통문관, 1958, 426~428쪽.

9) 『한국구비문학대계』, 충남대덕군편4*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668~673쪽.

10) 최상수, 『조선구비전설지』, 조선과학문화사, 1949, 147쪽. 『내고장 전북의 뿌리』, 1984, 582~583쪽.

11) 서해숙, 「최치원설화의 설화적 성격」, 『한국언어문학』제50집, 2003, 69쪽

2	최고운출생담	충북보은	서재호(남,79)	한국구전설화	원님부인,명주실과 바늘,금단산 큰굴,금돼지,늑피가죽,잉태,최고운
3	최치원	전북진안	박기상(남,60)	한국민속종합 보고서(전북편)	원님부인,명주실,계산굴,금돼지,사슴가죽,잉태,棄兒,과경노,옥함 속 알아맞추기
4	최치원의 출생과 성공	충남대덕	정인운(남,75)	대계4-2	원님부인,명주실,산 돌문,돼지,술검정,잉태,棄兒,새 보호,육아,破鏡奴,옥함 속 알아맞추기,입신양명
5	최고운탄생과 중국사신물리치기	전남장성	안재운(남,74)	대계6-8	원님부인,큰 바위,금돼지,말가죽,잉태,棄兒,학 보호, 중국사람과 문장 겨루기
6	최치원	전북정읍	전병욱(남,86)	대계5-5	현감부인,명주실,좌천대 바위,잉태,棄兒,학 보호,중국사람과 문장 겨루기
7	돼지자손 최고운	강원영월	엄기복(남,73)	대계2-8	원님부인,실과 바늘,지리산 큰바위, 돼지, 鹿皮,잉태,최고운
8	금돼지가 낳고 학이 키운 최고운	경남의령	한진식(남,61)	대계8-11	원님부인,명주실과 바늘,돌섬 굴, 금돼지,잉태,棄兒,새 보호,破鏡奴,석함 속 알아 맞추기,입신양명
9	금돼지자손 최고운(1)	전남승주	조기현(남,54)	대계6-4	금돼지자손 최고운,과경노,석함 속 알아맞추기
10	금돼지자손 최고운(2)	전남승주	김용수(남,65)	대계6-4	돼지자손 최고운,기아,학 보호,과경노,함 속 알아맞추기
11	최고운선생이 꽃은 가야산 작지	경북성주	이원희(남,69)	대계7-5	가야산 은거,작대기를 통해 죽음 예고
12	최고운선생	전북 고군산군도	박상률	서해속조사	원님부인,명주실,금돼지굴,늑피,잉태,기아,학 보호,중국사람과 문장 겨루기, 가야산 산신
13	최치원이야기	경북월성	이석춘(남,79)	대계7-1	부인,금돼지굴,잉태,과경노,가야산산신
14	최치원이야기	전북부안	박정서(남,44)	대계5-3	원님부인,명주실,깊은산 동굴,늑피,잉태,기아,학 보호,과경노,중국과 지혜겨루기,신선,금돼지 자손

이는 최치원설화가 가진 민중적 과급력을 말해주는 것이며 특히 장구한 세월동안 설화와 지명전설 등으로 존속해왔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물론 이같이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 廣布傳説은 연구자와 채록자에 따라서 얼마든지 추가될 수 있다. 그 특성 또한 달라질 여지가 있음을 전제해두어야 한다. 본고에서 다루는 서남해 도서지역의 최치원관련 설화 등을 전제하면, 다른 특성보다는 도서해양적 성격이 도드라져 보인다.

최치원 지명설화와 관련하여 직접 논의한 사례들은 일반설화에 비해서도 그렇거니와 특히 사상이나 역사 등에서 고구되어 온 바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 그나마 경남 양산시의 임경대에 관한 논의라든가,¹²⁾ 비금도를 중심으로 지명설화를 분석한 이준곤의 논의 등이 거론 가능하다. 이 중에서 이준곤의 논의는 최치원설화를 대중국 해양항로와 연결시켜 해석했다는 점에서 보다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이도의 상산은 진리 서남쪽 곧 우이도 북쪽에 있는 높이가 359M의 산으로 고운이 중국에 갈 때, 이 산에 올라 바둑을 두고 놀았다는 돌바둑판과 최치원 샘이 있다. 심한 가뭄에는 여기에서 기우제를 지내 비를 내리게 하였다고 전한다.¹³⁾ 우이도 관암봉은 진리 서쪽에 있는 봉우리로, 면암 이익현이 흑산도에 귀양살이할 때 이 산에서 관원과 함께 쉬었다고¹⁴⁾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최치원과 관련하여 이야기되기도 한다.

신안군 비금도의 '수도산-시엠'은 관청동 뒤, 수도산에 있는 샘으로 아무리 가물어도 줄지 않는 샘으로 알려져 있다. 고운이 중국으로 가는 길에 수도산에 올라 쉬면서 이 샘물을 떠마셨다고 하는데, 그 후부터 이 샘물 위에는 늘 은주발 뚜껑이 떠 있었다고 전한다.¹⁵⁾

고군산군도 신시도의 월영대는 신치 서북쪽에 있는 산으로 최고운이 지내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¹⁶⁾ 자천대는 옥구 읍내 상천리 동문밖에 있다고 알려져 왔으며, 큰 반석이 있고 그 밑에 좋은 샘이 있는데, 최고운이 이곳에서 놀았다고 전한다.¹⁷⁾ 이 자천대는 18세기 이후에 복구되어 옥구군 선연리(仙緣里)에

12) 송희준, 「문헌으로 통해본 임경대 위치의 비정」, 『영남학』 제7호, 2005, 345~375쪽.

13) 『한국지명총람』14권(전남편 II), 1982, 455쪽. 2008 필자 현지취재

14) 『한국지명총람』14권(전남편 II), 1982, 454쪽. 2004 필자 현지 취재

15) 『한국지명총람』14권(전남편 II), 1982, 466쪽.

16) 『한국지명총람』12권(전북편) 하, 1981, 32쪽.

17) 『한국지명총람』12권(전북편) 하, 1981, 40쪽.

있었다. 일제시기에 군용 비행장이 들어서면서 다시 철거될 위기에 놓인 것을 옥구향교 경내로 옮겼고 1967년에 중건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¹⁸⁾

이외에도 옥산면 당북리의 염의서원은 서원뜰에 있는 서원으로, 문창후 최치원, 문충공 고경, 문영공 고용현을 모시는 사당이다.¹⁹⁾ 이 설화들의 공통사항은 섬지역의 식수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과 특히 바둑돌이라는 화소를 통해 도교적 세계관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도서해양지역의 최치원설화를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고군산지역의 최치원관련 지명은, 고려 현종 때 최치원을 문창후에 봉하면서 내린 시호와 관련된 문창마을, 최치원이 깊이 은둔했다는 심리마을, 최치원이 글을 읽으며 새로움을 다졌다는 신치마을, 최치원의 글 읽는 소리가 중국까지 들렸다는 월영산, 최치원이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는 대각산 등으로 주장된다.²⁰⁾ 야사에 따르면 최치원의 아버지가 신라의 무관으로 내초도(일명 새섬이라고 함) 기지에서 수군장으로 주둔한 바 있었는데 이때 최치원이 따라와 같이 살았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내초도 앞 강가인 하제에도 놀러 다닌 일이 있었고, 그의 글 읽는 소리가 중국에까지 들려 당나라에서 사신이 건너와 그를 데려갔다는 것이다.²¹⁾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관련지명이 다수 남아있는 옥구출생설이 주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혹은 출생지 사랑부를 경주라고 전제하는 맥락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곳으로 주장되기도 한다.

최치원의 고군산 출생담은 이능화의 『朝鮮巫俗考』를 통하여 그 객관성을 담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은 <이능화, 『朝鮮巫俗考』, 1927>의 기록과 崔孤雲傳 및 향토문헌 등을 근거로 옥구출생설을 주장한 바 있다.

전라북도 옥구군에 자천대(紫川臺)가 있는데, 세간에 전해지기를 최고운 선생이 노닐던 유적이라고 한다. 옥구군 남쪽 바다에 섬들이 있어 ‘고군산군도’라고 하는데, 주위가 2백여 리에 달한다. 한 섬에 금돼지 굴(金猪窟)이 있는데, 깊이를 헤아릴 수 없고, 굴 앞의 바다를 ‘금돼지 바다(金猪洋)’라고 부른다. 섬의 노인들이 이런 이야기 등을 서로 전했다. “옛날에 금빛 털의 돼지가 살던 굴로 제법神通력이 있었다.(중국 고대의 판타지 소설인 『요제지이(聊齋志異)』에서 말하는 ‘강남의 오통(江南五通)’과 유사한 이야기이다. 신라 말에 최충(崔沖)이 이 고을 수령으로 와서 아들을 낳아 ‘치원’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어려서부터 총명함이 남달랐다. 섬의 옛 이름이 문창군(文昌郡)으로, 또한 물고기가 많아 당나라 상선이 왕래하며 무역을 하는 장소였다. 당나라의 상인들이 어린 최치원을 보고 기뻐하여, 마침내 그를 데리고 당나라로 들어갔다. 당에서 과거를 보고 벼슬에 오른 뒤, 귀국하여 산천을 유람하였다. 섬의 월영대가 바로 선생이 거문고를 타던 곳이다.” 지금도 섬사람들이 선생의 기풍을 사모해 사당을 세우고 섬기며 경배하기를 마치 천신(天神)과 같이 한다.²²⁾

이상에서 보듯이 최치원 출생설과 맞물려있는 고군산군의 설화는 특히 주목을 요한다. 고군산군도 및 군산시(옥구)해안은 최치원설화의 현장으로 금도치굴, 금돼지굴로 불리는 최치원의 출생설화 배경지이기 때문이다. 또 선유도, 선유봉, 선유사장, 자천대와 최치원신사는 친연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명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선유도리는 신선을 형용하는 지명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최치원의 거주 혹은 유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선유도리에 잔존하고 있는 금돼지굴 또는 금도치굴 유적을 들어 이를 해명하는 것은 최치원의 도교적 세계관에 주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仙遊沙場, 仙遊峰 등의 仙字계열 명칭이 최치원으로부터 유래되었다는 주장들도 같은 맥락이다. 이중환의 『擇里志』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8) 김성환, 「신시도의 정체성과 문화적 특성화 비전」, 『새만금 문화포럼, 신시도에서 새만금과 만나다 자료집』, 2007. 2.

19) 『한국지명총람』12권(전북편) 하, 1981, 45쪽.

20) 김성환, 「신시도의 정체성과 문화적 특성화 비전」, 『새만금 문화포럼, 신시도에서 새만금과 만나다 자료집』, 2007. 2.

21) 『沃溝郡誌』권1, (1924간행), 1982, 177~178쪽.

22) 김성환, 「신시도의 정체성과 문화적 특성화 비전」, 『새만금 문화포럼, 신시도에서 새만금과 만나다 자료집』, 2007. 2.

임피의 서쪽이 옥구이며 서해에 임해 있고, 자천대라는 작은 기슭이 바닷가로 똑바로 들어가 있고, 그 위에는 두 개의 石籠이 있다. 신라 때 최고운이 태수가 되어 와서 롱 속에 비밀문서를 감추어 두었는데, 籠이 즉 하나의 큰 돌이었다. 산기슭에 버려져 있었으나 사람들이 감히 열지 못하였고 혹 끌어당겨 움직이면 바다에서 바람과 비가 갑자기 불어왔다. 마을 주민들은 이것을 이로운 것으로 생각하여 날이 가물면 수 백명이 모여, 큰 밧줄로 끌어 당겼는데 곧 바다에서 비가 몰아와서 받고랑을 흠족하게 적시게 하였다. 매년 使客들이 고을에 올 때마다 가서 보게 되어 고을에 폐가 되었고, 고을 주민들이 고통으로 여겼다. 옛날에는 그곳에 정자가 있었으나 백년 전에 정자를 허물고 석릉도 땅에 묻혀 자취가 없어지고 지금은 가보는 사람조차 없다.²³⁾

비금도와 우이도의 기우제에서 최치원이 보여준 신통력과 자천대의 석릉을 통해서 비를 내려주게 하는 신통력이 유사한 모티프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속문화적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단서들을 제공해주는데, 비밀문서로 바위를 상징하고 있는 점, 또 기우제 줄다리기(石籠 다리기)를 했다는 점 등은 재구되거나 복원 가능한 원형적 소재가 되기 때문이다.

이준곤은 이를 고군산군도 주변에서 형성된 해양세력과 관련성이 있지 않느냐 추정했다. 최치원의 자가 海夫이며 어려서부터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학문을 익혔다는 이야기가 해양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²⁴⁾ 그 근거로 들고 있다. 특히 설화적 증거물들을 통해서 보는 최치원 아이론은 12세라는 어린 나이에 서해바다를 횡단해 중국의 문장가로 성장하는 영웅 스토리라는 점에서 서해안의 민중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소재였을 것임에 틀림없다. 또한 백제 및 고구려의 부흥이라는 중차대한 문제 등이 함께 뒤섞이면서 더욱 부각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능화가 얘기한 金猪窟과 金猪洋에²⁵⁾ 대해서도 비슷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금저굴에 사는 금돼지 이야기는 地下國大賊退治說話의 유형으로 그 시대에 반역하는 세력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으며, 金猪洋이 ‘금돼지 바다’로서 바로 새로운 해양세력의 세력권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²⁶⁾ 다시 말하면 최치원의 바다가 되는 셈이다. 이것은 이능화의 기록이 현지의 구전을 채록한 것이라는 점에서 시사해주는 바가 많다. 기왕의 고문 해석들에서 신라를 중심으로 한 최치원의 삼교통합의 측면이 강조되었다고 한다면 해양설화를 통해서 본 민중들의 수용의식은 오히려 일원화된 이데올로기에 반항하는 항거의 측면이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물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개의 설화들이 신선 세계적 모티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²⁷⁾ 주목을 요한다.

이들 설화들은 자연스럽게 해양루트에 대한 해석으로 연결된다. 비금도의 고운정 이야기, 선왕산 이야기, 관청동 이야기, 우이도, 흑산도, 해남지역에 남아 있는 최치원 이야기, 그리고 고군산군도의 최치원 출생과 성장 등의 이야기 등은 서남해안 일대의 입당항로를 따라서 이야기의 띠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최치원이 항해자로서 영웅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그가 거쳐 가는 도서에서 비를 내리게 하거나 항해자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샘을 발견하는 등의 신이한 능력을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는 농경신 또는 해양신으로 까지 숭앙되고 있다. 따라서 최치원의 이야기는 항해자들에게 그의 입당항로를 따라 기억해야 하는 준비사항이나 항로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실질적인 기능을 하였다.²⁸⁾ 때문에 특히 대당 항로의 결절지에서 생활했던 서해 및 서남해 지역 사람들에게 물길을 열어주는 매개자였다.

비금도 및 우이도의 최치원 설화는 이 섬이 항해자들의 식수를 공급해주는 중간기착지라고 해석할 수

23) 이중환저 이영택역, 『택리지』, 삼중당, 1975, 76쪽.

24) 이준곤, 「비금도설화의 의미와 해석」 『도서문화』 제18집, 2002, 362쪽.

25) 이능화저, 이재곤역, 『조선무속고』, 동문선, 1991, 291쪽.

26) 이준곤, 「비금도설화의 의미와 해석」 『도서문화』 제18집, 2002, 362쪽.

27) 김영래, 「‘황금돼지’와 최치원코드-‘물’에 의한 해양과 대륙의 소통 문명-」, 『새만금 문화포럼, 신시도에서 새만금과 만나다 자료집』, 2007. 2. 27쪽.

여기서는 금돼지와 관련하여 圖像學的 체계를 발견하고 이를 고구려의 국내성을 발견하는 계기는 물론 부도지의 마고여신과 연결시키는 해석을 내놓고 있어, 눈길을 끈다.

28) 이준곤, 「비금도설화의 의미와 해석」 『도서문화』 제18집, 2002, 381쪽.

그가 거쳐 간 지역의 명칭이 선유봉, 선유도, 선왕산 등의 仙字 계열로 불리고 있는 것을 통해 이를 주장하고 있다.

있다. ‘水島’라는 지역명칭은 곧 ‘물섬’으로 식수공급의 의미를 갖는다. 항해자들은 이 물섬에서 최치원의 신이한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식수를 확보하고 다음 항해를 준비할 수 있었다.²⁹⁾ 이는 최치원의 물이야기 혹은 항해 이야기의 버전이다. 앞서 예시한 설화의 마지막 단계에서도 “우이도로 건너갔다”라고 해서, 이 설화가 중간 기착지설화임을 보여준다. 나아가 이 항로는 국내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당항로로 확장되어 관념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강화도 조약에 반대해 흑산도에 유배당하였던 최익현(1833~1906)의 기록에서도 최치원이야기가 거론된다. 우이도-당시에는 우이도를 소흑산도, 혹은 흑산도라고 불렀다-로 압송되어 가는 항로에서, 우이도 상산 정상에 최치원샘에 관한 내용을 配本臚本에 기록하고 있다. “이 산 봉우리 바위 아래에는 작은 샘이 있으며,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고 그 맛이 달고 맑다. 이르기를 고운 선생이 지시하여 판 것이라 하니 그 말이 아주 황당하다.”³⁰⁾ 하였다. 2007년에는 중국 모 방송사에서 최치원 다큐를 제작하면서 우이도 상산봉 최치원샘을 취재해가기도 하였다.³¹⁾

최치원설화의 화소분석을 통해서 추출할 수 있는 바는 대개, 異類와의 交婚에 의한 신이한 탄생 및 금돼지의 신령성을 받아 탄생했음을 적시하는 부분들이다. 이어 棄兒를 거쳐 성장과정에서 옥함 속의 물건을 맞추어 나라를 구하고 중국사신과 文才를 겨루어 이기는 등의 신이장면이 부각된다. 물론 사후에도 죽지 않고 신이성이 강조되어 생사초월의 인물로 신격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소설과의 관련성 속에서도 강조되는 바, 첫째, 설화에서 사또의 부인이 금돼지에게 被拉된 후에야 태기가 있어 최치원을 낳게 되므로 최치원이 금돼지의 아들이 되어 있다는 점, 둘째, 치원을 棄兒가 되게 함으로써 그의 非凡性을 드러내는데, 이 비범성은 그가 생전에 天上界의 인물이었음을 암시해준다는 점, 셋째, 고운의 출생에 관련된 金猪의 존재는 최치원이 잉태 시 仙界의 靈氣를 몸에 받았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전해오는 金猪被拉說話 소재를 道仙적 출생담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후일 최치원이 종말에 入山仙化하였다는 仙界復歸의 구조를 전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고운의 출생담은 금돼지 설화가 소설에 수용된 것으로 해석한다.³²⁾

소설뿐 아니라 여러 작품들, 예를 들어 『수이진』 일문 12작품(혹은 13작품) 등에 대해서도 모두 민간전승에 근거한 구비설화적 성격을 농후하게 나타내고 있다.³³⁾ 최치원의 기우제 설화는 『崔孤雲傳』의 祈雨祭설화와 비교되기도 한다.³⁴⁾ 『三國遺事』의 寶壤梨木의 이야기와 그 모티브와 구조가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보양이 중국에서 귀국하면서 서해바다의 용왕에게 佛法을 전하고 용왕의 아들인 李牧을 데리고 귀국하는 점이나 날이 가물어서 李牧으로 하여금 비를 내리게 하고 天帝가 이목을 처벌하려 하니 이목을 살리는 대목들이 모두 한문소설 『崔孤雲傳』에 그대로 차용되고 있다. 서해용왕의 도움을 받는 이야기는 도당 유학승들이 귀국하는 도중에 일어나는 모티브로 자주 보이며, 이 전통적인 설화구조를 한문소설인 최고운전이 차용하고 있다고 해석한다.³⁵⁾ 이 설화들은 대개 신안군의 여러 지역에 전승되고 있는 최치원 관련 설화와 매우 유사한 모티프 및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 설화들과 문학화된 다른 장르들은 종합하여 한마디로 말한다면, 설화기반의 문학작품임과 동시에 문학성을 띤 설화라고 할 수 있겠다.

29) 이준곤, 「비금도설화의 의미와 해석」 『도서문화』 제18집, 2002, 353쪽.

30) 국립목포대 박물관, 전남도, 신안군, 『신안군의 문화유적』, 1987, 187쪽.

31) 최익현 관련 기록을 참고하면, 무안의 다경진을 떠난 최익현 유배호송 일행의 항로를 압태도-->팔금도-->기좌도-->도초도-->비금도의 항로로, 비금도에서 대양을 건너 우이도-당시의 소흑산도-로 가는 항로가 추정된다.

32) 崔三龍, 「崔孤雲傳의 出生譚考-崔致遠의 出生과 관련하여」, 『于雲 朴炳采博士 還曆紀念論叢』, 1985, 820~821쪽.

33) 문흥구, 「『수이진』 일문 『최치원』의 재고찰」, 『고소설연구』, 1998, 63쪽.

34) 최치원이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중국을 향해 떠나 瞻星島에 닿아 용궁을 방문하고 용왕의 환대를 받은 후에 용왕의 둘째 아들인 이목을 데리고 항해를 계속한다. 이목이 최치원의 항해를 안전하게 보호하니 물결이 일지 않는 순조로운 항해를 한다. 중이도(지금의 우이도)에 이르자 가물이 들어 섬이 붉게 말랐으며 도민들이 최치원에게 기우제를 부탁하자 이목으로 하여금 비를 내리게 한다. 이목이 비를 내려 중이도의 들을 넘치게 하자 도민들이 기뻐한다. 이때 하늘의 천제가 청의노승을 보내어 함부로 비를 내리게 한 이목을 죽이려 하자 최치원이 이목을 살린다.(崔孤雲傳)

35) 이준곤, 「비금도설화의 의미와 해석」 『도서문화』 제18집, 2002, 358~359쪽.

3. 대중국 아이콘 최치원

최치원설화가 지닌 대당항로는 최치원이 당나라에서 맛보았을 세계적인 걸쳐로드로 연결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남해 최치원설화의 항로적 기능은 해양로의 거점과 경유지라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해양시대로 불리는 오늘날 재구되어야 하는 목적과 부합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최치원을 통해 우리가 환기해야 할 것은 삼교융합의 통섭적이고 인문적인 정서환기뿐만 아니라, 신해양시대의 거점과 항로의 재창조라고 하는 시대정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지명설화와 관련하여 대입해보면,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하는 신시도의 지명설화는 해양항로의 거점으로, 우이도, 비금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명설화는 해양항로의 경유점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이들 설화가 가지는 주요 화소들인 물, 비, 그리고 섬으로 이어지는 결절지 등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이 설화들이 항로를 따라 형성되어 있으며, 그 기점이 고군산군도로, 경유지가 신안군을 중심으로 하는 다도해로 나타난다고 하는 점이다.

만약 최치원이 은거를 통해 항거하지 않았거나 혹은 선도적 맥락에서 초월된 삶을 살지 않고, 유교 이데올로기 등으로 신라통합을 강고하게 했더라면 그래서 정치적으로 성공한 지도자가 되었다라면 아마도 서해의 민중들은 최치원을 그들의 우상으로 유포시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민중들이 선택하여 신격화시키는 영웅들은 기득권에 의해 처형당하거나 좌절된 즉, 자신들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영웅들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설령 중국의 영웅일지라도 크게 개의치 않고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은 이러한 관념들 때문이다. 어청도, 외연도를 중심으로 하여 당신격으로 숭배되는 제나라 왕 전횡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즉, 어청도에 치동묘 혹은 치동서원이라고 하는 사당이 있는데, 초한 때 한신이 제나라를 쳐서 멸하고 스스로 왕이 되자 제나라 왕 전횡이 신하 500명을 데리고 이 섬에 와서 살았으므로 그를 기리어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낸다고 전해지고 있다.³⁶⁾ 신안군 임자면 수도에 있는 사도세자단도 유사한 맥락에서 거론해볼 수 있다. 이곳은 무산 위에 있는 단으로 철마 두 마리를 모시고 당제를 지냈다고 하는데, 조선 정조 원년(1777) 10월에 이 섬사람 이관중, 김석정, 채후천 세 사람의 꿈에 사도세자의 혼백이 나타나 단을 만들어 제사를 지내주라고 했다는 전설부터³⁷⁾ 시작된 동제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못다 이룬 꿈에 투사시킨 민중들의 이야기는 아기장수설화라는 모티프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유포되어 있기도 하다. 부안군 하서면 ‘느들바우’이야기는 월포 앞 갯가에 있는 바위전설인데, 용마와 관련된 아기장수설화의 변이형으로 전해지고 있다.³⁸⁾ 영암 마분점리의 “물-무덤”은 신원목 북쪽에 있는 마을의 큰 무덤으로, 옛날 도포면 원항리 원목에 살던 朱氏가 낳은 아들이 사흘 만에 혼자서 시령에 올라갔기도 하고 산에 뛰어 오르기도 하므로, 그 부모가 장차 역적도모를 할까 하여 죽였더니, 갑자기 흰말이 나타나서 크게 울고 죽어 이곳에 묻었다는³⁹⁾ 전설이 전한다.

이에 비해 못다 이룬 꿈에 대한 관념들이 초월적 이미지로 나타나는 것이 이른바 신선설화라고 할 수 있다. 최치원설화도 사실, 이 범주에서 논의될 수 있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널리 회자되어 왔던 서복설화 즉, 삼신산설화도 이런 맥락에서 거론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 고창군, 정읍시와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의 경계에 있는 방장산을 거론해 볼 수 있다. 이곳은 정읍 고부의 두승산, 변산과 더불어 전북의 삼신산으로 불려온다. 혹은 지리산, 무등산과 더불어 삼신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와 관련된 지명으로 봉래구곡, 선녀탕, 신선대, 선계사, 선계안골, 쌍선봉, 고군산의 선유도 등을 들기도 한다. 특히 대개의 서복설화가 지명전설로 남아있는 것이 보통인데 반해 전북 변산에서는 방장산을 매개로 이상향의 세계로 전환되어 포장되어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삼신산설화가 이후 도교적 세계관과 습합하여

36) 『한국지명총람』12권(전북편) 하, 1981, 33쪽.

37) 『한국지명총람』14권(전남편 II), 1982, 515쪽.

38) 『한국지명총람』12권(전북편) 하, 1981, 396쪽.

39) 한국지명총람 15(전남편 III), 1984, 한글학회, 252쪽.

이상향의 세계 즉, 동양의 파라다이스로 치환되어 왔음을 전제하게 되면 변산의 영주산설이나 봉래산설은 매우 흥미로운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이 설화소들 속에는 서북일행의 삼신산 설화와 도교적 무릉도원이 중첩되어 나타난다. 즉 봉래산이 도교적 이상향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것은 민중의 설화가 도교적 이상세계인 무릉도원과 습합되면서 전승된 동아시아의 파라다이스라고 할 수 있으며,⁴⁰⁾ 불로초와 신선이라는 도교적 세계관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다고 말할 수 있다.⁴¹⁾

이것은 최치원설화와 일정하게 겹쳐져서 관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남의 신선관련 지명설화에서도 사실상 최치원이나 서북만 부각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영암의 도선국사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경향들도 보여준다. 결국 서해 및 서남해 지역의 최치원설화 중 신선설화를 통해 그 이미지를 드러내는 것은 도선국사의 도참관련 지명설화나 서북의 삼신산설화 등과 중첩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며, 이는 당대의 민중들이 최치원을 어떤 맥락에서 수용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것이다.

이는 기왕에 선학들이 새만금을 규정한 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새만금문화권의 핵심 문화코드로 ‘개벽’을 꼽는다.⁴²⁾ 동학을 비롯한 증산, 원불교가 공히 개벽을 지향하는 점 주목할 만하다.⁴³⁾ 이런 개벽의 문화를 만들어 내는 데 가장 필요한 것으로 상생과 공존의 지혜를 내세우고 있다. 증산의 解冤相生은 그 대표적인 예에 속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신라시대의 삼교융합을 현대적인 버전으로 치환시켜 말하면, 기독교, 불교, 유교의 융합일 수도 있고, 기타 종교들 간의 융합일 수도 있을 것이다. 최치원코드가 전하는 것은 바로 종교 간, 문화 간의 종다양성을 인정하고 통섭하라는⁴⁴⁾ 메시지다. 이것은 이미 1000여년 전 최치원이 말했던 통합논의에 다름 아니다.

미래의 새만금에서 최치원을 어떻게 독해하는가에 따라서 최치원의 의미 자체가 달라진다. 古文해독과는 변별적이게 설화적 수용을 해왔던 지명설화 등이 이를 반증해 준다. 이 지역의 민중들이 설화라는 미디어를 통해서 최치원을 아이콘이 아닌 코드로 관통시켜왔듯이, 이제 다시 최치원을 어떻게 독해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기능적 욕망들 혹은 정서적 욕망들에 투사시키는가가 관점이 될 것이다.

설화를 통해 동아시아 향로를 환기시키는 것은 서북이나 도선을 통한 연안향로, 그리고 최치원을 통한 대당향로로 연결되어 고대 남해향로를 거쳐 유럽에 이르는 신해양시대의 코드로 연결되는 오래된 미래의 신해양시대를 환기하기 위함이다. 최치원설화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삼교융합 논리를 통해서 글로벌국가를 만든다든가 하는 거대담론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 지역의 민중들이 최치원을 수용했던 당대의 심성들을 복원시켜내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동학의 저항정신을 드러내고, 호남을 배경으로 흥기했던 신흥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다문화융합의 문화다양성을 드러내며, 기술적인 측면까지도 포용하는 통섭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최치원이 주는 교훈이 아닌가 생각한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합니다.

40) 줄고, 「해양문화의 프랙탈, 죽막동 수성당 포지셔닝」, 『변산반도 해양문화 포럼』, 부안군지역혁신협의회, 2007, 50쪽~51쪽.

41) 줄고, 「한국 서북설화의 현황과 관광자원화 방향」, 『도서문화』, 2007.

42) 김성환 외, 『개벽과 상생의 문화시대 새만금문화권』, 정보와 사람, 2006, 전체 내용 참고.

43) 김용희, 「동학을 통한 새만금문화권의 활용방안」, 『새만금 문화포럼, 신시도에서 새만금과 만나다 자료집』, 2007. 2. 28쪽.

세상은 선천의 상극적 질서, 즉 죽임·억압·분단·약탈·착취·소의 등의 생명파괴가 아닌 살림과 모심과 공경이 중심이 되는 후천세계로 넘어가는 시점에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꺾박받고 억압받던 모든 밑바닥 민중들이 다 같이 평등하게 대접받고 잘 사는 사회가 온다는 것이고, 그런 상생의 세상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함으로써 후천선경을 만들어 나가자 한 민중적 생명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44) 고운문화 자체가 삼교합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즉, 통섭의 입장에 서있는 학문이자 실천철학이기 때문에 문화콘텐츠시대의 화두이기도 한 인문정신과 기술정신의 통섭이라는 맥락에서도 이 논리는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에드워드윌슨이 제기했던 consilience-부합, 일치 등으로 번역된다-라는 용어를 최재천이 통섭으로 번역하면서, 이후 다학문 간의 컨버전스화에 대해 통상 통섭으로 불려오고 있다. 어쨌든 이를 문화적 맥락에서 차용해본다면, 다문화간 다종교간의 통섭이라고 이름 할 수 있을 것이다.

崔致遠揚州詩作淺析

主題詞：崔致遠 揚州詩作 介紹 淺析 欣賞

中國揚州崔致遠紀念館 董學芳

崔致遠先生是新羅最著名的文學家，也是衆多來唐朝求學、進士及第中的最爲杰出的新羅文人。他在唐期間刻勵爲學，對中國傳統的詩、文已有很深的造詣。他在揚州時，風華正茂、才華橫溢、文采飛揚，才思敏捷，辛勤筆耕，除撰寫了大量的書、啓、表、狀等幕府文翰和公私應酬之作外，還創作了大量的漢詩作品，他的揚州著作《桂苑筆耕集》中就有60首。他也是晚唐詩人，在《新唐書·藝文志》中有載。崔致遠的文學成就對朝鮮半島漢文學的發展有着非常深遠的影響，被譽爲“東方文章之本始”、“東方藝苑之本始”、“漢詩學宗師”、和“東國文學之祖”。

一、崔致遠的揚州詩作

唐代揚州爲唐朝十大道之一的淮南道首府，淮南節度使府官衙府署所在地，管轄淮南八州。淮南爲天下雄藩，爲東南重鎮和政治、經濟、文化中心。

唐代揚州城有子城和羅城兩重城，城池面積達18.25平方公里，爲全國第三大城市。唐代揚州經濟繁榮，城市繁華至極。其時百工聚集，商業、手工業空前繁榮，揚州成爲全國最大的商業城市，爲唐王朝最富庶的地區，“揚州富庶甲天下，時人稱揚一益二”。唐代揚州文化藝術繁榮，人文薈萃，成爲文人墨客流連忘返之地。唐代著名詩人幾乎都來到揚州、詩咏揚州，留下《春江花月夜》孤篇蓋全唐名篇和“天下三分明月夜，二分無賴是揚州”等描寫揚州繁華勝景的千古絕唱和佳話。

唐代揚州運河發達，是全國水、陸運輸的交通樞紐和南北經濟大動脈、最大的貨物集散地和貿易市場、重要的對外貿易四大港口之一，大批的外國人來到揚州，唐代揚州爲著名的國際繁華大都會。唐代揚州還與新羅有一條海上直航的交通航線，新羅人和新羅商船由此來往于揚州與新羅之間，貿易往來和文化交流十分頻繁。揚州淮南道管轄下的楚州設有“新羅坊”，專門接待來往新羅使節、客商，也是新羅人的聚居地。揚州與新羅有着密切的往來。

揚州也是新羅崔致遠先生在唐代供職、筆耕、經行和生活之地，他的文學代表作《桂苑筆耕集》著成之地，是崔致遠先生入唐事業達到頂點，成就最爲輝煌的地方，也奠定了他回到新羅以後的政治、文化地位的基础。他在揚州留下了許多詩篇和佳話，結下了一段情緣。揚州是崔致遠先生的第二故鄉。

新羅著名文學家崔致遠十二歲入唐求學六年，一舉及第，考取唐賓貢進士，“筆作飯糲”，詩賦溢箱。后在唐朝入仕，步入宦途，調授江南西道宣州溧水縣尉，任滿而罷。

唐僖宗廣明元年（880），崔致遠受到唐代揚州的吸引，在自薦和“同年”顧云的舉薦下，來到淮南揚州，入淮南節度使、諸道行營兵馬都統高駢幕府，得到了高駢的賞識，備受禮遇，被委以書記之任，“表狀文翰，皆出其手”，爲高駢代書了大量的表、狀、文、告。時值黃巢起義，崔致遠爲高駢撰寫了《檄黃巢書》，天下傳誦，受到唐王朝和高駢等人的賞識和信任，才華既顯，居高名遠，被朝廷授予“承務郎、殿中侍御史、內供奉”之銜，賜“紫金魚袋”。后被特授爲都統巡官，隨高駢出師東塘（今灣頭附近），參與淮南的軍事活動，參加過修築揚州唐城羊馬城。此

后又改賜爲館驛巡官，職掌消息傳遞、公文投遞、官物轉運和來往官員接待等事宜。崔致遠在揚州期間，還寫有大量詩賦，杰出的文學成就和政治才能得到了充分的發揮。唐末，崔致遠對淮南的政局和个人前途深感擔憂，請求准許回國。高駢特准命他以“淮南入新羅兼送國信等使”的身份歸覲。唐僖宗中和四年（884）秋，崔致遠與其弟人“共別淮城”，離開揚州回國，在山東大珠山下候風。次年春登舟起航，回到新羅，返回了闊別16年的祖國。

崔致遠在揚州四年多，受到了淮南節度使高駢和其他揚州先人們各方面的善待，妥善安排他的工作和生活，留下了許多佳話。崔致遠對揚州有着特殊的感情，以“桂苑繁華、揚都壯麗”贊美揚州，自稱“桂苑行人”，把他在揚州的文集稱爲《桂苑筆耕集》，回國后，亦自稱“桂苑行人”。他与古城揚州的友情，永遠在揚州人民的心中。揚州至今仍存有崔致遠供職、經行、生活的遺迹，刻立有遺迹紀念碑并建有崔致遠紀念館。

崔致遠回國后，將其任唐朝的“私試今體賦五首一卷、五言七言今體詩共一百首一卷、雜詩賦共三十首一卷、中山覆篋集一部五卷”与在揚州淮南幕府時所作的幕府文翰和公私應酬之作書、啓、表、狀和詩賦“四年用心，万有余首”，“淘之汰之”，精選手編成集“桂苑筆耕集一部二十卷”，呈獻給新羅憲康王。《桂苑筆耕集》其中有揚州詩作六十首，乃新羅三國時代傳世之唯一個人別集、我國正史所載朝鮮半島之第一人的著作，對韓國文學的發展產生了巨大影響。

崔致遠的詩作，由于時隔久遠，今天我們所能看到的只不過是其中的一小部分，散失較多。中國著名學者陳尚君從《桂苑筆耕集》中收集了60首，從《東文選》、《漢詩選集》、韋旭升《朝鮮詩歌史》、金東勛《晚唐著名詩人崔致遠》、何鳴雁《新羅詩人崔致遠》等論文和著作中收集了22首詩，總共收集崔致遠詩有82篇，這些詩作錄入中華書局1999年版《全唐詩續拾》，后整理收編在《全唐詩補編》中。近年來，經牛林杰等中韓兩國學者最新考証的成果統計，現存崔致遠的詩共有127首。其中除《桂苑筆耕集》中的60首，收錄有獻給高駢的《七言紀德詩三十首謹獻司徒相公》30首、大珠山下10首等六十首。另未能入集已發現的有67首，分別在不同的中韓兩國的《全唐詩補編》、《全唐詩逸》、《全唐詩補逸》、《三國史記》、《十抄詩》、《東文選》等文獻中。其中，《秋夜雨中》、《送吳進士歸江南》、《暮春卽事和顧云友使》、《和顧云侍御重陽咏菊》、《和張進士喬村居病中見寄》、《送吳進士歸江南》、《泛海》、《蜀葵花》等等，均爲崔致遠在揚州所作。

二、崔致遠揚州詩作淺析

崔致遠在揚州時，刻勵爲學，才華橫溢，勤於筆耕，創作了大量詩詞曲賦，均爲親感親歷，文字精美華麗，內容充實豐富，文學造詣頗深，富有韻味，高古柔婉，兼擅各體，文辭典范，誠史家之實錄，文宗之遺范，与晚唐諸家各有千秋，深得后人推崇，体现了崔致遠深厚的漢文化功底。五代時期，崔致遠的詩作還遠傳日本，在日本學者大江維時編成的《千載佳句》中入選了九聯八首詩。

崔致遠的揚州詩作，其題材有寫事、記人，有寫景、咏物，有抒情、懷古，有紀游、送別等等，真實記錄了崔致遠揚州的工作、生活、交友和情感，他的揚州詩作就是他揚州人生的真實寫照。謹試析如下；

（一）寫事記人的詩作

崔致遠的揚州詩抄有与太尉高駢、座主裴瓚、同年顧云、晚唐詩人張喬、進士吳巒、盱眙地方長官李展等詩文唱和、交游的寫人記事的詩篇：

1、与高駢知遇之恩詩

高駢，字千里，出生于禁軍將領世家，其祖父高崇文、父親高承明都爲唐憲宗禁軍高級將領。高駢好讀書，喜詩

好文，又喜談兵法，文武雙全，戰功累累，《全唐詩》彙有其詩作一卷48首。唐僖宗乾符六年，被任命為淮南道節度副大使知節度事、充都統、鹽鐵使，鎮守淮南揚州一帶。

高駢對崔致遠有知遇之恩。《桂苑筆耕集》收錄的與高駢有關的詩文較多，其60首詩中與高駢有關的就有43首，對高駢有“司徒相公”、“太尉”、“侍中”、“員外”等稱呼，可見他們交往之密切。其第十七卷中的《七言紀德詩三十首謹獻司徒相公》組詩，是高駢任職淮南節度使時，崔致遠離任溧水縣尉后，謀求投奔高駢時的獻給的紀德詩，均為七言四句三十首，都是對高駢歌功頌德的詩，把高駢比作“留侯”、“驃姚”、“臥龍”，說他兵機、筆法、練兵，都很了不起，頌揚高駢的人生經歷和武功勛業，從而，得到了高駢的賞識，順利進入高駢幕府。其組詩的最后一首《陳情》：“俗眼難窺冰雪姿，終朝共咏小山詞。此身依托同鷄犬，他日升天莫棄遺”，較好地體現了崔致遠“弄才子之筆端，寫忠臣之襟抱”的文學思想，是用漢代淮南王劉安得道舉家升天的故事，喻求高駢提携之意。從此以后，崔致遠“蒙高侍中專委筆硯，軍書輻至，竭力抵擋”，和高駢結下了不解之緣。

崔致遠投奔高駢麾下獲得允許以后，又寫了一首詩題為《陳情上太尉詩》：“海內誰怜海外人，問津何處是通津。本求食祿非求利，只為榮親不為身。客路離愁江上雨，故國歸夢日邊春。濟川幸遇恩波廣，愿濯凡纓十載塵。”在這首詩里，崔致遠向高駢更明白地說明了自己來投高駢幕府的目的是“求食祿”、“為榮親”；崔致遠除了以“濟川幸遇恩波廣”一句向高駢表達感謝以外，還提出了“濯纓十載”的希望，由此開始了在揚州高駢幕府的四年多的生活。

2、與座主裴瓚師生情誼詩

裴瓚，崔致遠稱之為座主，是崔致遠的恩師。唐僖宗乾符元年（874），裴瓚以禮部侍郎知貢舉，崔致遠和歸仁澤、顧云、劉崇望、夏侯澤、蔣曙等三十人同登進士第，后隱居于孟州濟源。唐中和四年（884），裴瓚被朝廷重新起用，被辟為吏部侍郎，主政東洛（今河南洛陽），后又提升為禮部尚書。五月，裴瓚在經由淮河、長江赴成都行在途中來到淮南揚州。

裴瓚是崔致遠在長安進士及第的主考官和恩師，崔致遠對此感恩不盡，時刻不忘，常有書信來往。在《桂苑筆耕集》第十九卷中有《濟源別紙》、《賀除吏部侍郎別紙》、《賀除禮部尚書別紙》等文，對裴瓚表示欽佩，隱者風范表示贊揚，可見他們交往甚密。此次，裴瓚來到揚州，探望并親自“降顧”崔致遠在揚州的“官舍”，這使崔致遠感動不已。崔致遠又寫下了如《迎楚州行李別紙二首》、《五月一日別紙》、《謝降顧狀》等文，描述了在經歷了中和二年（872）的宦海風波以后十分憂雜的心情和對恩師降顧的感激之情。崔致遠又寫下了《奉和座主尚書避難過維揚示絕句三首》組詩：“年年荊棘侵儒苑，處處烟塵猶戰場。豈料今朝覲宣父，豁開凡眼睹文章”、“亂時無事不悲傷，鸞鳳驚飛出帝鄉。應念浴沂諸弟子，每逢春色耿離腸”、“濟川終望拯湮沉，喜捧清詞浣俗襟。惟恨吟歸滄海去，泣珠何計報深恩”。這三首飽含深情的詩，生動地描繪了當時晚唐“鑿駕幸蜀年”的紛亂形勢，贊揚了崔致遠與恩師裴瓚之間的師生情誼。同時，反映了此時此刻的崔致遠，在遭受淮南幕府同僚們的排擠打擊以后決定渡海歸國時的更加憂雜的心情。順便一提，崔致遠歸國后，就以新羅憲康王的名義撰寫了《致禮部尚書裴瓚狀》寄予裴瓚，再次表達了崔致遠的感激之情和師生友情。

3、與同年顧云友好詩

顧云，字垂象，池州石埭人，崔致遠的同年和同事，與崔致遠同登進士第。唐僖宗乾符五年（878），顧云來到潤州，為高駢鎮海軍節度使行營都招討判官，后崔致遠也來到溧水任職，兩地相距不遠，兩人交往頻繁。他們在潤州相會、游覽，崔致遠寫下《登潤州慈和寺上房》詩：“登臨暫隔路歧塵，吟想興旺恨益新。畫角聲中朝暮浪，青山影里古今人。霜摧玉樹花無主，風暖金陵草自春。賴有謝家余境在，長教詩客爽精神”，抒發了思古之情和喜悅的心情。唐僖宗乾符六年，高駢移鎮揚州時，顧云也隨從之。后來崔致遠也入高駢幕府，兩人又開始了同事生涯。

崔致遠在揚州期間，與顧云友誼交往甚密，又同為高駢的從事，他十分珍惜這份情誼。從他的詩作《和顧云友使暮春即事》一首：“東風遮闕百般香，意緒偏饒柳帶長。蘇武書回深塞盡，庄周夢逐落花忙。好凭殘景朝朝醉，難把離心寸寸量。正是浴沂時節日，旧游魂斷白云鄉。”可以看到，暮春時節，邀請顧云和友人雅集，觀賞抒情。崔致

遠還作有《和友人春日游野亭》一詩：“每將詩酒樂平生，況值春深煬帝城。一望便驅无限景，七言能寫此時情。花鋪露錦留連蝶，柳織烟絲惹絆鶯。知己相邀歡醉處，莫羨稽古賽桓榮”。每年的“花鋪露錦留連蝶，柳織烟絲惹絆鶯”的春日，他還邀請顧云和友人游覽野亭，賞景抒情。詩人在詩中以層層鋪墊的手法，敘述心中越來越濃重的思國懷鄉心緒。崔致遠在中秋時節，菊花盛開之時，還與顧云賞菊咏菊抒情，崔致遠作詩《和顧云侍御重陽詠菊》：“紫萼紅葩有万般，凡姿俗態少堪觀。豈如開向三秋節，獨得來供九夕歡。酒泛余香熏座席，目移寒影挂霜欄。只應詩客多惆悵，零落風前不忍看。”-由此可見，崔致遠與顧云的友情不同於一般，同年、同事、好友。

崔致遠離揚州歸國時，顧云寫《贈別詩》兩首，其中有“十二乘船渡海來，文章感動中華國。十八橫行戰詞苑，一箭射破金門策。”和“因風離海上，乘月到人間。徘徊不可住，漠漠又東還”，表達了對崔致遠的深厚感情抒發感慨，依依不捨與崔致遠告別。

4、與晚唐詩人張喬友情詩

晚唐詩人張喬，字松年，池州青陽(今屬安徽)人，唐咸通十一年(870)進士，以詩出名，與許棠等被稱為“咸通十哲”，出身貧寒，崔致遠好友。張喬目睹大唐亂象，名重當時後，罷舉而隱於故鄉之九華山。黃巢起義後，隱居於江淮。

唐中和二年(882)，崔致遠入南高駢幕不久，晚唐詩人杜荀鶴來揚州時適逢張喬，而張喬可能此時就因病居住在淮南一帶的村民家中。因之，崔致遠作詩一首《和張進士喬村居病中見寄》：“一種詩名四海傳，浪仙爭得似松年。不惟騷雅標新格，能把行藏繼古賢。藜杖夜携孤嶼月，葦帘朝卷遠村烟。病來吟寄漳濱句，因付漁翁入郭船”。其“一種詩名四海傳，浪仙爭得似松年”一句，字里行間充滿了對詩人張喬的尊重和欽佩，其進士及第時，曾讓京兆解元與許棠，因此崔致遠稱之為：“不惟騷雅標新格，能把行藏繼古賢”“病來吟寄漳濱句，因付漁翁入郭船”。漁翁傳遞詩句，充滿詩情畫意。可見二人交往之密切，友情之深。

張喬也有詩《孤雲》贊崔致遠：“舒卷因風何所之，碧天孤影勢遲遲。莫言長是無心物，還有隨龍作雨時”。張喬於江淮之間的隱居，也許對日後崔致遠在新羅“見天下之將亂，右宗國之必仁，超然遠去，避世而不返”的做法有所影響吧？

5、與吳巒進士交往詩

吳巒，江南人，生平不詳，崔致遠好友。崔致遠僅存的詩作中就有兩首與吳巒有關的詩篇，可見他們關係不一般。在《送吳進士巒歸江南》詩寫道：“自識君來幾度別，此回相別恨重重。干戈到處方多事，詩酒何時得再逢。遠樹參差江畔路，寒雲零落馬前峰。行行遇景傳新作，莫學嵇康盡放慵”。詩中看到崔致遠與吳巒幾度相別，此次送吳巒歸江南，但詩中卻沒有兒女情長，抒寫離別之情，只有“行行遇景傳新作，莫學嵇康盡放慵”的勉勵和期望。其中，“遠樹參差江畔路，寒雲零落馬前峰”一聯，曾載於李朝許筠的《惺叟詩話》。這也是一首頗見作者功力的七律詩。崔致遠與吳巒有關的第二首詩是收錄《桂苑筆耕集》中的《酬吳巒秀才惜別二絕句》：“榮祿危時未及親，莫嗟岐路暫勞身。今朝遠別無他語，一片心須不愧人”。“殘日塞鴻高的的，暮烟汀樹遠依依。此時回首情何限，天際孤帆破浪飛”。應是崔致遠東歸前寫離別之情的詩，描述了兩友人秋日景致和江邊依依惜別的場景，情景交融。

6、與李展長官交游詩

李展，盱眙地方長官，生平不詳，崔致遠好友。崔致遠在揚州任職期間，足跡踏遍淮南道管轄內各州縣，包括盱眙、楚州、山陽等地，與當地長官甚有交往，留下了不少詩文。

崔致遠兩次去盱眙，寫下了兩首詩。崔致遠第一次去盱眙，冬天天氣寒冷，冰雪天地，他和盱眙長官李展去郊外的鐵山寺游覽，興致勃勃地寫下《和李展長官冬日游山寺》：“暫禪游室思依依，為愛溪山似此稀。勝境唯愁無計住，閑吟不覺有家歸。僧尋泉脉敲冰汲，鶴起松梢擺雪飛。曾接陶公詩酒興，世途名利已忘機。”訴說了游山寺勝

境的感想，懷古抒情。次年秋天，崔致遠第二次經過盱眙，未能與李展謀面，于是就寫詩一首《秋日再經盱眙寄李長官》寄給李展長官，“孤蓬再此接恩輝，吟隊秋風恨有違。門柳已憫新歲叶，猶着去年衣。路迷霄漢愁中老，家隔烟波夢里歸。自笑身如春社燕，畫梁高處又來飛”，自比“孤蓬”寄托了思歸之心情。崔致遠兩到盱眙，兩次寫詩給李展長官，且向李長官訴說衷腸，可見兩人交往之密切。

(二) 抒情詩作

崔致遠的揚州詩賦中也有一些是抒情詩，見景生情，見事生情，抒發心中的憂雜心情。

1、悲慘的《江南女》詩

晚唐揚州，“廣陵為歌鐘之地，富商大賈，動遍百數”。崔致遠身臨其境，却另有一番感受，於是寫下了《江南女》一詩：“江南蕩風俗，養女嬌且伶。性治耻針線，壯成調管弦。所學非稚音，多被春心牽。自謂芳華色，長占艷陽年。却笑那家女，終朝弄机杆。机杆縱勞身，羅衣不到汝”。

這首詩對於燈紅酒綠、歌舞升平的揚州，作了另類的描寫，表現了富家女與貧家女不同的生活狀況、生活態度。詩人對富家女顯然是鄙薄的，而對“弄机杆”的貧家女寄予了真摯的同情，批判了唐代揚州繁華背後掩蓋着的奢靡風氣，也抒寫了當時勞動人民的苦難現實的感情。讀完這首詩，讓我們對這位異國詩人感到分外親切。

2、憂傷的《蜀葵花》詩

崔致遠在揚州為高駢書寫了《檄黃巢書》，天下傳誦，他的才華得到了朝廷和高駢的進一步賞識，因而于中和二年的初夏時節獲得了朝廷的“殿中侍御史、內供奉、賜緋魚袋”的勳銜。“江外一上縣尉，便授內殿憲秩，又兼章綬”是在來自異域他鄉的崔致遠身上，引起了高駢幕府中其他僚佐的“莫名驚詫”。崔致遠的出類拔萃，當然會引起淮南高駢幕府中諸郎官的強烈反對，他們紛紛以“夷不治華”為借口，向高駢提出異議。此時此刻，崔致遠的心境，正象他那首《蜀葵花》“寂寞荒田側，繁花壓柔枝。香經梅雨歇，影帶麥風欹。車馬誰見賞，蜂蝶徒相窺。自慚生地賤，堪恨人棄遺”的詩中所寫的那樣，詩人自比為生長於荒野道邊的蜀葵花，雖然也有“繁花壓柔枝”的繁盛，但始終飽受車馬的踐踏、蜂蝶的騷擾，抒發了自己憤懣、憂傷的心情。中和二年（882）五月，高駢看到這首詩以後，十分惜才，即改任崔致遠為館驛巡官，直到中和四年（884）秋天，離開揚州返回新羅前，崔致遠的職務再也沒有變動過。

3、無奈的《辛丑年寄進士吳瞻》詩

崔致遠在高駢幕府中，目睹唐僖宗信任宦官，指揮失據，諸鎮各霸一方，爭權奪利，高駢心懷鬼胎，擁兵自重，對於大唐國事的不修，憤懣異常。崔致遠寫下一首《辛丑寄進士吳瞻》抒發了他的內心感受：“危時端坐恨非夫，爭奈生逢惡世途。盡愛春鶯言語巧，却嫌秋隼性靈靈。迷津懶問從他笑，直道能行要自愚。壯心起來何處說，俗人相對不如無”。這和他在《謝許歸觀啓》中“唯願暫謀東返，迎侍西來，仰托仁封，永安卑迹”相印證，可以看出崔致遠的沉重心情，苦悶、無奈之余，崔致遠的思鄉情愫便濃烈了起來。

4、海景抒情詩

在崔致遠的筆下，還有吟詠景物以抒寫性情的詩篇。中和四年（884年）冬十月，崔致遠“奉使東泛”，離開揚州，溯

運河北上，沿海“泊舟于大珠山下”候風。詩人漫步海邊，面對寬闊的大海，波濤洶涌，觀賞海景，“嘯月吟風”，以眼前景物為題，將其所見，見景生情，寫下了《石峰》等十首七律海景抒情詩，抒發自己的離開唐朝和揚州的依依不捨、又渴望早日回到家鄉等方面的憂雜心情，寄與高駢員外。其中《石上矮松》寫到：“不材終得老烟霞，澗底何如在海涯。日引暮陰齊島樹，風敲夜子落潮沙。自能盤石根長固，豈恨凌云路尚賒。莫訝低顏無所愧，棟梁堪入晏嬰家”。詩人從眼前所見岩上矮松抒寫自己的感觸，表達了詩人對自己人生道路的思考。與其在天涯漂泊，不如回歸適于生存的“澗底”(即祖國、故鄉)。最後四句意味深長：扎根澗底如盤石般穩固，還抱怨什麼凌云登天之路遙遠呢？出身卑賤也沒有什麼可慚愧的，矮子晏嬰家也需要棟梁之材呢！於是，詩人滿懷豪情壯志，憧憬着回歸祖國建功立業。閑步海邊，崔致遠的筆下又寫了一些吟咏景物、抒寫性情的詩篇，如《東風》、《海邊春望》、《春曉閑望》、《海邊閑步》、《和友人除夕見寄》等寫景抒情詩，並以“春色不應長惱我，看看即醉故園花”的濃郁鄉情回答除夕贈詩給自己的友人：“與君相見且歌吟，莫恨流年挫壯心。幸得東風已迎路，好花時節到鷄林”。

(三) 贈別詩

在離開揚州前和東歸新羅途中，崔致遠寫下了許多抒發與師長、好友之間的依依惜別之情的詩篇。

1、與鄉友話別詩

淮南道轄下的楚州山陽（今江蘇省淮安市楚州區），是唐朝和新羅友好交往的重要口岸，唐政府在楚州設立了新羅館，以接待新羅官方使節及商人叢聚。崔致遠在高駢幕府任職時，常至山陽。離開故國家鄉十幾年之久，這次在異鄉忽然遇到了來自家鄉的“鄉友”倍感親切，可須臾之間又要分離，依依惜別之情油然而生，崔致遠寫下了《山陽與鄉友話別》詩，詩云：“相逢暫樂楚山春，又欲分離淚滿巾。莫怪臨風偏悵望，異鄉難遇故鄉人”。這首與新羅鄉人告別之作，字里行間充滿着離人的鄉愁，濃郁得幾乎讓人窒息。詩人憂雜的心緒可想而知：一句“異鄉難遇故鄉人”，表白了詩人對故國家鄉和親人的無限思念、詩人與“鄉友”相逢的無比興奮與詩人和“鄉友”依依惜別的惆悵。

2、與太尉告別詩

這裏的太尉，指的是淮南節度使高駢。唐末，農民起義不斷，唐朝受到重創，而淮南局勢惡化，高駢信奉道教，不理國事。崔致遠不知唐朝大廈能夠支撐幾許，十分苦悶之余，崔致遠的思鄉情愫便濃烈了起來。於是，寫了一首《歸燕吟獻太尉》詩獻給高駢，詩云：“秋去春來能守信，暖風涼雨飽相語。再依大廈雖知許，久污雕梁却自慚。深避鷹鷂投海島，羨他鴛鴦戲江潭。只將名品齊黃雀，獨讓銜環意未甘”。這首詩以歸燕自寓，避禍思鄉之情溢于言表，耿直而倔強的崔致遠以“久污雕梁却自慚”婉轉地表示了對排擠他的那些“鷹鷂”們的憤怒，期望回到家鄉，得到了高駢的批准，派崔致遠以淮南入新羅國兼送詔書、國信等使的身份出使新羅。唐中和四年秋，崔致遠的堂弟崔栖遠涉海入唐，奉家信迎接崔致遠回國，高駢送給崔致遠兄弟兩行裝錢各二百貫，并用淮南海艦把他們送到海邊。

離開揚州沿運河北上來楚州，崔致遠受到了楚州地方長官張尚書的熱情接待，又收到了高駢派人送來的給崔致遠父母的衣段等禮物，不禁感激涕零，寫下了《行次山陽續蒙太尉寄賜衣段令充歸續壽信物謹以詩謝》詩：“自古雖夸畫錦行，長卿翁子占虛名。既傳國信兼家信，不獨家榮亦國榮。萬里始成歸去計，一心先算却來程。望中遙想深恩處，三朵仙山目畔橫”。崔致遠奉使歸新羅，衣錦還鄉，現在既傳國信，又傳家信，這是一種怎樣的榮耀，充分表現出崔致遠奉使歸國對高駢允許他回國探親并寄送衣段贈給崔致遠父母的感激，表現了崔致遠決心歸國以後，再來淮南為高駢結草銜環、知恩圖報的心願。

3、與女道士留別詩

女道士，姓名、生平不詳，應是揚州的女道士。崔致遠在唐朝、在淮南揚州數年，政局動蕩，滾滾紅塵，宦海浮沉，在官場上碰到的風風雨雨，無可名狀的痛苦和惆悵，只能在与這位女道士的交往中得到一些安慰和排解。正是兩情相悅之時，却不得不“每恨塵中厄宦途，數年深喜識麻姑。臨行爲与真心說，海水何時得盡枯”。詩人把女道士比作“麻姑”，每恨分手告別，其中的離情別緒恐怕真的是“才下眉頭，却上心頭”，寫出了詩人渴望在未來的日子裏和女道士重逢的急切心情，從而以此表達出詩人對女道士的深深愛意。

4、与楊瞻的送別詩

楊瞻，生平不詳。在崔致遠的詩作中有兩首与楊瞻有關的詩篇，應是崔致遠離開揚州回國前的離別詩。其一是《桂苑筆耕集》中的《酬楊瞻秀才送別》“海槎雖定隔年回，衣錦還鄉愧不才。暫別芙蓉含叶落，遠尋蓬萊趁花開。谷鶯遙想高飛去，遠豚寧慚再獻來。好把壯心謀後會，廣陵風月待銜杯”。這裏的“芙蓉”、“廣陵”均指揚州。崔致遠在詩中屢屢和楊瞻相約“海槎雖定隔年回”，本着“同心相應”的親密友誼，祝願好友楊瞻“谷鶯”高飛，并和楊瞻相約“好把壯心謀後會，廣陵風月待銜杯”，有再來之思，然而，終未遂所願

表達了崔致遠對唐代揚州繁榮的美慕和對朋友的依依惜別的深情。臨離開揚州之前，崔致遠又寫了一首意味深長的《酬楊瞻進士送別》詩：“海山遙望曉烟濃，百幅帆張万里風。悲莫悲兮儿女事，不須惆悵別離中”，勸慰好友別離不要過度悲傷，耐心等待它日在重逢。這和他在《謝許歸觀啓》中“唯愿暫謀東返，迎侍西來，仰托仁封，永安卑迹”相印証。

5、与友人《題海門蘭若柳》詩

崔致遠來到海門大珠山海邊，想不到又与友人相逢，剛在廣陵（揚州）城与友人告別又重逢，喜出望外，驚喜万分，寫下了《題海門蘭若柳》：“廣陵城畔別蛾眉，豈料相逢在海涯。只恐觀音菩薩惜，臨行不敢折纖枝”的詩篇，只怕觀音菩薩舍不得，所以，不敢折柳枝送友人來告別。由此，我們更加可以看出崔致遠對唐代揚州繁榮的美慕和對朋友的依依深情。

三、崔致遠的揚州詩作的特色

從崔致遠現存的揚州詩作看，題材有寫人、記事、寫景、抒情和告別詩等，体裁則包括了五絕、七絕、五律、七律等不同的類型。這些詩歌情感豐富，意蘊深長，藝術上情景相融，技法嫻熟，基本具備了唐人詩歌的丰神情韻，唐人顧云就有“十二乘船渡海來，文章感動中華國。十八橫行戰詞苑，一箭射破金門策”之譽。其寫作特色試析如下：

（一）、真實性

崔致遠揚州詩作的真實性是指詩人的真情實感。

1、真誠的思鄉思國之情。

作為一名異國青年(崔致遠返朝鮮時才二十八歲)，詩人對故國的戀念之情是深沉的。崔致遠的詩，真誠的是這種思鄉思國之情。

潮波靜退步登沙，落日山頭簇晚霞。春色不應長惱我，看看卽醉故園花。（《海邊閑步》）

詩人目睹烟波、長沙、落日、晚霞，在春光中追憶故園，卽醉其花中。由景物到聯想，是用一種真誠的思鄉思國

之情來聯結

目極烟波浩渺間，曉烏飛處認鄉關。旅愁從此休凋鬢，行色偏能助破顏。浪蹙沙頭花扑岸，云妝石頂叶籠山。寄言來往鴟夷子，誰把千金解買閑。（《將歸海東嶠山春望》）

詩人欲望穿千里万里烟波去尋找朝鮮半島的故土。看到早晨烏鴉飛旋，以為那該是故鄉所在。這種深厚的情感，是真誠感人的。

2、真實的矛盾心理描寫。

新羅同大唐唇齒相依，熱愛故國的詩人崔致遠，也是願意在中國服務的。因為中國的山河養育了他，文化熏陶了他，中國人厚待他。但對於崔致遠，真算“豈可令外方之士獨見棄遺？”的肯定回答。然而，知遇感恩而不負心，這個中國傳統也為崔致遠所繼承：海內誰怜海外人，問津何處是通津？本求食祿非求利，只為榮親不為身。客路離愁江上雨，故國歸夢日邊春。濟川幸遇恩波廣，愿濯凡纓十載塵。（《陳情上太尉》）濟川終望拯烟沉，喜捧清詞浣俗襟。唯恨吟歸淪海去，泣珠何計報恩深？（《奉和座主尚書避難過維陽籠示絕句三首》之三）

這裡詩人寫道：海外人是想歸故國的，但中國所給的恩情，也是永遠不忘，也當報效的。去與留的矛盾都是真的，都是出自內心的感情。崔致遠抒發了愛新羅與愛大唐的思想情感，和矛盾的情感，這在唐詩中是多有特色的啊！

（二）、藝術性

崔致遠詩的藝術性也頗高，是指寫詩的技巧。

1、崔致遠的詩，詩中有畫，引人入勝；有聲有色，有景有情，值得玩味吟咏。

崔致遠的《登潤州慈和寺上房》就詩韻深沉意境优美、耐人尋味。據《東人詩話》說：“崔文昌侯致遠入唐登第，以文章著名，題潤州慈和寺，有畫角云云之句，后鷄林賈人入唐購詩，有以此句書示者。”崔致遠的《登潤州慈和寺上房》中的“畫角聲中朝暮浪，青山影里古今人”，所以被唐人背誦得牢，被朝鮮商人又買回朝鮮，正是因為它詩意深沉遼遠，韻味雋永。

2、崔致遠的詩，善于刻划抒情主人公的形象。

這種形象不能目睹，但能心悟。它不是描繪外在的客觀形象，而是自其心聲與情感的主觀披露，讓讀者領會它存在的形象。崔致遠詩中的抒情主人公却是詩人自己。

自古雖夸畫錦行，長卿翁子占虛名。既傳國信兼家信，不獨家榮國亦榮。万里始成歸去計，一心先算却來程。望中遙想深恩處，三朵仙山日畔橫。（《行次山陽續家太尉寄賜衣令充歸觀續壽信物謹以詩謝》）在《留別女道士》一詩中，崔致遠刻划的詩人形象更引人深思：每恨塵中厄宦途，數年深喜識麻姑。臨行為與真心悅，海水何時得盡枯？崔致遠別女道士，却很少寫女道士。是否花容月貌？仙風道骨？

均不着一字。反過來寫詩人的別愁。詩的重点在刻划抒情主人公，寫即將別離的詩人。他深感宦海沉浮之可嘆。所以，認識這位道姑，已經“數年”，而且“深喜”，感情是長久深刻的。現在，要回新羅了，青年人告別時說几句知心話，海枯石爛地老天荒的不了情，如何說得盡。這種離別滋味的酸澀苦辣，置詩人于難以控制感情的激動之中。活生生托出一位百感交集的青年詩人形象來。

3、崔致遠的詩，在寫景方面，也是上乘的。

崔致遠東泛時泊舟大珠山下時，嘯月吟風寫下《石峰》、《潮浪》、《沙汀》、《野燒》、《杜鵑》、《海鷗》、《山頂危石》、《石山矮松》、《紅葉樹》、《石山流泉》十首詩，這是他的海景抒情詩的代表作。這十首海景抒情詩，在藝術上有什么特色呢？

首先，在題材上，寫海景在唐詩中是頗新穎的。崔致遠在回國前候風時，又在大珠山下住了一冬，不斷在海邊閒步，觀察、體驗，自然寫出的海景是新鮮而實在的。他寫出了海景的特点——冬季的大海。“日射凝霜鶴步遲”、“石罅根危叶易干……應羨岩松保歲寒”、“吟對寒林却惆悵”，都是季候的反映。崔致遠并不僅是直對萬頃波濤，而且還選取海岸上常見之物來以“海鷗”、“危石”、“矮松”為題材的詩，唐詩中是不多見。這類景物寫入詩，却是新穎而有特色的。

其次，崔致遠的海景詩畫的特色。在描摹上，通過比擬、突出特征、概括勾勒，將詩轉為畫，呈現在讀者眼前。如寫“石峰”，先說“曉岩絕頂”而“摩天”。還把石峰比為“海日初開一朵蓮”，就構成特殊景色。試想一輪紅日躍出海口，直映石峰，金粉輝煌的峭崖，十分秀美。圖畫中有光有色，還有濤聲伴奏，這種特色豈不引人？

第三、崔致遠的海景詩，是情景交融的。它們不是純粹的寫景詩，而是借景抒情、托物言志，景物也常含有寓意，寓意不勉強，含蘊流露得自然。如寫海邊杜鵑花，說它生在石縫里，位置真不好：根外露，叶易干，易遭風霜摧殘，不如野菊、岩松。前者在秋風中斗艷，后者可傲嚴寒。崔致遠寫的是大海邊上的花，她惋惜杜鵑的自生自滅，不能遇到知己或恩人，使它在朱欄中去顯赫了一番。最可怕的還是不識仙芳的樵夫，把杜鵑同枯枝一同砍下當柴燒，減去了明春的美色。這里寓意人才的機遇、地位，和沒有伯樂相識的可悲，其感慨與深情是可以觸摩的。

(三)、詩體的進步性

崔致遠在近體詩學習方面是頗下了一些功力的。這個現象并非偶然，它反映了晚唐文壇的一大趨勢。

1、崔致遠詩的詩體是近體詩。

崔致遠的詩，无一例外都是近體詩，沒有一首古體，格律謹嚴，對仗工整。崔致遠寄給盱眙李展長官的《秋日再經盱眙寄李長官》一詩，詩中的旅人境況并不見佳：“門柳已凋新歲叶，旅人犹着去年衣”，更何況思鄉之情日益深重，但只能在夢里回家，不得已只好再次求助于樂于助人的好朋友。全詩格律嚴謹，對仗工整，現實的窘況和難以啟齒的請求全用比興手法寫出，可見詩人駕馭漢詩寫作的功力。

崔致遠還寫了一首《汴河懷古》詩，通常的懷古詩，往往用比興的藝術手法來間接表現詩人對歷史的反思，而崔致遠寫道：“游子停車試問津，隋堤寂寞沒遺塵”，通過夾叙夾議的方法，在描寫的同時融進議論，把自己對歷史反思得到的判斷和結論直接寫進詩中，從而總結出“人心自屬升平主”、“今古奢華盡敗身”的歷史教訓。這種咏史懷古的寫作手法給後人以很大的啟發。

2、崔致遠的詩有高度的概括力。可以把普通的情感集中起來，引起人共鳴。

他的詩作用事引典恰到好處、語言錘煉精到，例如：“客路离愁江上雨”——這是常見的景象和常有的感情。身在旅途而愁緒滿懷，又逢陰雨與水阻，增加了愁腸。這就頗有代表性。

“亂時无事不悲傷”——對於顛沛流離在戰亂中的老百姓來說，千萬年均如此。這句平淡的話，却是高度的概括。

“石壁戰聲飛霹靂，云峰倒影撼芙蓉”——凡在海邊觀察驚濤拍打崖壁的人都有這種感受，但崔致遠能將這種感受繪聲繪色地概括出來。“殘日塞鴻高的的，暮烟汀樹遠依依。此時回首情何限，天際孤帆翠浪飛”(《酬吳巒秀才惜別》之二)——集中殘日、塞鴻、暮烟、汀樹、孤帆寫离情，用“的的”、“依依”的疊字來襯托情絲，詩就精辟而能概括所有离人的共同感情了。

最后，我們可以用崔致遠的《和張進士喬村居病中見寄》詩句：“一种詩名四海傳，浪仙爭得似松年。不惟騷雅標新格，能把行藏繼古賢。”來對崔致遠揚州詩抄的贊揚和敬佩。崔致遠的揚州詩抄，在他的留存詩篇中占了不少，其題材广泛，內容真實，詩体近代，有寫景記人，也有記事抒情，十分感人，技巧較好，具有較高的藝術性，值得我們學習和借鑒。

《參考文獻》

- 1.《桂苑筆耕集》 崔致遠著
- 2.《孤云先生文集》 崔濬玉編
- 3.《全唐詩補編》 陳尚君編
- 4.《三國史記》
- 5.《崔致遠詩集》
- 6.《崔致遠思想和作品研究》 方曉偉著

최치원 양저우에서의 시작(詩作) 분석(요약본)

중국 양저우 최치원 기념관 등쉬어판

최치원은 신라시대 가장 유명한 문학 작가로서 양주에 머무르면서 수많은 한시를 남겼다.

1. 최치원 양주에서의 시작품들

당나라때 양주는 동남 지역의 중요한 도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 도시로서 예술 활동이 활발하고 많은 문인들이 모여드는 곳이었다. 당나라때 양주는 신라와 직통하는 해상 항로를 가지고 있었으며 신라와의 무역왕래, 그리고 문화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다.

당희종광명원년(唐僖宗廣明元年:880)에 최치원은 회남절도사(淮南節度使) 고병(高駘)의 막부로 들어오게 됨에 따라 양주에 가게 되었다. 그리고 서기(書記), 도통순관(都統巡官), 관역순관(館驛巡官) 등 관직을 역임하였다.중화4년(中和四年:884) 최치원은‘회남입신라겸송국신등사(淮南入新羅兼送國信等使)’의 신분으로 양주를 떠나 귀국하였다.

이듬해 신라에 들어간 최치원은 양주에 머무른 동안 지은 막부 문한(文翰)과 공적이나 사적으로 창작된 작품들을 모아 『계원필경집(桂苑筆耕集)』으로 엮어 신라 헌강왕께 올렸다. 그 중에는 시가 60수나 수록

되었다. 고종에 따라 이 책에 수록되지 않고, 한중 각종 문헌에 산견되는 시는 무려 67수나 되는데 그 중에서 양주에서 창작된 작품은 수십편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최치원 양주 시작품 분석

최치원이 양주에서 창작한 시들은 그의 양주에서의 실생활을 생생히 반영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특별한 사연이나 인물을 다루는 시작품들

(1) 지우지은(知遇之恩)을 베푼어준 고병(高駘)과의 만남을 다루는 시. 고병은 최치원에게 지우지은을 베푼어준사람이다. 『칠언기덕시30수근헌사도상공(七言記德詩三十首謹獻司徒相公)』 시작품들과 『진정상태위시(陳情上太尉詩)』는 고병에게 찾아갈 때 함께 올린 기덕시와 감사시들이다.고병의 공덕을 기리는 내용, ‘강을 건너는데 다행히 넓은 은혜의 물결을 만난(濟川幸遇恩波廣)’다는 시구처럼 고병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2) 좌주(座主) 배찬(裴贖)과의 사제의 정을 다루는 시. 배찬은 최치원의 주임 시험관이었다. 당중화4년

(唐中和四年:884) 배찬이 회남 양주에 왔을 때, 최치원은 깊은 감정이 담긴 필치로 배찬과의 사제정을 생생하게 그려낸 『봉화좌주상서피난과유양총시절구3수(奉和座主尙書避難過維揚寵示絕句3首)』를 지었다.

(3) 동년생 친구 고운(顧云)과의 우정을 다루는 시. 최치원은 「등윤주자화사상방(登潤州慈和寺上房)」이란 시문을 남길 정도로 고운(顧云)과의 교제가 아주 잦았다. 나중에 고운과 동료가 되고나니 더욱더 친하게 지냈다. 「화고운우사모춘즉사(和顧云友使暮春卽事)」 「화우인춘일유야정(和友人春日遊野亭)」 「화고운시어중양영국(和顧云侍御重陽詠菊)」 등 작품을 남기는 등 늦봄이나 중앙절에 고운이나 다른 친구와 함께 봄소풍을 간다는가 국화꽃을 보고 시를 읊는다든가 술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곤 했다.

(4) 만당시인 장교(張喬)와의 우정을 다루는 시. 최치원이 회남 고병의 막부에서 일할 때, 마침 장교가 건강 때문에 회남 일대의 농가에서 지내고 있었다. 최치원은 「화장진사교촌거병중견기(和張進士喬村居病中見寄)」란 시를 지어 시인 장교에 대한 존경과 탄복을 표현했다.

(5) 진사 오만과의 교제를 다루는 시. 최치원이 남긴 한시 가운데 오만(吳巒)과 관련된 시만으로도 두 편이나 있다. 한편은 「송오진사만귀강남(送吳進士巒歸江南)」이고, 다른 한편은 「수오만수제석별2절구(酬吳巒 秀才惜別2絕句)」인데 두 사람이 아쉬워하며 이별하는 장면을 그려냈다.

(6) 이진(李展)이라는 지방장관과의 교유를 다루는 시. 이진은 쉬이(盱眙)의 지방장관이었다. 최치원은 두 차례를 거쳐 쉬이를 찾아간 적 있었다. 그것과 관련하여 시 두 편을 지었는데, 그 중의 한 편인 「화이진장관동일유산사(和李展長官冬日游山寺)」는 최치원이 처음 쉬이에 갔을 때 쓴 작품으로 어느 겨울 눈오는 날에 이진과 함께 교외의 철산사 절경을 유람할 때의 소감을 표현했다. 이듬해 가을에 최치원이 두 번째 쉬이에 갔는데 서로 만나지 못한 아쉬움에 「추일재경쉬이이장관(秋日再經盱眙寄李長官)」이란 시를 지어 그림고 돌아가고 싶다는 심정을 기탁하였다.

2) 서정시 작품

(1) 비참한 강남아가씨를 다루는 「강남녀(江南女)」시작. 당 말기의 양저우에는 사람들이 주색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살고 가무로 태평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이러 환경에 살고 있는 최치원은 생각이 달랐다. 「강남녀(江南女)」란 시를 지어 그가 보이는 양저우의 다른 면에 대해서 묘사하였다. 부자집 딸과 전혀 다른 가난한 집의 딸의 생활 형편을 그려냄으로써 ‘베만 짜는’가난한 집 딸에 대한 깊은 동정심을 나타냈다.

(2) 우울한 「축규화(蜀葵花)」시. 최치원이 양저우에서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 내공봉(內供奉), 사비어대(賜緋魚袋)’등 직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고병 막부 중의 다른 요좌들이 놀라면서 잇따라 고병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최치원은 「축규화」라는 제목으로 시를 지었다. 이 시에서는 그는 자신을 황야 길가에 자라는 축규꽃으로 비유하였다. 비록 ‘여린 가지가 늘릴 만큼 꽃이 만개한(繁花壓柔枝)’번성한 상황도 있었으나 결국 수레와 말에 밟히고 별과 나비의 방해로 참아야 할 신세에 벗어나지 못한다는 내용을 통해 분하고 답답하여 우울한 심정을 나타냈다.

(3) 어쩔수 없는 「신추년기진사오침(辛丑年寄進士吳瞻)」. 역시 외지인인 진사 오침은 최치원의 친한 친구였다. 최치원은 고병의 막부에서 근무하면서 당나라의 지방 번진(藩鎮)들이 지역의 패자가 되어 서로 권력과 이익을 위해 다투는 상황 속에 고병도 탄 마음을 품고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군대를 키우는 것을 보고 마음이 무겁고 울적했다. 이러한 감정은 「신추년기진사오침(辛丑年寄進士吳瞻)」을 통해 잘 전달되었다.

(4) 바다 경치를 그려낸 시. 귀국 도중 최치원은 대주산(大珠山) 아래의 바다 경치를 보고 「석봉(石峰)」등 시 10수나 지어 고병에게 보냈다. 이러한 시들을 통해 당나라와 양저우를 떠나는 것이 섭섭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심정, 그리고 인생에 대한 자신의 생각 등을 나타냈다.

3) 증별시

(1) 고향친구와의 작별. 최치원이 초주(楚州) 산양(山陽)에 갔는데 의외로 고향친구를 만났다. 고향을 떠나 십여년 만에 만나니 더더욱 반가울 수 없는데, 금방 또 헤어져야 하니 섭섭한 정은 금할 수 없다. 신라에서 온 고향친구와 작별하는 내용을 담은 「산양여향우화별(山陽與鄕友話別)」을 지었는데 행간마다 향수 정서가 짙게 드러난다.

(2) 태위와의 작별. 당말기에는 회남 내지 전국의 정세가 더욱 악화되었다. 이에 대해 몹시 고민한 최치원은 자기자신을 제비(歸燕)로 비유하여 고향도 그림고 난리도 피할 겸 나라에 돌아가고 싶다는 내용이 담긴 「귀연음헌태위(歸燕吟獻太尉)」를 지어 고병에 올렸다. 그리하여 고병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귀국하는 도중에 고병이 보낸 사람을 통해 부모님에게 줄 옷감 등 고병의 선물을받아 「행차산양속몽태위기사(行次山陽續蒙太尉寄賜衣段令充歸續壽信物謹以詩謝)」란 시를 지어 사신 신분으로 귀국한다는 것에 매우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는 심정을 전달하였으며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을 나타냈다.

(3) 여도사와의유별시. 이 여도사는 양주의 여도사였을 것이다. 귀국하기 전에 최치원은 「유별여도사(留別女道士)」를 지어 앞으로 여도사와 다시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 여도사에 대한 깊은 사모의 감정을 나타냈다.

(4) 양첨(楊瞻)과의 송별시. 최치원 시 작품 중에서 양첨과 관련된 작품으로는 두 편이 있다. 헤어진다고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고 다시 만날 생각을 가지고 천천히 기다리라는 내용이었다.

(5) 친구와의 만남과 헤어짐을 이야기하는 「제해문란약류(題海門蘭若柳)」시. 최치원은 양저우에서 ‘아미(峨眉)’라는 친구와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해문에서 만났다. 뜻밖의 만남에 반가운 그는 「제해문란약류(題海門蘭若柳)」란 시를 지어 재회에 대한 감탄을 나타냈다. 관음보살이 아까워할 것 같아서 감히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친구에게 줄 수 없었다는 내용을 통해 최치원이 당나라 양저우에 대한 미련, 그리고 친구와 이별하기 섭섭함을 보다 더 잘 전달할 수 있었다.

3. 최치원 양저우 시작의 특징

현존된 최치원 양저우 시작들을 종합해 보면, 제재에 있어 인물, 일, 경치, 서정, 작별 등이 두루 포함되었고, 장르에 있어, 오절, 칠절, 오율, 칠율 등이 망라되었다. 그 시 작품들은 감정이 풍부하고 의미심장하여 예술성이 뛰어나 기법이 능숙하다. 그 당시 당나라 시인들의 시가(詩歌) 작품에 풍기는 운치도 두루 갖춰졌다고 볼 수 있다. 이 작품들의 특징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사실성. 최치원 양저우 시작품의 진실성이란 시인의 진지한 감정을 말한다.

(1) 고향, 나라가 그리운 정. 다른 나라에서 온 젊은이로서 시인이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아주 깊고 두텁다. 「해변한보(海邊閑步)」 「장귀해동참산춘망(將歸海東嶠山春望)」 등을 통해 표현된 이런 감정이 아주 진지하고 감동적이었다.

(2) 고민하는 심리에 대한 묘사가 진실함. 시인은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조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당나라 음식을 먹고 자란 그는 당나라의 문화에 길들여지고 당나라의 사람이 잘해 준 이상, 당나라에서 일하는 것도 싫지 않았다. 떠나느냐 계속머무르느냐의 갈등은 「진정상태위(陳情上太尉)」,

「봉화좌주상서피난과유양총시절구3수(奉和座主尙書避難過維陽寵示絕句三首)」에서 사실적으로 그려졌다. 이는 당시에도 아주 독특한 것이다.

2) 예술성. 최치원 시 작품의 예술성이 아주 뛰어나다는 것이 시를 쓰는 기법을 말한다.

(1) 최치원의 시에는 그림이 있어 아주 생생하고, 감정이 넘쳐 아주 매력적이다.

(2) 최치원의 시는 화자의 서정적 이미지를 그려내는 데 성공했다.

(3) 최치원의 시는 아름다운 경치를 묘사하는 데도 아주 뛰어난 편이다.

바다 경치를 묘사하는 「석봉(石峰)」은 그의 서정시의 대표작이다. 그 예술특성은 몇 가지 있다. 우선 체제에 있어, 바다 경치를 다루는 것이 당시에도 새롭고 독특한 것이다. 그 다음에는 최치원의 해경시는 한 폭의 그림같다는 점이다. 셋째, 경치와 감정을 서로 조화롭게 결합시킨 것도 특징이다.

3) 시체의 진보성. 최치원은 근체시(近体詩) 공부에 공들였다. 이는 만당 문단의 추세를 반영하기도 하였다.

(1) 시체. 최치원의 시는 한 수도 예외없이 모두 근체시였다. 단 한편의 고체시(古体)도 없다. 그의 시는 모두 격율이 엄격하여 대구가 짜임새가 있다. 이는 시인의 한시 창작 능력이 아주 뛰어남을 말해준다.

(2) 귀납력이 뛰어남. 전고가 꼭 들어맞으며 잘 다듬어진 표현이 아주 간결하다.

마지막으로 최치원의 「화장진사교촌거병중견기(和張進士喬村居病中見寄)」에 나온 시구로 그의 양저우 시 작품에 대한 찬양과 탄복을 표현하고자 한다. “시명으로 사해까지 이름을 알릴 수 있는데, 량선도 송년처럼 이름을 널리 알렸지. 고정된 틀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표현 형식을 추구하는 것이 정말로 성현보다 멋진 일이라 하겠네.”(一種詩名四海傳，浪仙爭得似松年。不惟騷雅標新格，能把行藏繼古賢。)

최치원이 양저우에서 창작한 시 작품들은 그가 남긴 시 작품 중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작품들은 체제에 있어 그 범위가 넓고 내용에 있어 생생하고 진지하다. 근대 시체로 써진 그의 시 작품들은 경치를 묘사한다든가, 인물을 다룬다든가, 이야기를 기술한다든가, 감정을 표현한다든가 모두 감동을 주는 뛰어난 작품들이다. 그 능숙한 기법과 뛰어난 예술성은 후세 사람들이 본받고 배워야 하는 것이다.

唐代 韓中 文人의 교류에 관한 연구*

- 東國文宗 崔致遠을 중심으로-

박 병 선**

< 目 次 >

1. 서론
 2. 唐代 동아시아의 문학 환경
 3. 晚唐 文인과 崔致遠의 교류
 - 3.1. 官僚
 - 3.2. 幕僚
 - 3.3. 詩友
 4. 결어
-

1. 서론

中國에서 연원하는 漢字는 三國시대 한반도에 그리고 다시 일본으로 전해졌다. 동아시아를 漢字文化圈이라고 일컫는 바와 같이, 동아시아의 중심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漢字를 주요한 기록의 도구로 삼아 文化와 文學을 발전시켜 왔다. 우리의 경우, 삼국통일 전쟁을 비롯한 내외의환으로 인하여 소중한 문화유산 대부분이 인멸된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하지만 〈箜篌引〉과 〈黃鳥歌〉를 비롯하여 乙支文德 強首 薛聰의 시문, 그리고 고구려의 好太王碑를 비롯한 신라 진흥왕 순수비 등의 金石文 기록을 통해서 삼국시대에 이미 수준 높은 한자문화를 발달시켜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삼국 통일이후 신라는 唐과 활발한 교류를 전개하는데, 그 중심에 遣唐使와 遣唐留學生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통일신라를 대표하는 문인으로는 崔致遠과 그의 문인인 崔愼之(彦擿) 崔承祐 등 이른바 ‘三崔’를 꼽을 수 있다. ‘三崔’는 비록 통일신라 말기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으로 인하여 각기 정치적인 진로를 달리했지만,⁴⁵⁾ 국내외 명성은 물론 한문학의 정립에 공헌한 인물이다.

‘三崔가’ 살았던 8-9C는 동아시아에서 공동어문학이 형성되던 시기로서, 崔致遠은 동아시아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02-A00119)

** 군산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교수

45) 崔致遠은 裴瓚 하에서, 愼之는 薛廷珪계, 밑에서, 承祐는 湯涉 하에서 각각 급제하여 唐 官吏와 특수한 관계를 맺은 듯하다. 唐에서 과거제도에 의하여 자기의 능력에 따라 관리에 등용된 이들은 慶州 崔氏 계열로서 신라의 骨品制度를 비판한 反新羅의 인물이다. 承祐는 甄萱을 위한 檄文을, 愼之는 高麗에 참여하였으며, 그 계열인 崔承老까지 이어진다. 崔致遠의 時務策 역시 골품제도의 개선과 과거를 통한 人才登用이 요점이라고 할 수 있다. 김중렬, 『최치원문학연구』(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18쪽.

공동어문학의 수준을 가장 성공적으로 제시한 신라의 지식인이다.⁴⁶⁾ 東國文宗으로 추앙되는 최치원은 名文〈黃巢檄文〉저술함으로써 중국에서 文名을 떨쳤다. 같은 시기 간행된 일본 大江維時의 『千載佳句』에도 그의 시구⁴⁷⁾가 수록된 바와 같이, 그의 동아시아에서 문학적 명성과 지위는 견고하다. 더욱이 그의 『千載佳句』〈桂苑筆集〉과 상당량의 시문은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으로서 그 문학사적 가치 이외에도 羅唐 양국의 관계사는 물론 唐代의 말기적 상황을 살펴 볼 수 있는 소중한 역사자료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⁴⁸⁾

본고에서는 8-9C 唐朝를 중심으로 전개된 동아시아의 문학 환경을 개괄하고, 韓·中·日 삼국에서 文名을 떨쳤던 신라를 대표하는 崔致遠과 晚唐 문인과의 교류 정황 및 상호 영향 관계 등을 살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晚唐시기 統一新羅의 唐朝와의 문화 교류의 양상을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唐代 동아시아의 문학 환경

唐朝는 618년 통일제국을 이루고 국제질서를 재편하였다. 唐朝는 문화면에서 불교와 서양 아랍문화를 수용하여 새로운 양상을 이룩했고, 문화의 확산을 통하여 공동어문학의 세계를 구축하였다. 賓貢科를 통해 신라 발해 일본 월남의 인재들을 수용한 것은 그 상징적인 시책의 하나이다.⁴⁹⁾ 즉, 唐朝는 동아시아 각국의 인재들 유학생으로 유치하여 漢文學을 전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동아시아 공동어문학의 시대를 전개했다. 아울러 정치를 비롯하여 경제 문화면에서 고도의 발전을 이룩했던 唐朝는 詩 賦 散文 등의 상호 보완을 통해 새롭게 창조함으로써 빈번한 교류를 전개하던 동아시아권으로 唐의 문화풍조를 급속하게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안록산의 난’ 이후 제국의 위용이 급전직하는 晚唐은 환관의 전횡, 관료의 파벌, 민중의 반란 등 혼란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하여 駢儷文과 唯美主義 詩風이 만연하던 시기이다.⁵⁰⁾

新羅는 선덕왕 9년(640)처음 唐에 유학생을 처음 파견하고, 성덕왕 27년(728) 자제를 唐의 國子監에 입학시켰으며, 헌덕왕 13년(821) 金雲卿이 숙위학생 가운데 최초로 賓貢科에 합격한다. 회강왕 2년(837)에는 건당유학생이 216명에 달했다.⁵¹⁾ 唐末까지 빈공 급제자는 58명, 五代梁唐간에 32명이 급제했다. 7C말 신라는 三國統一 과정에서 빈번하게 외교문서를 보내면서 漢文學을 활용했고, 8C까지는 승려 元曉 圓測 義湘 慧超 등이 한문학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9C 이르러 유학생들이 주류를 이루어 수준 높은 한문학을 이룩했다. 더욱이 최치원은 이러한 전통을 이어 서정과 사상의 깊이를 지닌 한문학의 세계를 열었다.⁵²⁾

일본은 舒明天王 2년(630) 처음 견당사를 파견하고, 寬平 6년(894)까지 264년 동안 20차례에 걸쳐 견당사를 파견했다. 이같은 활발한 교류와 함께 직수입된 唐朝의 문화가 일본문화를 고양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藤原佐世의 『日本國見在書目錄』에 의하면, 헤이안(平安) 시대에는 중국의 經傳과 유명 시인의 문집 대부분이 유입되었다. 더욱이 문집하면 白氏文集을 일컬을 정도로 白居易의 시가 널리 유행했으며, 작시와 작문의 모범으로 삼았을 정도였다. 헤이안 시대에 당조에 유학한 승려 가운데 圓仁과 空海(弘法

大師)는 두드러지는 문학성적을 나타냈다. 圓仁은 일본 5대 기행서로 일컬어지는 『入唐求法巡禮行記』를 저술하여 일본 한문학의 수준을 제고했다. 8C초 眞言宗의 개조 空海는 문학사적 가치가 높은

46) 심경호, <최치원과 동아시아 문학> (『고운학보』, 2003 창간호) 42쪽.

47) 崔致遠 보다 31년 늦게 태어난 일본 한문학의 家闈인 大江維時(883-963)가 편찬한 『千載佳句』에 孤雲의 聯句 9聯이 수록되어 있다. 즉, 동시대에 최치원의 작품이 일본에 소개된 것으로서 일본문학에 미친 영향마저 논의가 가능하다.

48) 김중렬, <고운학회 창간사> (『고운학보』, 2003 창간호) 3쪽.

49)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1(지식산업사, 1999) 240쪽.

50) 심경호, <최치원과 동아시아 문학> . 51쪽

51) 유학생의 증가에 따라 당조는 재정적인 이유로 강제 귀국시켰고, 신라 역시 숙위학생 중 만기자의 방환을 요청했다. 『삼국사기』 卷11, 崔致遠의 <奏宿衛學生還蕃狀> .

52) 심경호, <최치원과 동아시아 문학> , 46-49쪽.

『文鏡秘府論』과 『篆隸萬象名義』 등의 명저를 저술했다. 『文鏡秘府論』은 六朝에서 唐에 이르는 시문의 음운 관련 서적을 분류하여 律詩의 규칙을 논한 것이며, 『篆隸萬象名義』는 梁 顧野王之 『玉篇』을 발췌한 것으로 망실된 『玉篇』의 보완 자료이자 일본 최고의 사서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의 『遍照發揮性靈集』의 경우, 그의 박학다식과 문장의 실용성은 돋보이지만 문학적 성과는 높지 않다. 하지만 9C말 和歌 和文의 발달과 더불어 한문학이 쇠퇴함으로써 羅末麗初 한문학의 발달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渤海는 唐朝에 유학생을 파견하고 일본과도 활발한 교류를 전개했다. 唐이 海東盛國이라고 일컬었을 뿐만 아니라 875년 烏炤도가 賓貢學에 장원급제했던 바와 같이, 수준 높은 한문학을 이루었다. 당에 보낸 〈賀正表〉, 일본에 보낸 국서, 〈貞惠公主墓碑〉와 〈貞曉公主墓碑〉 등의 문서는 모두 駢儷文의 문장이다. 한시의 경우, 형식상 칠언절구와 오언율시가 대부분이다.⁵³⁾ 더욱이 사신으로 일본에 파견된 楊泰師의 〈夜聽擣衣聲〉은 특이한 형식의 장편고시로서 문학성이 돋보인다.⁵⁴⁾

晩唐時期 동아시아 공동어문학의 형성과정에서 우리는 羅末麗初에 한시문학의 일원화 과정을 거치는데, 견당유학생들이 그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신라시대에 있어서는 향가(사뇌가)와 한시가 다른 영역을 유지하여 온 이원적 흐름을 지켜왔으나, 이러한 현실은 고려로 넘어오면서 일원적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것은 신라말에 있어서 견당유학생이었던 지식인들이 새로 일어나는 고려왕조에 갈등없이 합류하면서 이루어지는 현실로 보아야 하며, 그것은 자국문학과 타국문학이라는 편협한 생각이 아니라 동양사회라고 하는 국제성에 의하여 남도 알고 나도 남에게 알리려는 보다 폭넓은 안목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⁵⁵⁾

한시문학의 일원화 과정에서 최치원은 8-9C 동아시아에서 공동어문학이 형성되던 시기 신라 출신 지식인이 이룩한 공동어문학의 수준을 가장 성공적으로 제시한 지식인이다. 그는 비록 한국 한문학의 開祖로서 시 부 산문의 다양한 형식은 물론 抒情文學의 문학성취를 통해 漢文學 교류의 중심이자 民族文學을 동아시아 공동어문학의 높은 수준으로 이끈 중심적 인물이라는 의의를 지닌다.⁵⁶⁾

陳尙君은 최치원을 李商隱 劉鄴과 함께 晩唐時期 대표적 軍幕作家로 꼽았으며, 최치원이 晩唐文人과의 교류와 그 성과를 감안하면 중국문학 즉, 한문학 전래와 양국의 지식 교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崔致遠은 唐代 軍幕文學의 중요한 작가이다. 현존하는 中·晩唐 문인의 문집 가운데, 비교적 막부의 작품을 많이 보존한 문인은 李商隱·劉鄴과 崔致遠 3인이다. 李商隱의 문집은 일찍이 산실되어 다시 편집한 것이며, 劉鄴의 『甘棠集』 중담하는 문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가치가 높지 않지만, 오직 崔致遠의 『桂苑筆耕集』만이 작가가 편찬한 것이며, 또한 晩唐의 중대 사건을 섭렵하여 문인들의 군막 창작의 정황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있다.(崔致遠是唐代軍幕文學的重要作者。現存中晩唐人文集中, 保存幕府作品較多之有李商隱·劉鄴和崔致遠三家, 李商隱文集迭經散逸重輯, 已非初貌, 劉鄴『甘棠集』以方鎮應酬性文字居多, 價值不高, 只有崔致遠『桂苑筆耕集』既是作者原編, 又涉晩唐重大事件, 能眞實反映文人軍幕寫作的狀況.)⁵⁷⁾

崔致遠은 晩唐 幕府文學의 중요 작가로서, 그의 『桂苑筆耕集』막부의 진실한 정황을 담아내고 있는 유일한 문집이다. 즉, 최치원은 만당 작가와의 교류를 통해 한국 중세문학의 기초를 세웠으며, 古文運動 이후

53) 일본에 사신으로 간 인물이 연회석에서 지은 11편과 貞素의 輓詩 1수 등이 전한다.(심경호, 65쪽)

54) 심경호, 〈최치원과 동아시아 문학〉, 46-66쪽 참조.

55) 이혜순, 『우리 한문학사의 새로운 조명』(김문당, 1999. 3) 85쪽.

56) 심경호, 〈최치원과 동아시아 문학〉, 42-43쪽 참조.

57) 陳尙君, 〈崔致遠在中國文學發展中的地位〉(中韓崔致遠學術研討會 『論文摘要』, 中國 揚州 2001. 10), 權錫煥, 〈韓·中中世知識疏通1之研究〉-以崔致遠的空間認識爲中心-, (『중국문학연구』, 한국중문학회, 2002.) 269쪽 재인용.

변혁의 와중에서도 賦와 駢文의 다양한 형식과 높은 성취를 이루었고, 영물시는 물론 서정성 높은 우수한 작품을 창작했다. 이처럼 최치원은 중국문학은 물론 한중 양국의 지식교류의 발전에 거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물론 양국의 문화 교류에 미친 영향도 크다. 더욱이 공동어문학이 형성되던 시기에 한시문학의 확산과 정립에 공헌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중일 한자문화권에서의 문화 교류와 소통에도 크게 기여했다.⁵⁸⁾

3. 晚唐 文人과 崔致遠의 교류

최치원은 12세(868, 당 의종 함통 9년, 신라 경문왕 8년)에 입당하여, 당 중화 4년(884) 8-9월 양주를 출발하여 이듬 해인 헌강왕 11년(885년 3월) 귀국할 때까지 당에서 활동하며 폭넓은 교류를 전개하며 두드러지는 문학성적을 거두었다. 그는 18세(874년, 唐 僖宗 乾符 元年) 빈공진사 급제⁵⁹⁾ 이후 溧水縣尉, 高駢 蓮府에서의 막료 등 唐에서 체류한 16년 동안 晚唐의 지식인 35명과 교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⁶⁰⁾ 이들은 신분에 따라 관료 문우 막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치원과 교류한 주요 인물은 10여명 정도이다. 관료로는 裴瓚, 李蔚, 于慎微, 李展, 幕僚로는 高駢 顧雲 張喬 梁瞻, 吳巒, 詩友로는 羅隱과 杜荀鶴 등을 들 수 있다.

3.1. 官僚

최치원은 12세(868, 당 의종 함통 9년, 신라 경문왕 8년)에 입당하여 唐 중화 4년(884) 8-9월 양주를 출발하여 귀국길에 오를 때까지 약 16년 동안 중국에서 체류하였다. 그는 주로 장안, 율수현, 양주 등지에 머물며 명망있는 관료들과 교류하였는데, 그 중심적인 인물로는 裴瓚, 李蔚, 李展, 于慎微 등이 있다.

3.1.1. 裴瓚

裴瓚은 字가 公器이며, 최치원 재당시기의 인생행로에 깊은 영향을 미친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이다. 최치원은 재당 수학 6년만인 건부 원년(874) 賓貢舉에 급제하는데, 당시 과거를 주관한 이가 바로 禮部侍郎 裴瓚이다.

최치원은 裴瓚을 恩門⁶¹⁾으로, 배裴瓚과 자신을 “座主와 門生”의 관계로, 호남에서 난세를 만나 도품을 향유하는 산중재상으로⁶²⁾ 일컫는 바와 같이, 존경과 믿음을 바탕으로 진심어린 교분을 나누었다. 그의 문집에는 裴瓚과 관련된 〈與禮部裴尙書瓚狀〉과 〈禮部裴瓚尙書二首〉(『桂苑筆耕集』卷7) 등의 문장⁶³⁾과, 증답시 〈奉和座主尙書遊難過雜陽龍示絕句三首〉(『桂苑筆耕集』卷20)가 전한다.

58) 權錫煥, 〈韓·中中世知識疏通1之研究〉 269-270쪽 참조.

59) 그는 귀인택, 고운, 유승망, 하후택, 장서 등 32인과 함께 등과하였다.

60) 方曉偉는 〈崔致遠交流考〉에서 최치원이 교류한 인물로 高駢, 裴瓚, 顧雲, 杜荀鶴, 羅隱, 張喬, 李福, 李瑄, 高彥休, 鄭俶, 諸葛殷, 薛礪, 許權, 邵宗, 王槩, 威滄, 宋絢, 元郎中, 高秘書, 駱潛, 高繁, 張雄, 張翱, 楊瞻, 吳巒, 嶠山清上人, 吳瞻, 李展, 田仁義, 于慎微, 李員外, 裴僚, 裴拙庶子, 女道士 등 35명의 인물을 예시하였다. 方曉偉는 〈崔致遠交流考〉, 權錫煥, 〈韓·中中世知識疏通1之研究〉 269쪽 재인용.

61) 『桂苑筆耕集』卷18, 〈與恩門裴秀才求事啟〉.

62) 『桂苑筆耕集』卷7, 〈禮部裴瓚尙書二首〉其一: “情疏宦路, 性悅道風”
『桂苑筆耕集』卷19, 〈上座主尙書別紙〉; “欲作山中宰相”, 希望借隱居 “高揚素節, 夙避危時.”

63) 배찬과의 교류를 파악할 수 있는 작품으로는 〈禮部裴瓚尙書二首〉(『桂苑筆耕集』卷7), 〈前湖南觀察推官裴瓚瞭啟〉 〈與恩門裴秀才求事啟〉(『桂苑筆耕集』卷18), 〈上座主尙書別紙〉 〈賀除吏部侍郎別紙〉 〈謝降顧狀〉 〈迎楚州行李別紙〉(『桂苑筆耕集』卷19), 〈桂苑筆耕集』卷19 〈迎楚州行李別紙〉 등이 있다.

裴瓚을 “座主”와 “恩門”으로 표현한 그는 귀국시까지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빈공거 급제 이후, 같은 해 7월(건부 원년, 874)裴瓚이 담주자사 겸 호남관찰사로 부임하자, 최치원은 같은 해 겨울 東都를 유람한다. 건부 3년(876) 겨울에는 담주로 가서裴瓚을 방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재종제인 호남관찰주관裴瞭와도 교분을 맺었다. 또한 그가 溧水尉에 임용된 것도 배찬의 천거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호남관찰사의 임기 마친裴瓚이 吏部侍郎으로 부임하던 길에 양양에서 도로가 막혀 곤경에 처하자⁶⁴, 배요는 淮南 幕府의 최치원에게 구원을 요청한다. 최치원은 회남절도사 高駢에게 청하여 가산을 탕진하고 강남을 떠돌던裴瞭 가족의 안정을 도모하고, 다시裴瞭를 양양으로 보내裴瓚을 영접하도록 주선하였다.⁶⁵

최치원의 도움으로 난세의 곤경을 극복한裴瓚은 부임 길에 몸소 양주의 최치원 거처를 방문하기도 했다. 또한裴瓚은 楚州에 당도한 이후, 관리를 파견하여 최치원에게 안부를 전하였고, 최치원 역시 별지로서 안부를 전함은 물론 직접 초주에 가서裴瓚을 알현하였다⁶⁶.裴瓚이 자신의 거처를 방문한 감격을 최치원은 《謝降顧狀》에서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상서께서 지역 사람임을 헤아려 홀로 섰음을 살피시며 굽어 본디 어여뻐 여기시어 언제나 따뜻한 얼굴로 대해 주시고 말만 하면 즉석에서 들어 주시어 뼈에 새기고 살에 새길 정성을 머무르게 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삼천궁의 선가를 내려 1묘의 궁색한 거처를 찾아 주시니 입실에 따름이 부끄러운데 어찌 외람되게 식려하심을 생각하였겠습니까?

(伏蒙尚書念以遠方，察其獨立，俯怡素志，每煦溫顏，聽及階及席之言，佇銘骨銘肌之懇。早來又蒙降三清之仙駕，顧一畝之窮居，方慙隨入室之賢，豈料忝軼廬之念..⁶⁷)

〈奉和座主尚書避難過維陽寵示絕句三首〉는 바로 잠시 양주에 머물던裴瓚의 증시에 화답한 최치원의 칠언절구이다. 〈奉和座主尚書避難過維陽寵示絕句三首〉其一是 다음과 같다.

年年荊棘侵儒苑 儒苑에는 갈수록 가지덤폴만 가득하고
處處煙塵滿戰場 곳곳의 전장터엔 연기와 티끌만 가득하네
豈料今朝覲宣父 오늘 아침 宣父께 절 올리고
豁開凡眼睹文章⁶⁸ 그 문장에 좁은 안목 넓히게 될 줄이야

그는 이어 〈奉和座主尚書避難過維陽寵示絕句三首〉其三에서裴瓚에 대한 깊은 은혜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濟川終望拯烟沉 바라노니 흐린 세상 건져 주기를
喜捧淸詞浣俗襟 썼었노라 글월 보고서 속된 마음을
唯恨吟歸滄海去 아득한 저 바다로 돌아가려니
泣珠何計報恩深⁶⁹ 깊은 은혜 갚지 못해 눈물만 흐르네

裴瓚이 崔致遠에게 증여한 작품을 찾아 볼 수는 없지만, 답시를 통해 崔致遠에 대한 감사와 격려를 담고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64) 『桂苑筆耕集』卷19, 〈賀除吏部侍郎別紙〉.

65) 이부시랑과 예부상서의 임용시기

66) 『桂苑筆耕集』卷19 《迎楚州行李別紙》叙

67) 韓國成均館大學大東文化研究院, 1972年編《崔文昌侯全集》(下簡稱《全集》), 390頁、395頁、403頁。

68) 『桂苑筆耕集』卷20

69) 『桂苑筆耕集』卷20

‘恩門’, ‘座主와 門生’이라는 표현 그대로 裴璵는 崔致遠 在唐時期 立身の 후견인으로서, 지위와 연령을 초월하여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어려움을 구제하고 詩文으로 화답하며 깊이있는 우의를 나눈 인물이다.

3.1.2. 李展

李展 개인에 관한 어떤 기록을 찾을 수가 없다. 하지만 李展은 최치원의 재당시기 독특한 우의를 나눈 관료로서, 불교에 심취하여 시와 주홍을 함께하며 세상 명리를 잊는 인생태도를 함께한 인물이다.⁷⁰⁾ 이는 그의 〈和李展長官冬日游山寺〉를 통해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暫游禪室思依依	잠시 산사에 들어보니 여러 생각 솟아오고
爲愛溪山似此稀	계울과 산 모두 곱기만 하네
勝境唯愁無計住	아름다운 경치에 시름 잊고서
閑吟不覺有家歸	돌아감을 잊고 읊조려 보내
僧尋泉脉敲冰汲	스님은 샘물을 찾아 물을 길고
鶴起松梢擺雲飛	학들은 소나마 너머 구름을 떨치고 나네
曾接陶公詩酒興	일찍이 시와 술을 벗삼던 도연명을 알았더라면
世途名利已忘机 ⁷¹⁾	세상의 모든 명리 잊었을 것 아닌가?

또한, 〈秋日再經盱眙縣寄李長官〉⁷²⁾의 이장관은 江淮의 명승인 盱眙縣에서 재차 가을 遊覽을 하며, 벼슬살이로 떠도는 나그네의 근심과 다시 벗을 만난 감격의 정을 노래하고 있다.

孤蓬再次接恩輝	외로운 나그네 재차 신세를 지니
吟對秋風恨有違	가을 바람 마주하며 어그러짐에 서러워지네
門柳已凋新歲葉	문 앞 버들 새로난 잎새 시들었건만
旅人猶着去年衣	나그네 의복 작년 입던 그대로
路迷霄漢愁中老	하늘같은 아득한 길에 시름 속 늙어지고
家隔煙波夢里歸	바다 건너 네 집에는 꿈엔들 돌아가리
自笑身如春社鶯	우습다 이 몸은 사일의 제비런가
畫梁高處又來飛 ⁷³⁾	그럼 들보 높은 곳에 다시 와 노니네

盱眙縣은 淮南道 직할 縣으로서 揚州의 서북에 위치한 명승지이다. 즉, 양주에서 멀지않은 盱眙縣을 두 번 방문한 사실과 작품 속의 그려진 나그네 시름 등을 감안하면, 작품 속의 “李長官”은 바로 李展으로 생각된다.⁷⁴⁾ 淮南의 幕府에서 근무하던 최치원은 盱眙縣으로 이전을 찾아서 가을의 흥취 속에서도 시름겨워하며 교분을 나눈 것으로 생각된다.

3.1.3. 李蔚과 于慎微

70) 黨銀平·閔庚三, 〈東國文學之祖崔致遠與唐末文人交游考述〉 262쪽.

71) 『孤云先生續集』 所補輯.

72) 〈秋日再經盱眙縣寄李長官〉의 창작시기에 대하여 閔琦는 “觀光六年” 즉, 최치원이 12세에 입당하여 과거를 준비하던 시기 江淮지역을 漫遊하며 지은 것으로(〈新羅詩人崔致遠〉, 『唐代文學研究』 第5輯, 廣西師大出版社, 1994年10月, 556쪽.), 韋旭升은 최치원이 귀국하며 우이현을 돌아가며 이전에게 기탁한 것으로(〈崔致遠居唐宦途事期足跡考述〉, 『外國文學研究』 1999年 第3期, 21쪽) 추정하고 있다.

73) 『全集』, 30, 208, 398-399, 207, 29쪽.

74) 黨銀平·閔庚三, 〈東國文學之祖崔致遠與唐末文人交游考述〉, 262쪽.

李蔚과 于愼微는 최치원이 장안을 중심으로 과거 준비를 위해 동분서주했던 “觀光 6年” 동안 교류한 인물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최치원의 작품 또한 간단하기에 함께 다루기로 한다.

최치원은 진사과에 응시하기 1년전인 함통 14년(873) 양양에 들러 양양자사 李蔚을 예방하였다.⁷⁵⁾ 그는 〈上襄陽李相公讓館給啓〉에서 숙소와 녹봉을 제공하여 준 李蔚에 대한 깊은 감사를 표시함과 동시에 완곡하게 자신의 친거를 요청하고 있다.

생각해보니 최치원은 오랫동안 유랑을 하였으며 작은 병에 걸려 정신은 피폐해지고 기력은 쇠약해졌습니다. 가서 배례할 깃발을 얻지 못하고 우산과 짚신 만 가지런히 지녔습니다. 여전히 객사에 머무르며 오직 명문 대가의 덕을 그리워할 뿐입니다. (竊念致遠, 久役旅遊, 又榮微羌, 精神沈頓, 氣力疲羸. 未獲徒拜旌幢, 整持簪履, 猶滯身于客舍, 唯戀戀于高門.)

이역에서 과거 합격을 위해 학문에 전념하며 과거를 준비하던 그는 빈공거의 응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중앙과 지방의 유력 인물의 추천을 받기 위한 노력을 전개한다. 일반적으로 빈공거를 외국인에 대한 일종의 응시 우대 제도라고 알고 있지만, 唐代의 賓貢은 지방의 예비 시험인 鄉貢을 의미한다. 唐代의 賓貢에 대하여 閻琦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빈공이란 한(漢) 이래로 시행해 온 ”향천(鄉薦)“을 가리키며, 당에서는 빈공의 의미가 鄉貢과 같으니, 즉, 중앙 혹은 지방의 학당에서 선발 추천한 자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예부에 직접 추천하는 자를 말하며 전적으로 신라인이나 외국인을 추천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⁷⁶⁾

즉, 가난한 이방인 청년 최치원 역시 양양자사 李蔚을 예방하며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전개했음을 알 수 있다.

최치원이 于愼微에게 증여한 작품으로는 〈長安旅舍與于愼微長官接隣有寄〉가 유일하다.

上國羈棲久	상국에서의 객지 생활 오래지나
多慚萬里人	부끄러움 많은 타향 사람이네
那堪顏氏巷	顏子の 누향을 건디어 내며
得接孟家隣	孟氏의 좋은 이웃과 사귀게 되었네
守道唯稽古	도를 지키는 법은 오직 배움 밖에 없으니
交情豈憚貧	사귀는 정에 어찌 가난하다고 싫어하리
他鄉少知己	타향에 지기는 드물기에
莫厭訪君頻	자주 찾아 가더라도 싫다하지 마오

于愼微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지만, 장안의 객사에서 가난을 감내하며 학문에 전념하던 최치원에게 있어서 儒家의 品德을 갖춘 훌륭한 이웃이자 자신의 흥금을 터 놓을 수 있었던 동년배의 지기라고 생각된다.

또한, 그의 〈秋夜雨中〉, 〈郵亭夜雨〉, 〈途中作〉 등의 작품에는 이역 땅에서 과거 급제를 위해 학문에 전념하는 가난한 선비의 고통을 여실히 토로하고 있다. 〈途中作〉은 다음과 같다.

東飄西轉岐路塵	사방을 더돌다 떠돌던 갈림길에서
獨策羸驂幾苦辛	홀로 여윈 말 채찍하며 그 얼마나 고생 했던가
不是不知歸去好	귀향이 좋은 줄 모르는 바 아니지만

75) 郁賢皓의 〈唐刺史考〉에 의하면 李蔚이 襄陽刺史가 된 것은 咸通 14年임. 閻琦의 〈新羅詩人 崔致遠〉, 145쪽.

76) 閻琦, 〈新羅詩人 崔致遠〉, 146쪽.

只緣歸去又家貧 돌아가더라도 가난하기만 한 것을

이처럼 李蔚과 于愼微는 이역만리 장안에서 고초를 감내하며 과거를 준비하던 이방인 청년 최치원에게 물심 양면의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지인이라고 할 수 있다.

3.2. 幕僚

최치원은 회남절도사 高駘의 蓮府에 발탁된 것은 광명 원년(880, 24세)이며, 중화 4년(884, 28세) 귀국할 때 까지 4년여 동안 筆硯의 업무를 도맡아 문재를 발휘했다. 이 시기는 최치원 재당시기 문학의 전성기로서, <黃巢檄文>으로 명성을 천하에 떨쳤을 뿐만 아니라 淮南 幕府에서 공문서 작성의 중책을 담당하며, 막부의 중심적인 인물인 高駘과 顧雲을 비롯하여 張喬, 梁瞻, 吳巒 등 다양한 인물들과 우의를 나누었다.

3.2.1. 高駘

최치원의 재당시기 후반기에 가장 관계가 깊은 인물로는 高駘를 꼽을 수 있다. 漂水縣尉를 사직하고 博學宏詞科에 응시하고자 과에 응시하고자 시작과 학업에 몰두하던 그는 경제적 곤궁을 극복하기 위해 淮南의 藩師 高駘에게 <初投獻太尉啓>, <再獻啓>, <獻詩啓> 그리고 <記德詩> 30首⁷⁷⁾를 통해 高駘의 휘하에 들기를 간청한다.⁷⁸⁾ 그가 漂水縣尉를 사직한 것은 乾符 4년(877, 21세 겨울)이며,⁷⁹⁾ 3년 여의 학문 연마 이후, 광명 원년(880, 24세) 5월 마침내 高駘의 부름을 받아 귀국할 때까지 4년 동안 高駘 淮南 蓮府에서 필현의 임무를 담당한다.

高駘은 字가 千里, 幽州人이며, 元和 초기의 공신 南平王 崇文의 손자이다.⁸⁰⁾ 최치원은 高駘의 막부에서 도통순관, 승무랑, 시어사, 내봉공, 사자금어대 등의 관직을 수행하며, <黃巢檄文>를 통해 문명을 천하에 떨쳤을 뿐만 아니라 『桂苑筆耕集』에 수록된 수준높은 表上啓 別紙 등을 세상에 전하였다.

그가 천하에 대도를 실천하기 위해 高駘에게 출사를 요청하는 <陳情上太尉詩> ⁸¹⁾는 다음과 같다.⁸²⁾

海內誰憐海外人	그 누가 이방인을 보살피 주리
問律何處是通律	물노라 어디가 내 갈 곳인가를
本求食祿非求利	밥 먹으려는 것이지 부자되려는 것 아니며
只爲榮親不爲身	어버이 기쁘게 할 뿐, 내 몸 위해서가 아니라네
客路離愁江上雨	강물의 빗소리 이별의 시름
故園歸夢日邊春	고향 봄은 꿈속에 가물거리네
濟川幸遇恩波廣	물 건너려다 넓은 은혜의 파도를 만나
願濯凡纓十載塵	갓끈에 낀 십년 먼지를 씻어주길 바라네

기덕시 30수를 연결 고리삼아 결합한 고병과 최치원은 문학적 호응을 같이했다. 그의 <雪詠> ⁸³⁾은

77) 최치원은 입막 전에는 <初投獻太尉啓>, <再獻啓>, 입막 후에는 <獻詩啓>, <記德詩> 30首, <長啓> 등을 高駘에게 올렸다.

78) 金重烈, 『최치원문학연구』, 1983.11, 28-30쪽 참조.

79) 최치원은 唐 僖宗 乾符 3년(876, 20세) 漂水縣尉에 올랐고, 이듬해 겨울 博學宏詞科 준비를 위해 사직한다.

80) 『舊唐書』 권182 열전132 高駘傳, 『新唐書』 권224하 열전 119하 高駘.

81) 『桂苑筆耕集』 卷20.

82) 최치원은 <歸燕吟獻太尉> (『桂苑筆耕集』 卷20)에서 이방인인 자신을 중용한 고병에 대한 은혜를“ 秋去春來能守信, 暖風涼雨飽相諳. 再依大廈雖知許, 久汚雕梁却自慙.”라고 피력했다.

83) 『桂苑筆耕集』 卷17.

高駢의 〈雪詩〉⁸⁴⁾에 화답하여 지은 작품이다. 먼저 高駢의 〈雪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六出花飄入戶時	눈이 나부껴 문에 들어올 때에
立春修竹變瓊枝	서서 긴 대나무가 구슬 가지로 변한 것을 보았네
逡巡好上高樓看	천천히 즐기며 높은 다락에 올라가 보니
蓋盡人間惡路岐	인간의 악한 일 갈림길을 모두 덮었네

이에 화답한 최치원의 〈雪詠〉은 다음과 같다.

五色毫編六出花	오색 붓으로 육출화 [눈] 를 엮어내어
三冬吟徹四方誇	삼동에 읊조리니 사방에서 추앙하네
知知絕句勝聯句	절구가 연구보다 나은 줄을 비로소 알았으니
從此芳名掩謝家	이로부터 꽃다운 이름 謝家를 무색케 했네

“눈이 내려 삭막한 인간 세상을 한 빛으로 아름답게 변화시켰다는 高駢의 시를 보고 孤雲은 晉 謝道韞의 ‘柳絮因風起’라는 유명한 聯句보다도 우수하다고 칭찬하는 등 그 둘의 관계는 문학적으로 깊이 맺어져”⁸⁵⁾ 신분의 고하를 넘어 시문을 함께하며 우의를 나누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高駢이 晩年에 道家에 관심을 가진 것이나 失勢의 시기에 즈음하여 孤雲도 귀국하였으며 그도 晩年에 伽倻山에 은거하여 仙化”⁸⁶⁾한 바와 같이, 최치원의 도가적 행적 역시 高駢의 영향이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금의환향하는 歸國 길에 高駢에 대한 깊은 은혜 그리고 이별의 아쉬움을 그린 〈行次山陽續承太尉寄賜衣段令充歸觀續壽信物謹以詩謝〉⁸⁷⁾는 다음과 같다.

自古雖誇畫錦行	옛부터 금의환향 자랑하지만
長卿翁子古虛名	사마천 주매신 헛 이름뿐
既傳國信兼家信	국신을 전하고 가신까지 얻으니
不獨家榮亦國榮	집의 영화만이 아니라 나라의 영화
萬里始成歸去計	만리고향 돌아가게 되었건만
一心先算却來程	마음속엔 다시 오길 헤아립니다
望中遙想深恩處	바라보며 깊은 은혜 생각하니
三朶仙山目畔橫	세 떨기 신선산이 눈에 비졌네

이방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문학재능만으로 당대의 실력자인 高駢에게 발탁된 그는 지음과도 같은 高駢의 막하에서 문재를 발휘하며 대륙에서 자신의 명성을 구가하고 금의환향하게 된다. 그가 고병의 막부에서 활발한 문학활동을 전개하며 당시의 시문으로 『桂苑筆耕集』이 편성된 바와 같이, 구름을 만난 용 처럼 高駢을 보좌하며 재당시절 가장 왕성한 창작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자신의 명성을 중국에 전한 것이다.⁸⁸⁾

이처럼 高駢과 최치원은 신분이 엄격한 ‘幕主와 幕客’의 관계이지만, 최치원 재당 후반기의 후견인으로서 지음이자 시문을 함께 논한 막역한 시우라고 할 수 있다.

3.2.2. 顧雲 :

84) 『唐詩記事』(四部叢刊 集部) 卷63..

85) 金重烈, 『최고운문학의 비교문학적 연구』, 49쪽.

86) 金重烈, 『최고운문학의 비교문학적 연구』, 49쪽.

87) 『桂苑筆耕集』 卷之二十

88) 金重烈, 『최고운 문학의 비교문학적 연구』, 49쪽.

최치원의 재당시기 가장 오랜 동안 깊은 교분은 나눈 인물을 顧雲이라고 일컫어도 지나치지 않는다. 고운은 장안에서 교분을 나누며 건부 원년 최치원과 함께 과거에 급제했을 뿐만 아니라 高駢의 淮南 막부에서도 막역한 교분을 나누었다. 더욱이 최치원이 광명 원년(880) 高駢에게 발탁된 것 또한 건부 5년 진해절도사 高駢의 휘하에 들어간 이후, 건부 6년(879) 10월에는 양주의 淮南절도사로 부임한 高駢과 함께했던 고운의 친거와 도움⁸⁹⁾ 결과로서, 재당시기 최치원의 막역지기 이자 지음이라고 할 수 있다.

顧雲은 字가 垂象, 土龍이며, 池州 秋浦人이다.⁹⁰⁾ 그는 급제이후 秘書省校書郎과 高駢의 淮南 막부에서 行營都招討判官을 역임했으며, 江淮지역 출신의 풍부한 저술을 남긴 당대 말기 저명한 문인이다. 또한 그가 시명이 높았던 杜荀鶴의 『唐風集』의 서문을 쓴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그의 높은 명망을 헤아려 볼 수 있다. 그는 최치원보다 6살 연상이었지만,⁹¹⁾ 최치원이 “同年”⁹²⁾이라고 표현한 바와 같이, 건부 초년 賓貢學 급제 이후 중화 4년 귀국할 때 까지 최치원과 동고동락하며 최치원의 행적과 문학면에 깊은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먼저, 顧雲의 증시에 화답한 것으로 추정되는 『東門選』에 수록된 최치원의 〈暮春卽事和顧雲友使〉⁹³⁾를 살펴보기로 한다.

東風遍闕百船香	봄바람에 온갖 꽃시절 다 보내고
意緒偏饒柳帶長	그리운 정은 늘어진 버들가지로 끌리네
蘇武書回深塞盡	소무의 편지는 먼 변방에서 오고
莊周夢逐落花忙	장주의 꿈은 지는 꽃 따라 바쁘구나
好憑殘景朝朝醉	남은 경치 따라 아침마다 취하노니
難把離心寸寸量	이별하는 마음은 굽이굽이 헤아리기 어려워
正是浴沂時節日	때는 바로 기수에 떡감는 시절
舊遊魂斷白雲鄉	옛 놀던 꿈 백운향이 아득하네

顧雲과 화창한 작품임을 詩題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 작품은 화사함이 가득한 봄을 맞이한 顧雲이 이역만리에서 종사하는 최치원의 客愁와 향수를 위로하는 증시에 대한 답시로서, 두 사람의 돈돈한 우의가 깊이 베어있다.

또한, 『名賢十鈔詩』에 실린 최치원의 〈和顧雲侍御重陽詠菊〉 역시 두 사람의 화창시이다. 중앙절을 맞아 국화를 감상하며 주흥을 함께하는 두 사람의 모습 속에 만물이 시들어가는 가는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가득하다.

紫萸紅葩有萬般	자색의 꽃반침 붉은 꽃 온갖 꽃이 피었으나
凡姿俗態少堪觀	평범하고 속된 자태 볼 만한 꽃은 별로 없애
豈知開向三秋節	어찌 삼추에 피는 꽃과 같으리오
獨得來空九夕歡	홀로 중앙절의 기쁨을 즐기네
酒泛余香薰座席	술은 여향을 띄워 술자리를 훈훈하게 하고
日移寒影挂霜欄	해는 찬 그림자를 옮겨 서리내린 난간에 걸렸네
只應詩客多惆悵	시객의 마음 무척 슬프고 안타까워

89) 당은평, 민경삼, 東國文學之祖崔致遠與唐末文人交游考述, 256쪽

90) 顧雲의 전기자료는 『新唐書』卷60, 『唐詩紀事』卷67, 『全唐文』卷815, 『直齋書錄解題』卷16, 『別集類上』 등에 수록되어 있다. 또한 『顧雲集』 2권과 『顧雲詩』 1권이 전한다.(김중렬, 『최치원문학연구』 42쪽 참조.)

91) 吳在慶은 〈唐五代作家生卒年考〉(『遼寧大學學報』1996年 第5期, 3쪽)에서 顧雲의 출생년도는 大中 五年(851)이며, 건부 원년 급제시 최치원은 18세, 고운은 24세로 추정했다.

92) 『三國史記』卷46 崔氏本傳 : “又與同年顧云友善, 將歸, 顧云以詩送別.” 또한 최치원은 〈獻詩啟〉(『桂苑筆耕集』卷17)에서도 顧雲을 同年으로 표현했다.

93) 『東文選』 卷12 七言律詩.

零落風前不忍看 바로 앞의 영락하는 것은 차마 볼 수 없네.

中和 四年 가을 신라로 귀국하는 최치원에게 顧雲은 시를 지어 송별한다.⁹⁴⁾ 이 작품의 제목을 李奎報의 『白雲小說』에는 顧雲이 증여한 〈儒仙歌〉라고 적고 있다.

我聞海上三金鼈	내 들으니 바다에 세 마리 금자라 있는데
金鰲頭戴山高高	금자라 머리 위엔 높은 산을 이었고
山之上兮	산 위에는
珠宮貝闕黃金殿	구슬 궁전 자개 대궐 황금의 전각이요
山之下兮	산 아래는
千里萬里之洪濤	천리만리 넓은 파도라네
傍邊一點鷄林碧	그 옆에 한 점 계림이 푸르네
隴山孕秀生奇特	자라산 정기로 기특한 이 태어났네
十二乘船渡海來	열 두 살에 배 타고 바다를 건너와서
文章感動中華國	문장으로 중국을 뒤흔들었네
十八橫行戰詞苑	열 여덟에 문단을 휩쓸어
一箭射破金門策	한 화살로 금문책을 쏘아 뚫었네

고운의 최치원에 대한 과격적인 격찬에 대하여 孤雲은 자부심 가득하고 금의환향하는 심경을 담아 다음과 같이 화답하고 있다.⁹⁵⁾

巫峽重峰之歲	열 두 살 어린 나이에
絲入中華	단신으로 중원에 들어왔다가
銀河列宿之年	스물 여덟 한창 나이에
錦還故國	금의환향 고국에 돌아가려다.

또한, 『破閑集』에 수록된 顧雲이 최치원에게 증여한 〈孤云篇〉은 다음과 같다.⁹⁶⁾

因風離海上	바람 타고 바다를 떠나가더니
伴月到人間	달과 함께 인간으로 이르렀구료
徘徊不可住	이리저리 둘러봐도 머물 수 없어
漠漠又東還	아득아득 동으로 또 가는구료

이 작품에서 孤雲을 신선으로 비유한 것은 〈儒仙歌〉와 상통하는 技法이다. 〈儒仙歌〉에서 최치원을 詩仙으로 일컫은 것은 顧雲의 너리에 투영된 孤雲의 이미지로서 최치원에 대한 최고의 평가라고 할 수 있다⁹⁷⁾. 더욱이 芳林十哲의 본거지인 九華山에서 은거했으며,⁹⁸⁾ 中和 四年(884) 崔致遠 귀국이후 光啓 三年(887)에는 揚州를 떠나 霽川(浙江吳興霽溪)에서 은거한 고운의 행적은 儒仙을 號로 삼고 귀국이후 만년에 은거하며 해인사 登仙의 일화 등을 남긴 최치원의 도가적 취향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다.

崔致遠과 顧雲 두 사람은 깊은 우정은 물론 서로 상대방의 문학 재능을 인정하고 작품을 흠모해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작품의 경우,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94) 『三國史記』卷46 崔氏本傳：“又與同年顧雲友善，將歸，顧雲以詩送別”。

95) 李奎報, 『破閑集』卷中 22則

96) 李奎報, 『破閑集』卷中 22則

97) 金重烈.

98) 『唐詩紀事』卷67(臺灣, 鼎文書局, 1978. 4) 1043쪽.

〈獻詩啓〉와 〈請轉官從事狀〉, 〈謝示延和閣記碑狀〉 등을 비롯한 최치원의 작품 가운데 고운의 문재를 격찬하는 내용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獻詩啓〉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제가 가만히 동년 고운 교서의 현상공 장계 1수와 단가 10편을 살펴보니, 학파는 고래가 바다 물결을 뺀 듯 하고 사봉은 칼날이 운한에 기대인 듯 하니, 찬송되어 영원히 전해질 것입니다.

(謀竊覽同年顧雲校書, 獻相公長啓一首, 短歌十篇 學派則鯨噴海濤, 詞鋒則劍倚云漢, 備爲贊頌, 永可流傳.”)99)。

또한, 고운 역시 최치원의 문재에 대하여 격찬하곤 했다. 李奎報의 『白云小說』에는 최치원의

昆侖東走五山碧 곤륜산이 동으로 뻗어 산봉우리 다섯이 푸르렀고
星宿北流一水黃 성수는 북으로 흘러 황화가 되었네

시구에 대하여 ‘이 구절은 한 폭의 地圖로다(此句卽一與地志也)’100) 라고 격찬한 바와 같이, 顧云은 崔致遠의 문재에 대하여 깊이 欣賞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치원의 〈七言紀德詩三十首謹獻司徒相公〉(『桂苑筆耕集』卷17)가운데 〈天威徑〉과 〈筑城〉시가 있고, 顧云은 〈天威行〉 〈筑城篇〉(『全唐詩』卷637)가 있다. 고운 “시의 제목과 지취가 최치원의 작품과 유사하며, 동시에 수창한 작품일 가능성”101)마저 있다. 또한, 崔致遠의 『桂苑筆耕集』卷15에 수록된 〈應天節齋詞三首〉을 비롯한 15편의 齋詞102)는 “최치원과 顧雲 두 사람이 회남 막부에서 高駢을 위해 함께 찬술한 것이다.”103)

이처럼 최치원과 顧雲 두 사람은 국적과 나이를 초월한 지기로서, 상호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시로서 화창하며 자신의 문학세계의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하여 두 사람은 문학면에서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3.2.3. 張喬

張喬는 자가 伯遷, 松年이며, 池州 青陽人(安徽省 青陽縣)이다. 그는 율시에 뛰어났으며, 許棠 張蠙 周繇와 함께 九華山에서 은거한 “九華四俊”의 일원이자, 당대 말기 鄭谷 등과 더불어 文名을 날리던 “芳林十哲”의 일원이다.

그는 咸通 말년 顧云 李昭象 등과 九華山에서 은거했는데, 104) 九華山은 최치원의 첫 부임지였던 溧水縣 인근 지역이다. 최치원과 張喬의 교류 또한 顧雲의 추천에105)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孤云先生文集』에는 張喬에게 증여한 〈和張進士喬村病中見寄〉 1수가 전한다. 이 작품은 최치원이 淮南幕府에 들어간 廣明 元年(880)의 작품이다. 당시 張喬는 黃巢가 장안을 점령하자 서북지역 유람을 마치고 다시 九華山에서 은거를 시작한 시기이다.106)

99) 『桂苑筆耕集』卷17, 〈獻詩啓〉.

100) 『高麗名賢集』冊一(成均館大學大東文化研究院, 1986. 10) 574쪽.

101) 黨銀平·閔庚三, 〈東國文學之祖崔致遠與唐末文人交游考述〉: “其詩題和旨趣與崔詩頗為類同, 可能為同時酬唱之作.”

102) 최치원의 『桂苑筆耕集』에 수록된 齋詞는 〈上元黃籙齋詞〉, 〈中元齋詞〉, 〈下元齋詞二首〉, 〈上元齋詞〉, 〈中元齋詞〉, 〈下元齋詞〉, 〈黃籙齋詞〉, 〈禳火齋詞〉, 〈天王院齋詞〉, 〈為故昭義朴射齋詞〉 등이 있다.

103) 黨銀平·閔庚三, 〈東國文學之祖崔致遠與唐末文人交游考述〉: “兩人在幕府中還曾同為高駢同撰道教齋詞.”

104) 『唐詩紀事』卷67 〈李昭象〉條.

105) 『唐詩紀事』卷67 〈李昭象〉와 張喬의 〈贈進士顧云〉(『全唐詩』卷639). 黨銀平·閔庚三, 〈東國文學之祖崔致遠與唐末文人交游考述〉, 259쪽.

106) 黨銀平·閔庚三, 〈東國文學之祖崔致遠與唐末文人交游考述〉 259쪽.

一種詩名四海傳	독특한 시명 은 세상에 떨치니
浪仙爭得似松年	낭선을 어찌 송년과 비교할 수 있으리오
不唯騷雅標新格	소아가 새로운 격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能把行藏繼古賢	능히 행장을 갖추고 옛 어진 이를 이었네
藜杖夜携孤嶼月	달 밤엔 명아주 지팡이 짚고 외로운 섬 거닐고
葦簾朝掩遠村煙	아침엔 갈대밭 울리고서 아득한 마을 연기 바라보네
病來吟寄漳濱句	병들자 장빈의 글귀를 읊어
因付漁翁入郭船	성에 들어오는 어옹의 배편에 부쳤네.

여기서 浪仙은 中唐의 詩僧 賈島의 자이며, 松年은 張喬의 字이다¹⁰⁷⁾. 최치원은 張喬를 중당시기의 저명시인 賈島에 견준으로서, 그의 높은 시명과 시격을 칭송하고, 吟風弄月하는 은자의 孤高한 생활 풍모를 부각시키고 있다. 즉, 최치원의 張喬에 대한 인간적 문학적 깊은 존경심을 헤아려 볼 수 있다.

또한, 張喬는 다른 문인과 달리 작품 가운데 〈送朴充侍御歸海東〉을 비롯하여 신라인에게 증여한 작품이 7수¹⁰⁸⁾가 있다. 그가 이처럼 폭넓게 신라인과의 교제한 것은 바로 이방인에 대한 어떠한 편견없이 사랑을 실천한 장교의 인간애와 생활풍모를 대변한다.

3.2.4. 楊贍

楊贍의 전기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단지 . 최치원의 회남 막부 재직시기의 교제한 인물로서, 그를 “수제”나 “진사”라고 말한 것을 감안하면, 鄉試(初試)에 합격하고 중앙의 과거를 준비하던 인물로 생각된다¹⁰⁹⁾ 최치원은 회남막부 재직시기 楊贍과 깊은 우정을 맺었는데, 그의 『桂苑筆耕集』卷20에는 楊贍과 화답한 증답시로 생각되는 최치원의 〈酬進士楊贍送別〉와 〈酬楊贍秀才送別〉이 수록되어 있다.

이 작품은 모두 중화 4년(900) 최치원이 양주를 떠나 귀국길에 오르며 양섬과의 이별의 아쉬움을 노래하고 있다. 먼저, 〈酬進士楊贍送別〉에는 귀국 앞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헤어짐을 슬퍼하는 楊贍을 위로하는 당당한 청년 孤雲의 모습이 두드러진다.

海山遙望曉煙濃	아슬한 산봉우리 새벽연기 어렸는데
百幅帆張萬里風	많은 풍석 만리 바람에 걸었구나
悲莫悲兮兒女事	행어나 사내로서 계집애같이
不須惆悵別離中	갈린다고 지나치게 슬퍼하지 마오 ¹¹⁰⁾

〈酬楊贍秀才送別〉 역시 금의환향을 목전에 둔 최치원이 양주에서의 楊贍과의 이별을 노래하고 있다.

槎雖定隔年廻	내년에 돌아오기로 배 떠나가지만
衣錦環鄉愧不才	분에 넘친 금의환향 부끄럽구려
暫別燕城當葉落	일지는 무성땅 잠시 떠나서
遠尋蓬島趁花開	고향 찾아 꽃 필때 다다르겠지

107) 張喬의 字는 伯遷인데 후일 “松年”으로 바꾸었다. 閻琦의 〈新羅詩人崔致遠〉(『唐代文學研究』第五輯, 廣西師大出版社, 1994. 10) 554쪽.

108) 張喬가 新羅人에게 증여한 작품은 〈送賓貢金夷吾奉使歸本國〉, 〈送朴充侍御歸海東〉, 〈送棋待招朴球歸新羅〉, 〈送僧雅覺歸海東〉, 〈送新羅僧〉, 〈贈頭陀僧〉, 〈送人及第歸海東〉 등 모두 7수이다.(『全唐詩』卷638 卷639)

109) 燕城과 廣陵은 양주의 별칭이다. 당은평 민경삼 260쪽.

110) 『桂苑筆耕集』卷20, 〈酬進士楊贍送別〉.

谷鶯遙想高飛去	골짜기 피꼬리 높이 날려 하는데
遼豕寧慙再獻來	요동 돼지 다시 바치기를 꺼리겠는가
好把壯心謀後會	장한 마음 간직하고 다시 모이어
廣陵風月待銜杯	광릉 풍월에 술잔 나누세 ¹¹¹⁾

이별의 작품임에도 슬픔보다는 오히려 최치원의 의기양양한 모습이 시야에 가득하다. “隨計之計”¹¹²⁾ 즉, 과거를 준비하는 楊瞻¹¹³⁾에 대한 격려와 기대 그리고 머지않은 장래에 다시 만날 것이라는 확신 등은 바로 금의환향하는 결과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3.2.5. 吳巒

吳巒의 字는 寶川이며¹¹⁴⁾, 최치원이 오랜 시간 교유하며 흥금을 털어놓을 수 있었던 지기 가운데 하나이다.¹¹⁵⁾ 최치원이 吳巒에게 증여한 작품은 〈送吳進士巒歸江南〉을 비롯하여 〈酬吳巒秀才惜別絕句二首〉, 〈辛丑年寄進士吳瞻〉¹¹⁶⁾ 등 모두 4가 전한다.

강남으로 돌아가는 吳巒 을 전송하며 지은 〈送吳進士巒歸江南〉에는 거듭되는 이별의 아쉬움 속에서 비록 전란의 와중이지만 다시 만나 풍류를 함께 할 날을 기약하면서 학문에 매진할 것을 당부하는 깊은 우정을 담아내고 있다.

自識君來幾度別	그대와 사귄 후 몇번째 이별인가
此回相別恨重重	이번 서로 갈림엔 한이 더욱 겹치네
千戈到處方多事	난리라 가는 데마다 한창 어수선한데
詩酒何時得再逢	어느 때 시와 술로 다시 만날까
遠樹參差江畔路	먼 나무는 강변 길에 울명줄명
寒雲零落馬前峯	구름은 뭉게뭉게 말앞의 봉우리
行行遇景傳新作	가다가 좋은 경치 만나거든 새글 전해주게
莫學嵇康盡放 ¹¹⁷⁾	게으른 혜강의 버릇 제발 배우지 마소

〈酬吳巒秀才惜別絕句二首〉¹¹⁸⁾ 역시 吳巒과의 석별을 노래한 작품으로, “無他語” 즉, 無語別로서 이별의 깊은 슬픔을 함축하고 있다. 학문에 정진을 당부하며, 청운의 꿈을 이룰 오만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담아 낸 〈酬吳巒秀才惜別絕句二首〉 其一은 다음과 같다.¹¹⁹⁾

榮祿危時未及親 벼슬 높으면 친하기도 어렵거니

111) 『東文選』 卷9, 〈送吳進士巒歸江南〉.

112) 徐有矩의 活字本 계원필경과 『四部叢刊』에는 〈酬楊瞻秀才送別〉의 “谷鶯遙想高飛去”句에 “時楊生有隨計之計”, “隨計之計”라고 주석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臧嶸은 〈唐時來華的新羅國詩人崔致遠〉(『隋唐五代史論』 河北教育出版社, 2000.1)에서 양삼이 최치원과 함께 귀국하려는 것으로, 黨銀平은 과거 응시를 위해 장안으로 가려는 계획으로 추정하고 있다.

113) 黨銀平·閔庚三, 〈東國文學之祖崔致遠與唐末文人交游考述〉 260쪽 : “‘隨計之計’, 崔氏意謂與楊瞻道別時, 楊瞻相告有“隨計”入京應試的打算..”

114) 吳巒은 汝陽 盧縣人 (혹 鄆州 盧縣人), 명경과에 낙제한 기록이(『舊五代史』 卷95 『晉書』 本傳의 “以經業從鄉試下第”, 陳鱣 『續唐書』 卷66의 “少舉明經不中.”) 있으며, 唐末 원화 초년 이전 진사가 되었다. 당은평 민경삼의 진계서 261쪽 참조..

115) 김중렬은 최치원이 進士나 秀才로 지칭한 점을 들어 吳巒과 同年의 친구로 추정했다.

116) 『孤云先生續集』에 수록된 〈辛丑年寄進士吳瞻〉의 “吳瞻:”은 “吳巒”의 誤字이다.

117) 『東文選』 卷九 〈送吳進士巒歸江南〉

118) 『桂苑筆耕』 卷20, 〈酬吳巒秀才惜別絕句二首〉

119) 黨銀平은 이 작품을 중화 4년 귀국시기에 지은 작품으로 추정하고 있다. 黨銀平·閔庚三, 〈東國文學之祖崔致遠與唐末文人交游考述〉 261쪽.

莫嗟岐路暫勞身	헤어지는 괴로움을 슬프다 마소
今朝遠別無他語	오늘아침 멀리 보내며 다른말 없으니
一片心須不愧人	한조각 마음이 남에게 부끄럼 없기를

앞의 두 작품이 〈辛丑年寄進士吳瞻〉¹²⁰⁾은 두 사람의 깊은 우정을 살펴 볼 수 있는 작품이다.

危時端坐恨非夫	위태로운 시기 바른 태도로 원망하지 않는 것이 사내거늘
爭奈生逢惡世途	힘한 세상 만나 다투어 무엇하리
盡愛春鶯言語巧	모두들 말솜씨 교묘한 봄 피꼬리를 좋아하고
卻嫌秋隼性靈粗	추악한 성질의 가을 매를 싫어하네
迷津懶問從他笑	어지러운 세상사에 물어도 비웃음 사고
直道能行要自愚	바른 길 어리석은 척해야 갈 수 있다네
壯志起來何處說	장한 뜻 말할 곳이 어디인가
俗人相對不如無	세상사람 상대해 보아도 알아 주는 이 없거늘

“이 작품은 中和 元年(881)에 지은 것으로, 최치원이 오만에게 회남 막부의 善惡마저 分別하지 못하고, 正邪마저 뒤섞이는 폐습을 하소연하면서, 正道를 지켜 나가며 세속에 물들지 않는 자신의 고고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¹²¹⁾ 이처럼 최치원은 오만과 시로서 화답하며 주흥을 함께하고, 흥금을 터놓고 말할 수 있었던 손에 꼽을 만한 지기 가운데 하나이다.

3.3. 詩友

최치원과 교류한 인물가운데 시명을 떨치고 문집을 남긴 시인으로는 만당의 羅隱과 杜荀鶴을 2인 들 수 있다. 다음에서는 작품을 중심으로 교류의 정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3.3.1. 羅隱

羅隱은 字가 昭諫, 號는 江東生이며 浙江성 新城人이다. 晚唐대의 저명한 강동시인이자 오월 지역의 문단을 대표하는 시인이다.¹²²⁾ 라운과 최치원의 만남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처음 중국으로 유학했을 때 강동시인 라운과 알게 되었는데, 은이 제주를 자부하고 높은 양하여 남을 가벼이 칭찬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치원이 지은 수 다섯 축을 보여주었다.(始西遊時 與江東詩人羅隱相知 隱負才自高 不輕許可 人示致遠所製詩歌五軸.)¹²³⁾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문학 재능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랐던¹²⁴⁾ 羅隱과 시가 창작에 전념했던 이방인 소년의 만남의 한 장면으로서, 두 사람의 연령을 초월한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헤아려 볼 수 있다. 羅隱의 시단에서의 지위와 명성, 최치원보다 24세 연상인¹²⁵⁾ 점을 감안하면, 두 사람은 스승과 자제의

120) 『崔文昌候全集』(성균관대학교 大東文化研究院, 1972. 7).208

121) 黨銀平·閔庚三, 〈東國文學之祖崔致遠與唐末文人交游考述〉, “此詩作於中和元年(881), 崔氏向吳巒傾訴了淮南幕府善惡不分、正邪混淆的弊習, 表明將恪守“直道”.

122) 黨銀平·閔庚三, 〈東國文學之祖崔致遠與唐末文人交游考述〉.

123) 『三國史記』卷46 本傳.

124) 羅隱의 성격에 대하여 『唐才子傳』卷9에서는 “介僻寡合”, 『羅隱集雜著』에서는 스스로를 “受性介僻, 不能方圓, 既不與人合, 而又視之如仇讎, 以是仆遂有狹而不容之說.” 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125) 唐 文宗大和 七年(833)에 출생한 羅隱은 咸通 九年 12세에 입당한 최치원 보다 24세 많은 36세임. 黨銀

관계라고 말 할 수 있다.¹²⁶⁾

또한, 함통 말년부터 건부 원년까지 李蔚의 淮南幕에서 종사한 羅隱의 행적과 최치원이 과거를 앞둔 함통 14년 빈공거의 추천을 위해 양양자사 李蔚 방문한 사실을 감안하면, “始西遊時”은 최치원의 입당 초기인 함통 14년 양양에서 이루어진 두 사람의 조우를 말한다. 아울러 《甲乙集》卷3에 수록된 羅隱의 작품 〈送顧云下第〉은 바로 顧雲이 건부 원년 최치원과 함께 급제한 사실을 감안하면, 함통 말년 羅隱과 최치원의 교유 그리고 두 사람의 교유의 배경에는 顧雲의 추천이 있었음을 시사한다.¹²⁷⁾

최치원과 羅隱 두 사람은 “문학 창작면에서 일정한 연원관계를 형성”¹²⁸⁾하고 있다. 吳 越王 錢鏐를 대신하여 沈崧이 지은 謝表를 개작한 라은의 구절과 孤雲의 〈姑蘇臺〉¹²⁹⁾의 구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天寒而麋鹿常遊	날씨 추운데도 사슴들은 이리저리 뛰놀고
日暮而牛羊不下	해는 졌는데 소와 양은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네
荒臺麋鹿遊秋草	거친 터엔 사슴들만 가을풀에서 놀고
廢院牛羊下夕陽	소와 양만이 있는 허물어진 집에 석양이 비치네

물론 두 작품 모두 “『詩經·王風·黍離』의 ‘日之夕矣，羊牛下來’ 구절을 환골한 시구로서”， 시어의 유사성은 물론 “해질 무렵 소와 양을 통해 姑蘇臺의 황량한 정경을 표현한 것은 同工異曲¹³⁰⁾이라고 할 수 있다.¹³¹⁾ 세상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회재불우를 표현한 羅隱의 〈經張舍人舊居〉와 崔致遠 〈再獻啟〉의 구절은 다음과 같다.

一榻已無開眼處
九泉應有愛才人 - 羅隱의 〈經張舍人舊居〉

人間之要路通津，眼無開處物外之青山綠水，夢有歸時. - 崔致遠의 〈再獻啟〉 (『桂苑筆耕集』卷17)

또한, 羅隱의 작품 가운데 七言律詩가 가장 많으며, 더욱이 詠物詩에 뛰어났는데, 최치원 역시 칠언유율시의 영물시를 즐겨 지었다.¹³²⁾ 즉, 羅隱과 최치원은 스승과 사제의 관계로서 문학 창작 면에서 일정한 연원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 상호 깊은 영향을 미쳤음을 파악할 수 있다.

3.3.2. 杜荀鶴

唐末의 저명시인 杜荀鶴(846-904)¹³³⁾은 자가 彥之, 池州 石埭人(安徽省 石台縣)이다. 그는 우여곡절 끝에

平·閔庚三, 〈東國文學之祖崔致遠與唐末文人交游考述〉 283쪽 참조.

126) 金重烈의 〈崔致遠의文學研究〉과 柳晟俊의 〈論晚唐羅隱詩與新羅崔致遠詩的關係〉 참조.

127) 黨銀平·閔庚三, 〈東國文學之祖崔致遠與唐末文人交游考述〉, 283쪽 참조.

128) 黨銀平·閔庚三, 〈東國文學之祖崔致遠與唐末文人交游考述〉, 284쪽 : “兩人在詩文創作上有一定的淵源關係.”

129) 『孤雲先生文集』卷1.

130) 黨銀平·閔庚三, 〈東國文學之祖崔致遠與唐末文人交游考述〉, 284쪽. “『詩經王風黍離』之 ‘日之夕矣，羊牛下來’，以描寫姑蘇台的荒涼景象，可謂異曲同工，”

131) 羅隱이 表를 제작한 시기는 錢鏐가 鎮海節度使에 제수된 唐 昭宗 景福 2년이다. 그 때는 孤雲이 37세로 唐에서 이미 귀국한 9년 뒤의 일이다.

132) 칠언유시 가운데 영물의 작품으로는 羅隱의 경우, 〈金錢花〉, 〈牡丹〉, 〈鷹〉, 〈鷺鷥〉, 〈蟬〉 등이 있고, 崔致遠의 『桂苑筆耕集』卷20에는 〈石峰〉, 〈潮浪〉, 〈沙汀〉, 〈杜鵑〉, 〈海鷗〉, 〈山頂危石〉, 〈石上矮松〉, 〈紅?樹〉, 〈石上流泉〉 등이 있다.

133) 杜荀鶴에 관한 기록은 『唐詩紀事』卷65와 『唐才子傳』卷9을 비롯하여 『唐風集序』, 『北夢瑣言』卷6,

昭宗 大順 2年(891) 46세의 나이로 과거에 급제한 인물이다. 안휘성 출신인 그는 최치원의 벗인 顧雲과 張喬 등과 우의를 나누었다.

杜荀鶴과 최치원의 교유는 다른 인물과는 달리 杜荀鶴의 작품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杜荀鶴은 건부 3년(875) 겨울 장사로 가서 담주자사 배찬을 알현하고, 최치원 역시 같은 시기에 호남의 배찬을 예방하는데, 두 사람은 호남관찰부에서 서로 알게 된 것으로”¹³⁴⁾ 두 사람 교유에는 배찬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생각된다. 또한 최치원의 막역지기인 顧雲이 杜荀鶴의 당풍집 서문을 썼으며, 고운과 두순학이 모두 池州 출신임을 감안하면, 최치원과 두순학의 교제 역시 顧雲의 매개 역할을 가능해 볼 수 있다.

또한, 杜荀鶴의 〈贈溧水崔少府〉는 바로 宣州 溧水縣尉로 재직하던 최치원에게 증여한 작품이다. 杜荀鶴은 일찍이 고운과 함께 지주 九華山에서 은거하며 九華山人(叟)이라 자호했다. 즉, 宣州에 인접한 지주의 九華山에서 은거하던 杜荀鶴은 인접한 宣州의 溧水縣尉로 재직하던 최치원과 시문을 주고 받았다.¹³⁵⁾ 〈贈溧水崔少府〉¹³⁶⁾는 다음과 같다.

庭戶蕭條燕雀喧 정원은 쓸쓸한데 제비와 참새만이 지지귀고
日高窗下枕書眠 한 낮 창문아래서 책 읽다 잠들었네
只聞留客教沽酒 只聞留客教沽酒
未省傭人說料錢 未省傭人說料錢
洞口禮星披鶴氅 洞口禮星披鶴氅
溪頭吟月上漁船 시냇가에서 달을 노래하며 고깃배에 오르네
九華山叟心相許 구화산의 늙은이 마음을 열고서
不計官卑贈一篇 낮은 지위 헤아리지 않고서 작품 한 편 드리네

杜荀鶴은 건부 4년부터 약 1년 동안 율수현위로 재직하던 최치원과 나이를 뛰어넘는 교분을 나누었다. 또한 杜荀鶴의 〈送賓貢登第後歸海東〉¹³⁷⁾ 역시 그의 신라 문인에 대한 깊은 관심과 우정을 반영하고 있다.

4. 결어

唐代 동아시아의 문학환경과 崔致遠을 중심으로 한중 문인 교유의 면모를 살펴보았다. 8-9C 즉, 晚唐時期는 한자문화권인 동아시아에서 漢詩文學이 韓·中·日 삼국에서 확산되어 공동어문학이 형성되던 시기이다. 崔致遠은 한자문화권이 형성되던 晚唐時期 동아시아의 중심국가인 韓·中·日 삼국에서 문학 명성을 구가하며 공동어문학의 형성과 발전에 공헌했으며, 羅末麗初 한문학의 정립에도 기여했다. 그는 詩와 散文과 賦 등 다양한 형식과 문체를 섭렵했을 뿐만 아니라 문학창작의 질과 양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거둔 공동어문학 형성과정의 가장 중심적인 문인이다.

崔致遠이 재당시기 교유한 인물은 裴瓚을 비롯하여 高駘과 顧雲 등 모두 35명 정도를 확인 할 수 있다. 그가 교제한 인물은 長安 溧水縣 揚州 등 그의 발자취와 궤를 같이하고 있으며, 官僚와 淮南 幕府의 幕僚, 그리고 詩友 등으로 분류된다. 관료로는 裴瓚, 李展, 于慎微, 李蔚 등이 있는데, 주로 長安에서 科擧를 준비하던 ‘觀光六年’ 동안 교제한 인물이다. 특히, 禮部尚書 吏部侍郎을 역임한 裴瓚은 崔致遠의 ‘恩門’이자

『舊五代史』卷24, 『十國春秋』卷11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34) 黨銀平·閔庚三, 〈東國文學之祖崔致遠與唐末文人交游考述〉: “裴侍郎即裴瓚, 乾符元年至三年任潭州刺史, 杜荀鶴曾於乾符三年(875)冬末赴長沙投奔裴瓚, 而崔氏亦於本年冬到湖南探視裴瓚, 兩人或許在湖南觀察府即已相識” 杜荀鶴의 〈冬末投長沙裴侍郎〉(『全唐詩』卷691)과 〈投長沙裴侍郎〉(『全唐詩』卷692) 두 작품이 이를 입증한다.

135) 吳大林, 〈晚唐詩人杜荀鶴贈溧水崔少府詩〉, 『江蘇文史資料』의 『溧水古今』第十輯, 1993. 3, 7980쪽.

136) 『全唐詩』卷692.

137) 『全唐詩』卷691.

‘座主’로서 빈공거 급제와 溧水尉 부임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宦路의 후견인의 역할을 담당했다.

崔致遠이 高駢의 淮南幕府에서 종사하던 시기는 재당시기 문학적 전성기로서, 막료로는 高駢을 비롯하여 顧雲, 張喬, 吳巒, 梁瞻 등이 있다. 蓮府의 筆硯의 업무를 맡긴 高駢은 최치원의 문재를 인정하여 발탁한 인물로서 최치원의 재당 후반기의 지음이자 후견인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재당시기 최치원 최고의 막역지기는 顧雲이다. 그는 長安, 溧水縣尉, 淮南 幕府 등 최치원의 재당시기 16년의 행적과 맞닿아 있다. 아울러 문학면의 淵源과 類似性 그리고 道家적 生活面貌에도 상호 깊은 영향을 미쳤다.

또한, 詩友로는 晚唐의 대표적인 시인인 羅隱과 杜荀鶴 등이 있다. 그는 羅隱과 杜荀鶴 등과 출신과 연령을 초월한 우의를 나누었으며, 문학 창작면에서 상호 깊은 영향 하에 일정한 연원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더욱이 裴瓚과 高駢은 재당시기 최치원의 재능을 인정한 지음이자 환로를 주선한 후견인으로서, 지위와 연령을 초월하여 상호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苦樂과 시문을 함께한 인물이다. 顧雲은 재당시기의 최치원의 지음이자 막역지기로서 재당시기 최치원의 행적은 물론 시문과 사상면에서 깊은 영향을 미쳤다. 또한 池州 출신인 그는 최치원과 池州詩人(安徽省, 徽籍詩人)과의 관계 형성 그리고 羅隱과 杜荀鶴 등 著名晚唐 저명시인과의 교유의 매개자로서, 崔致遠 문학세계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헌기록을 통해서 崔致遠이 재당시기 詩로써 和暢한 인물은 高駢, 顧雲, 張喬 등 3인 만을 파악할 수 있다. 이같은 자료 부족으로 인하여 문인 상호간의 연원과 영향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근래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崔致遠을 중심으로 韓中 交流 文化史에 대한 연구가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한 분석을 통한 동아시아에서 공동어문학이 형성되던 만당시기 한중 문인간의 전개된 문화 교류의 면모가 보다 명확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

中文提要

汉字文化圈是指东亚晚唐时期汉诗文化传入韩国和日本后共同语语言文学的形成时期。像黄巢檄文, 川梓歌句得到肯定一样, 崔致远多种体裁的文学创作, 使其成为韩中日文化交流的开山鼻祖。崔致远在唐14年期间, 开展了丰富多彩的文学活动, 并因此闻名于世。同时他对8-9世纪东亚共同语语言文学的形成做出了巨大的贡献。

在唐期间, 他与35位晚唐文人共同交流, 他的好友包括官僚、幕僚和诗友。官僚有裴瓚、李蔚、李筌、于慎微、裴拙等, 幕僚有高駢、顾云还有诗友罗隐和杜荀鹤。裴瓚是崔致远的恩门、而座主和门生之关系, 崔致远对裴瓚宾贡及第, 溧水县卫担任等早年仕途之路带来了很大的影响。高駢是崔致远之知音, 他非常欣赏崔致远的文采, 并通过掌管年赋等工作, 使其运用黄巢檄文等丰富的铭文等形式, 达到文学的全盛期, 声名远播天下。当然他和晚唐的著名诗人高隐和杜荀鹤的友谊从文学创作层面上讲也有一定的渊源。

崔致远最亲密的朋友是裴瓚、高駢和顾云, 裴瓚和高駢很欣赏崔致远的才能, 作为崔致远的推荐人, 他们的地位和年龄都在崔致远之上, 但是他们互相尊敬, 互相信赖, 同甘共苦, 共同吟诗作对。高云是崔致远的知音和知己, 他对崔致远在唐时期的行迹、诗文及思想都给予了很大的影响。并且, 作为地主文人出身的中心人物, 崔致远与张教、杜荀鹤等地主诗人是就籍诗人的关系。崔致远作为在唐时期教谕的核心, 其文学思想在宦官之路, 教谕等各个方面发挥了举足轻重的作用。

關鍵詞：漢字文化圈, 共同語文學, 晚唐, 黃巢檄文, 千載佳句, 高駢, 顧雲, 羅隱, 杜荀鶴, 池州詩人

참고 문헌

- 崔濬玉 編, 『國譯孤雲先生文集』 上·下(桂苑筆耕集), 孤雲先生文集編纂會, 寶蓮閣, 1982.
1. 孤雲學會, 『孤雲學報』 2003 창간호, 2003. 5.
 2. 한국사학회, 『신라 최고의 사상가 최치원 탐구』,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도서출판 주류성, 2001.2.
 3. 이혜순, 『우리 한문학사의 새로운 조명』, 집문당, 1999. 3.
 4. 허경진, 『孤雲 최치원시선』, 평민사, 1999. 8.
 5. 이재운, 『崔致遠 연구』, 백산자료원, 1999. 4.
 6. 최치원, 『경학수장』, 맑은소리, 2002. 10.
 7. 최영성, 『崔致遠全集』 1·2, 아세아문화사, 1999. 5.
 8. 金重烈, 『崔致遠 文學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3. 11.
 9. 金重烈, 〈孤雲文學에 대한 諸家の 評價攷(1)〉, 『논문집』 9집, 군산대학교, 1984
 10. 金重烈, 〈孤雲文學에 대한 諸家の 評價攷(2)〉, 『논문집』 11집, 군산대학교 1985
 11. 金重烈, 〈崔孤雲文學의 比較文學的 研究〉, 『논문집』 13집, 군산대학교 1986
 12. 구본기, 〈최치원의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한국한시학회, 1995
 14. 黨銀平·閔庚三, 〈東國文學之祖崔致遠與唐末文人交游考述〉, 『中國語文論叢』, 중국어문연구회, 2003
 15. 權錫煥, 〈韓·中中世知識疏通1之研究〉-以崔致遠的空間認識爲中心-, 『중국문학연구』, 한국중문학회, 2002.
 16. 柳晟俊, 〈論晚唐羅隱與新羅崔致遠詩的關係〉, 『國際中國學研究』, 한국중국학회, 2000
 17. 高國藩, 〈論崔致遠的詩〉, 『國際中國學研究』 創刊號, 한국중국학회, 1999.
 18. 高國藩, 〈崔致遠과 韓中文化交流〉, 『아시아문화』,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9.
 19. 柳晟俊, 〈崔致遠과 羅隱의 시 비교〉, 『동방문학비교연구총서』, 한국동방문학비교연구회, 1997.
 20. 閻 琦, 〈新羅詩人 崔致遠〉, 『민족문화논총』,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3
 21. 金福順, 〈崔致遠과 崔承老〉, 『경주사학』, 경주사학회, 1992.

關於崔致遠的奉使入唐問題

中國揚州崔致遠紀念館 余國江

一、崔致遠奉使入唐的相關記載

崔致遠奉使入唐一事，見於《三國史記》卷四十六本傳。作為本文討論的起點，茲不憚煩冗，轉引如下：

唐昭宗景福二年，納旌節使、兵部侍郎金處誨沒於海，卽差樞密郡太守金峻爲告奏使。時致遠爲富城郡太守，祇召爲賀正使。以比歲饑荒，因之盜賊交午，道梗不果行。其後致遠亦嘗奉使如唐，但不知其歲月耳。故其文集有《上太師侍中狀》，云：“……今某儒門末學，海外凡材，謬奉表章，來朝樂土，凡有誠懇，禮合披陳。伏見元和十二年，本國王子金張廉風飄至明州下岸，浙東某官發送入京。中和二年，入朝使金直諒爲叛臣作亂，道路不通，遂於楚州下岸，遷迤至揚州，得知聖駕幸蜀，高太尉差都頭張儉監押送至西川。已前事例分明。伏乞太師侍中俯降臺恩，特賜水陸券牒，令所在供給舟船熟食及長行驢馬草料，並差軍將監送至駕前。”此所謂太師侍中，姓名亦不可知也。¹⁾

文中明確記載了崔致遠歸國後曾作爲賀正使準備入唐，因爲盜賊阻路而未能成行。其後又有奉使入唐之事，且寫有《上太師侍中狀》，不過具體時間不明。

可以爲此輔證的是崔致遠的“桂苑行人”、“桑丘使者”之號。《大華嚴宗佛國寺毗盧庶那文殊普賢像贊並序》云：“於是求虎頭妙手，寫螺髻睟容。……有來爲桂苑行人、去作桑丘使者致遠，承命揚言而贊之”，文末署名“桂苑行人崔致遠”。²⁾又，《上宰國戚大臣等奉爲憲康大王結華嚴經社願文》署名“桂苑行人崔致遠”，《有唐新羅國兩朝國師教謚大朗慧和尚白月葆光之塔碑銘並序》（《白月葆光塔碑》）云：“桂苑行人、侍禦史崔致遠”，《王妃金氏爲考繡釋迦如來像幡贊並序》署名“桑丘使者崔致遠”。³⁾“桂苑”代指揚州，“行人”即使者，“桑丘”代指新羅。⁴⁾從“來爲桂苑行人、去作桑丘使者”的記載看，崔致遠以淮南入新羅使者的身份回國後，又曾作爲新羅使者出使唐朝。

此外，崔致遠所作《有唐新羅國故鳳岩寺教謚智證大師寂照之塔碑銘並序》（《智證大師碑》）署名爲“入朝賀正兼延奉皇花等使、朝請大夫、前守兵部侍郎、充瑞書院學士、賜紫金魚袋臣崔致遠”。頗多研究者認爲“入朝賀正兼延奉皇花等使”的結銜與崔致遠“不知其歲月”的奉使入唐一事有關。

二、以往的研究成果及再檢討

1) [高麗]金富軾《三國史記》卷四十六，近澤書店，昭和十六年（1941），頁465-466

2) 崔瀆玉編《國譯孤雲先生文集》（下），（韓國）寶蓮閣，1982年，頁293-294。

3) 崔瀆玉編《國譯孤雲先生文集》（下），分見頁312、145、302。

4) “桂苑”和“行人”在古代文獻中都有多重含義，本文選擇“揚州”和“使者”的理解。“桂苑”指揚州，可由《桂苑筆耕集》中“揚都粵壤，桂苑名區”之句證實。“行人”作使者解，可以參見《管子·侈廢》（行人可不有私）尹知章注，也正與“桑丘使者”同義相對。“桑丘”代指新羅，如《東文選》卷一百十二《祖師禮懺兼發願文》：“泊九峰列派於桑丘，抑五葉連芳於松嶠”。桑丘也是中國戰國時代的地名，不過崔致遠“桑丘使者”顯然與之無關。

研究者對崔致遠第一次未能成行的奉使之事沒有疑義。有爭議的是其後“不知其歲月”的第二次奉使入唐。樊文禮、梁太濟對這一問題做過考證，要點有二。第一，崔致遠《智證大師碑》結銜為“入朝賀正兼延奉皇花等使、朝請大夫、前守兵部侍郎、充瑞書院學士、賜紫金魚袋臣崔致遠”。碑文中提到唐朝對新羅景文王、憲康王的太師、太傅贈官，冊贈一事發生於唐乾寧四年（897），因此碑文的開始撰寫不可能早於897年。由碑文中“將諧汗漫之遊”和“影伴八冬”推知碑文最後定稿不會早於906年。崔致遠所撰《唐大薦福寺故寺主翻經大德法藏和尚傳》的結銜中有“朝請大夫”之職，該傳寫成於唐天福四年（904），而《智證大師碑》的結銜亦有“朝請大夫”，由此推知崔致遠奉使入唐在904年至唐朝滅亡的907年之間。第二，《三國史記》錄有《上太師侍中狀》，通過對904年至907年間唐朝平盧、淮南、浙東三地形勢和人事的綜合考察，符合太師侍中身份的只有浙東錢鏐，所以崔致遠應該是由浙東登岸入唐。⁵⁾

方曉偉也對這一問題進行了考證，認為崔致遠於唐景福二年（893）底至乾寧元年（894）初奉使入唐。所據除了以上史料外，還有高麗李仁老《破閑集》收錄的顧雲（？-894年）贈別詩《孤雲篇》和崔致遠《旅次唐城，有先王樂官將西歸，夜吹數曲，戀恩悲泣，以詩贈之》、《泛海》兩詩。方氏根據《智證大師碑》中“影伴八冬”之語認為此碑作於893年，此時崔致遠為“入朝賀正兼延奉皇花等使”；而顧雲894年卒於長安虞部員外郎任上，既然有贈崔致遠的送別詩，則崔致遠奉使入唐只能在893年至894年間。又認為淄青平盧節度使兼押新羅渤海兩蕃使，崔致遠作為新羅使者，登岸後應該至青州中領過所，由此推斷太師侍中為淄青平盧節度使崔安潛。⁶⁾

韓國學者張日圭認為《上太師侍中狀》與李克用有關。895年8月，河東節度使、檢校太傅、同平章事李克用守太師兼中書令，充邠寧四面諸軍行營都統。張氏認為崔致遠奉使應經過李克用治下區域。又由於897年6月崔致遠代真聖女王撰有《讓位表》，所以奉使入唐只能在895年8月至897年6月間，《上太師侍中狀》也作於此時。⁷⁾

以上的考證都存在可商榷之處。首先看方曉偉補充舉證的三首詩。顧雲贈別詩一條，《破閑集》云：

文昌公崔致遠，字孤雲，以賓貢入中朝擢第，遊高駢幕府。時天下雲擾，簡檄皆出其手。及還鄉，同年顧雲賦《孤雲篇》以送之，云：“因風離海上，伴月到人間。徘徊不可住，漠漠又東還。”公亦自敘云：“巫峽重峰之歲，絲入中華；銀河列宿之年，錦還故國。”⁸⁾

從文意看，這首詩是崔致遠從揚州返回新羅時顧雲所贈，雖然有“又東還”三字，但意謂來而又去，非指再次。崔致遠自敘之語中，巫峽重峰之歲即十二歲，銀河列宿之年即二十八歲，正與崔致遠十二歲入唐求學、二十八歲從揚州回到新羅的經歷吻合。所以這首詩不能作為崔致遠歸國後再次入唐的證據。而且更重要的是，這首詩實際上與顧雲、崔致遠都無關。《文苑英華》卷一五六收有于武陵《孤雲》詩：

南北各萬里，有雲心更閑。因風離海上，伴月到人間。洛浦少高樹，長安無舊山。徘徊不可駐，漠漠又東還。

9)

此詩也見於《王荊公唐百家詩選》、《全唐詩話》、《全唐詩》等書，文字或有小異，而作者均為于武陵；不見於《貴池先哲遺書·顧雲詩》¹⁰⁾。據《唐才子傳》，于武陵“大中時嘗舉進士”，故知其為唐宣宗（847-860）時人¹¹⁾

5)梁太濟《崔致遠及其筆下的唐和新羅關係》，見《中國江南社會與中韓文化交流》，杭州出版社，1997年，99-100頁。樊文禮、梁太濟《崔致遠再次踏上唐土的時間和地點》同持此論，所論更詳，見金健人主編《韓國研究》（第四輯），學苑出版社，2000年，頁96-109。

6)方曉偉《崔致遠思想和作品研究》，廣陵書社，2007年，頁43-47、275-277。

7)張日圭《崔致遠的社會思想研究》，（韓國）新書苑，2008年，頁427-432。

8)[高麗]李仁老《破閑集》卷中，見蔡鎮楚編《域外詩話珍本叢書》（第八冊），北京圖書館出版社，2006年，頁30-31。

9)[宋]李昉等編《文苑英華》卷一五六，中華書局，1966年，頁736。

10)陳尚君《全唐詩續拾》卷三四補輯有顧雲詩二首，一為《三國史記》卷四六所載《送崔致遠西遊將還》，一為《破閑集》所載《孤雲篇》，並疑兩詩為同一首詩之斷片。《孤雲》詩之補輯及所疑均不確。

，略早於崔致遠。又從《孤雲》詩意來看，確實是詠雲之作。《破閑集》附會為顧雲贈別詩，乃是因為詩題“孤雲”與崔致遠所號恰巧相同¹²⁾。爲了與顧雲、崔致遠送別之事相契合，《破閑集》刪去了于武陵詩的首聯和頸聯。然而若加辨析，仍有不協之處。“因風離海上，伴月到人間”，“徘徊不可住”，指浮雲則可以，指崔致遠渡海入唐則並不妥帖；從唐朝與新羅的關係而言，也不會以“人間”指代大唐，以“海上”指代新羅。¹³⁾

崔致遠的兩首詩，《旅次唐城，有先王樂官將西歸，夜吹數曲，戀恩悲泣，以詩贈之》云：

人事盛還衰，浮生實可悲。誰知天上曲，來向海邊吹。水殿看花處，風櫺對月時。攀髯今已矣，與爾雙淚垂。

這是崔致遠在新羅唐恩浦（唐城）遇到先王樂官的贈詩，並沒有提及與奉使入唐有關的內容。《泛海》云：

掛席浮滄海，長風萬里通。乘槎思漢使，采藥憶秦童。日月無何外，乾坤太極中。蓬萊看咫尺，吾且訪仙翁。

據《三國史記》本傳記載：

致遠自西事大唐，東歸故國，皆遭亂世，屯遭蹇連，動輒得咎，自傷不偶，無復仕進意，逍遙自放。山林之下，江海之濱，營臺榭，植松竹，枕藉書史，嘯詠風月。¹⁴⁾

依《泛海》“蓬萊看咫尺，吾且訪仙翁”詩意，更可能是這一時期逍遙自放於江海之濱的作品。無論如何，不能看出這兩首詩與崔致遠奉使入唐有關。

其次是對《智證大師碑》的理解。碑文中稱“贈太師景文大王”、“贈太傅獻康大王”，據崔致遠代孝恭王所作《謝恩表》，新羅得知唐追贈景文王太師和憲康王（金暿）太傅之事在唐乾寧四年（897年）七月後。¹⁵⁾樊文禮、梁太濟據此認為崔致遠作《智證大師碑》的時間不可能早於897年。關於這一點，崔致遠《大華嚴宗佛國寺毗盧庶那文殊普賢像贊並序》云：“畫像者，贈太傅獻康大王”，此贊文末尾有明確寫作日期“光啓丁未正月八日¹⁶⁾”，光啓丁未年即887年。而崔致遠代眞聖女王所作《謝賜詔書兩函表》亦云：“臣亡兄贈太傅臣暿，生知老教，雅善秦言”，¹⁷⁾此表的撰寫在眞聖女王禪位（乾寧四年六月）前。由此推而言之，根據《智證大師碑》中“贈太師景文大王”、“贈太傅獻康大王”而認為碑文寫作時間不早於897年，有失妥當。

樊文禮、梁太濟和方曉偉又考證了太師侍中其人，所得分別為錢鏐和崔安潛。然而據《資治通鑑》：乾寧二年（895），“加鎮海節度使錢鏐兼侍中”，《新五代史》：光化元年（898），“移鎮海軍於杭州，加鏐檢校太師”，可知錢鏐任檢校太師兼侍中是在898年。此年正月，崔致遠作《新羅伽伽山海印寺結界場記》，夏天有贈希朗和尚詩，十一月因罪免官，不久歸隱¹⁸⁾，似乎不曾入唐。而崔安潛被唐昭宗任命為平盧節度使，《新唐書》載：（龍紀元年

11)關於于武陵的詳細考證，可以參見傅璇琮主編《唐才子傳校箋》（第三冊）“于武陵”條（梁超然撰寫），中華書局，1990年，頁424-428；《唐才子傳校箋》（第五冊補正）“于武陵”條（陳尚君撰寫），中華書局，1995年，頁412-414。

12)將提及“孤雲”的詩附會為和崔致遠有關，還有一例，見於高麗李奎報《白雲小說》：“崔致遠孤雲有破天荒之大功，故東方學者皆以為宗。其所著《琵琶行》一首載於《唐音遺響》，而錄以為無名氏，後之疑信未定。或以‘洞庭月落孤雲歸’之句證為致遠之作，然亦未可以此為斷。”《琵琶行》詩亦見於《全唐詩》卷七八五，題為《琵琶》，作者無名氏。全詩極力鋪陳琵琶的感染力，以“滿坐紅妝盡淚垂，望鄉之客不勝悲。曲終調絕忽飛去，洞庭月落孤雲歸”作結，顯然“孤雲”與崔致遠毫無關係。後之“或以‘洞庭月落孤雲歸’之句證為致遠之作”者，即穿鑿附會也。

13) 補注：2014年7月，筆者拜讀了韓國學者李黃振《顧雲贈崔致遠的詩〈孤雲篇〉真偽考辨——兼談中韓研究史中關於〈孤雲篇〉和崔致遠再入唐時間的論及》（韓國首爾大學《人文論叢》第65輯，2011年），該文也認為《孤雲篇》乃是子虛烏有的偽作，因此不能以《孤雲篇》作為考證崔致遠再入唐的線索或根據，也不能用以考究崔致遠的生平。其說甚是。本文初次發表時未能加以引用李氏此文，十分遺憾。

14) [高麗]金富軾《三國史記》卷四十六，頁466。

15) 崔潛玉編《國譯孤雲先生文集》（下），頁95-96。

16) 崔潛玉編《國譯孤雲先生文集》（下），頁293-294。

17) 崔潛玉編《國譯孤雲先生文集》（下），頁105。

，889）“青州王敬武卒，詔拜（崔安潛）平盧節度使，檢校太師兼侍中。會敬武子師範專地，不得入而還。”《資治通鑑》所記更詳：“（龍紀元年）冬十月，平盧節度使王敬武薨。子師範，年十六，軍中推為留後，棣州刺史張蟾不從。詔以太子少師崔安潛兼侍中，充平盧節度使。蟾迎安潛至州，與之共討師範”，大順二年（891）二月，“師範慰諭士卒，厚賞重誓，自將以攻棣州，執張蟾，斬之。崔安潛逃歸京師”。崔安潛以太師侍中身份為平盧節度使，事在889-891年間，且因王師範拒納而未入青州。這與方氏所考崔致遠奉使入唐在893年至894年間相互矛盾。

李克用有太師侍中之銜，然其主要統治區域為河東，並非進入兩京的必經之道。據《資治通鑑》，光啓三年（887）六月，“罕之據河陽，全義據東都，共求援於河東。李克用以其將安金俊為澤州刺史，將騎助之，表罕之為河陽節度使，全義為河南尹。”此時李克用對東都洛陽也應有一定影響力。不過次年張全義即投向朱溫，繼續為河南尹，保有洛陽約二十年。由此無法窺知崔致遠奉使途中會與李克用有所交往。

三、崔致遠奉使入唐之事再考

以往的考證雖然存在問題，但卻留下了很多啓示。在此基礎上，我想提出自己的看法。首先，《智證大師碑》與崔致遠第二次奉使入唐無關。《智證大師碑》敘述碑文的寫作緣起和過程，云：

賜諡智證禪師，塔號寂照，仍許勒石，俾錄狀聞。……至乙巳歲，有國民媒儒道，嫁帝鄉，而名掛輪中，職攀柱下者，曰崔致遠，捧漢後龍緘，齋淮王鵠幣，雖慚鳳舉，頗類鶴歸。上命陪臣清信者陶竹陽授門人狀，賜手教曰：“縷褐東師，始悲西化。繡衣西使，深喜東還。不朽之為，有緣處至。無恠外孫之作，將酬大士之慈。”臣也雖東箭非材，而南冠多幸。方思運斧，遽值號弓。……每憂傷手，莫悟伸拳。……影伴八冬，言資三復¹⁸⁾。

乙巳歲即中和五年（885），此年崔致遠由唐朝返回新羅，受憲康王之命撰寫智證大師碑文，次年正準備開始寫作時憲康王去世（號弓），又由於碑文寫作難度很大，所以崔致遠經過八年時間反復修改，才在893年底最終完成。而《三國史記》本傳明確記載893年崔致遠被召為入唐賀正使，雖然未能成行，不過崔致遠已經任賀正使等官職，所以在《智證大師碑》中以“入朝賀正兼延奉皇花等使”為結銜，於情理可通。這一結銜反映的是此年未能成行的賀正之事，與此後“不知其歲月”的奉使之事沒有關係。

其次，《上太師侍中狀》云：“今某儒門末學，海外凡材，謬奉表章，來朝樂土，凡有誠懇，禮合披陳。”基本可以排除該狀文是崔致遠代他人所作的可能性。如果確實如《三國史記》所載，除了893年未能成行的一次賀正外，崔致遠還曾出使唐朝，而且到達唐朝後寫作了《上太師侍中狀》，那麼此次出使必須符合如下的三個條件：出使唐朝往返需要頗長時間，崔致遠應有數月乃至數年時間不在新羅國內²⁰⁾；抵達唐朝某地區，其長官任太師侍中，這個地區既可能是登陸的平盧、淮南、浙東等沿海區域，也可能是登陸後“至駕前”所要途經的某地區；此次出使遇到特殊情況，需要上書太師侍中，請求按照以往特殊的舊例監送至駕前。以此標準翻檢史籍，發現較可能的情況是，崔致遠於乾寧三年（896）至四年（897）間出使唐朝，太師侍中為朱溫。

根據相關史料，可以推知崔致遠回到新羅後的大致行跡。中和五年（885）起任侍讀兼翰林學士等職，至光啓三年（887）年出為富城郡太守，十一月撰《王妃金氏為先考及亡兄追福施穀願文》，大順元年（890）為泰山郡太守，撰《白月葆光塔碑》。這數年間，崔致遠在地方郡守任上，且與《三國史記》所記奉使之事在景福二年（893）以後這一點不符。乾寧二年（895）七月撰《海印寺妙吉祥塔記》，四年（897）六月代眞聖女王撰《讓位表》，其間一年有餘，行跡不詳，乾寧五年（898）年正月撰《新羅伽伽山海印寺結界場記》，夏天贈希朗和尚詩，十一月

18)參見方曉偉《崔致遠思想和作品研究》，頁280-281。

19)[新羅]崔致遠著、李佑成校譯《新羅四山碑銘》，（韓國）亞細亞文化社，1995年，頁89-92。

20) 補注：根據權憲永《古代韓中外交史——遣唐使研究》，新羅使者從慶州至長安，經北路登州道，往返需要六個月；經南道水路，往返需五至六個月。（轉引自拜根興《〈古代韓中外交史——遣唐使研究〉評介》，載《唐朝與新羅關係史論》，頁297。）當然這是非常順利的情况。如崔致遠從揚州返回新羅，中和四年（884）秋出發，中和五年春三月抵達，單程即長達半年。

被免職，不久吟風嘯月，歸隱終老²¹⁾。從時間上看，乾寧二年七月至四年六月間有出使的可能。

又，關於朱溫，《舊唐書》載：中和三年（883）五月，“以檢校尚書右僕射、華州刺史、潼關防禦等使朱溫檢校司空，兼汴州刺史、禦史大夫，充宣武節度觀察等使”。《舊五代史》載：文德元年（888），“昭宗制以帝檢校侍中，增食邑三千戶”，大順元年（890）六月，“命帝為宣義軍節度使，充河東東面行營招討使”，乾寧三年（896），“遣使就加帝檢校太師，守中書令”。至此時，朱溫有檢校太師、侍中之銜，而其轄下的宣武、宣義軍分別治於汴州、滑州，為運河和黃河的重要樞紐。新羅使者無論從山東或江南登陸，必經過其中一處入朝。

又，據《資治通鑑》記載：乾寧三年（896）七月，為避李茂貞之亂，唐昭宗“至華州，以府署為行宮；……茂貞遂入長安”，光化元年（898）八月，“車駕發華州，壬戌，至於長安”。其間兩年多的時間，昭宗以華州為行在，政局十分混亂。

綜合以上三方面情況，可以作一推測：崔致遠奉使抵達唐土以後，經由太師侍中朱溫治下的汴州或滑州入朝。因為李茂貞作亂，昭宗暫居華州，事態非常，所以崔致遠上書朱溫，請求按照以往特殊情況下的舊例處理，“特賜水陸券牒，令所在供給舟船熟食及長行驢馬草料，並差軍將監送至駕前”。這種推測，與《三國史記》等記載以及唐末的政治形勢皆能吻合。

四、結語

如果筆者的上述推測能夠成立，那麼無疑將使崔致遠回國後的行跡更加清晰，其在唐與新羅兩國交往史上的重要地位也將愈加突出。而且，當我們把視野擴大到整個中古時期東亞各國間的互動交流，崔致遠的經歷和思想所具有的代表性和國際性也就更顯獨特。

崔致遠生於新羅，入唐求學，中賓貢進士後在唐入仕。回到新羅後，積極傳播唐文化，對朝鮮半島的儒學、佛教、道教、風流道都產生了較大的影響，可謂新羅晚期思想文化的集大成者。而他先是作為淮南入新羅的使者——“桂苑行人”，後又兩次作為新羅入唐的使者——“桑丘使者”，在唐與新羅兩國間扮演了穿針引線的角色。這種在政治、文化兩方面都成為交流使者，並在兩國都留下重要影響的特例，唯有孤雲崔致遠。作為中古時期東亞的“國際人”，崔致遠的價值就在於此。

21) 崔致遠歸國以後的情況，可以參見方曉偉《崔致遠思想和作品研究》，頁269-284。其中，崔致遠代新羅王撰《起居表》，時間為897年或898年正月，方氏因無法詳細考證，姑系於897年。不過無論是哪一年，都不影響本文之討論。

최치원 봉사입당(奉使入唐) 문제에 관하여(요약본)

중국양저우기념관 위 귀 장

1. 최치원 봉사입당과 관련된 기록

최치원이 사명을 받들어 입당한다는 기록은 『삼국사기』 권46에 나왔다. 거기에는 최치원이 귀국하고 나서 사명을 받들어 입당한다는 일이 두 번이나 있었다고 명확하게 기록된 바 있다. 첫번째는 하정사(賀正使)로 당나라에 가려다가 도적을 만난 탓에 포기하고 말았다. 두번째는 「상태사시중장(上太師侍中狀)」을 올려 태사시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간은 불분명하다.

최치원이 '계원행인(桂苑行人)', '상구사자(桑丘使者)'란 호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최치원은 회남에서 사신으로 신라에 귀국한 후, 다시 신라의 사신으로 당나라를 방문하였다.

그밖에 최치원 「지증대사비(智證大師碑)」의 서명을 보면 '입조하정사겸 연봉황화 등 사(入朝賀正兼延奉皇花等使), 조청대부(朝請大夫), 전수병부시랑(前守兵部侍郎), 충서서원학사(充瑞書院學士), 사자금어대신 최치원(賜紫金魚袋臣崔致遠)'으로 되어 있었다. 많은 학자들이 '입조하정사겸연봉황화등사(入朝賀正兼延奉皇花等使)'란 직함은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는' 두번째 봉사입당과 연관있다고 주장한다.

2. 기존 연구 성과 재검토

학자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최치원의 첫번째 봉사 입당 방문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나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는' 두번째 봉사입당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필자가 접한 견해로는 대개 세 가지 있다.

먼저 량타이지(梁太濟), 관원리(樊文禮)의 관점을 살펴보자. 요점은 두 가지다. 첫째, 최치원 「지증대사비(智證大師碑)」의 비문에는 당나라에서 신라 경문왕, 헌강왕에게 태사(太師), 태부(太傅)라는 직함을 증관(贈官)하였다는 이야기를 언급하였는데 이 책증(책명하여 증직함)은 당건녕4년(唐乾寧四年:897)에 벌어진 일이니 비문을 쓰기 시작한 시간은 897년보다 더 이룰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멀리 간 여행을 끝내고(將諧汗漫之遊)'와 '그림자만 8년동안 따라 다녔다(影伴八冬)'는 비문 내용으로 봐서 최종 원고를 마무리한 시간은 906년보다 더 빠를 수 없다. 당천복4년(唐天福四年:904)에 완성된 최치원의 「법장화상전(法藏和尚傳)」에는 '조청대부(朝請大夫)'라는 결함(結銜)이 나왔다.

나아가 「지증대사비(智證大師碑)」의 결함에도 '조청대부(朝請大夫)'가 보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최치원이 사명을 받들어 입당한 것은 904년에서 당나라가 멸망한 907년 사이의 일임을 추정할 수 있다. 둘째, 904년에서 907년 사이 당나라 평로(平盧), 회남(淮南), 절동(浙東) 등 세 군데의 지방 사정과 인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바로 태사시중(太師侍中) 신분에 부합한 자는 오직 절동 전류(錢鏐)뿐이다. 그러므로 최치원은 절동으로 상륙하여 입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견해와 관련하여, 최치원이 건녕4년(897) 이전에 쓴 글에도 '헌강왕을 책증하여 태부로 삼고(贈太傅獻

康大王), '신정을 책증하여 태부로 삼는다(贈太傅臣晟)'고 언급된 바 있었다. 그러나 「지증대사비(智證大師碑)」에 언급된 증호(贈號)만을 가지고 비문 작성 시간이 897년보다 이를 수 없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량타이지(梁太濟), 판원리(樊文禮)에 따르면 '태사시중(太師侍中)'은 전류(錢鏐)다. 그러나 『자치통감(資治通鑑)』과 『신오대사(新五代史)』의 기록에 의하면 전류(錢鏐)가 검교태사겸시중(檢校太師兼侍中)으로 재임한 시기는 898년이다. 그해에는 최치원은 「신라가야산해인사결계장기(新羅伽倻山海印寺結界場記)」를 지었으며 여름에 희랑화상에게 시를 보내기도 했다. 그리고 그해 11월엔 죄로 면직되었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은퇴하였다. 그 사이에 입당한 적이 없는 듯하다. 광샤오위(方曉偉)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찰한 바 있다. 그는 최치원이 당경복 2년(唐景福二年893)말에서 건녕원년(乾寧元年894)초 사이에 사명을 받들어 입당했다고 본다. 그 근거로는 앞에서 언급한 역사 자료 말고는 고운(顧雲)(?-894)이 지은 증별시 「고운편(孤雲篇)」과 최치원의 시 두 편도 있었다. 그는 「지증대사비(智證大師碑)」란 비문 중의 '그림자만 8년동안 따라다녔다(影伴八冬)'는 내용에 근거하여 이 비문은 893년에 만들어졌다고 주장하였다. 고운이 894년에 장안오부 원외랑(長安虞部員外郎) 재임 중에 죽었으니 최치원이 봉사입당의 시간은 오직 893년에서 894년 사이에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치원이 신라사신으로서 마땅히 청주(靑州)에 가서 과소(過所)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에서 태사시중(太師侍中)이 치청평로절도사 최안잠(淄靑平盧節度使崔安潛)임을 주장하였다.

고운 증별시의 내용으로 봤을 때 최치원이 양저우에서 신라로 돌아갈 때의 작품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최치원이 귀국하고 나서 다시 당나라로 되돌아오는 증거로 볼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이 시는 최치원보다 좀 더 이른 시기에 살았던 우무릉(于武陵)의 작품이나 고운이나 최치원과 무관한 일이다. 나머지 최치원의 시 두 편에도 봉사입당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

한편 광샤오위는 태사시중(太師侍中)이 최안잠(崔安潛)이라고 주장하는데 『신당서(新唐書)』와 『자치통감(資治通鑑)』의 기록에 의하면 최안잠이 태사시중의 신분으로 평로절도사로 취임한 시기는 889-891년간의 일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왕사범(王師範)의 거절로 청주에 가지 못했다. 이는 최치원이 893년에서 894년 사이에 봉사입당하였다는 광씨의 주장과는 모순이 된다.

한국학자 장일규는 「상태사시중장(上太師侍中狀)」이 이극용(李克用)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895년8월, 하동절도사(河東節度使), 검교태부(檢校太傅), 동평장사(同平章事) 이극용 수태사겸중서령(守太師兼中書令)이 빈녕사면제군행영도통(邠寧四面諸軍行營都統)을 담당하였다. 장일규 학자는 최치원이 입당하는 데 이극용의 관할 지역을 거쳐야 했다고 주장한다. 897년6월에 최치원이 진성여왕을 대신하여 「양위표(讓位表)」를 지었는데 봉사입당하는 것은 895년8월에서 897년6월 사이의 일일 수밖에 없다.

「상태사시중장(上太師侍中狀)」도 역시 이 시기에 완성되었다. 태사시중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 이극용은 그의 주된 관할 지역이 하동이다. 이곳은 양경(兩京)에 가는 데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아니다. 그리고 최치원이 봉사입당하는 도중에 이극용과 왕래한 것을 입증해 줄 만한 증거도 없다.

3. 최치원 봉사입당 사건 재고찰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한 필자의 추측을 제시하겠다. 우선 「지증대사비(智證大師碑)」가 최치원의 두번째 입당과는 관련 없다고 본다.

『삼국사기(三國史記)』본전에는 893년 최치원이 입당하정사로서 피소되었다는 기록이 명확히 나와 있다. 비록 끝내 가지는 못했으나 최치원이 하정사라는 관직을 맡게 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지증대사비(智證大師碑)」에는 '입조하정겸연봉황사등사'를 결함으로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이다. 이 결함은 그해 당나라로 떠나지 못하였다는 하정(賀正)의 일이 그후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는' 두번째 봉사입당 사건과는 관련이 없음을 말해 준다.

그 다음에는 「상태사시중장(上太師侍中狀)」을 보면 이 장문(狀文)이 최치원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지은 것이 아님을 대체로 확정할 수 있다. 만약 최치원이 확실히 두번째로 사신으로 당나라를 방문하였고 당나라에 가서 「상태사시중장(上太師侍中狀)」를 작성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했을 것이다. (1)당나라에 다녀오는 것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최치원이 몇달 내지 몇년 동안 신라에 없어야 했다; (2) 당나라의 어느 곳에 도착했는데 그 지방의 장관이 대사시중을 재임하고 있어야 했다. 그 곳은 상륙한 평로, 회남, 절동 등과 같은 연해지역일 수 있고, 상륙 후 ‘가전(駕前)’까지 가는데 거쳐야 할 어떤 지역일 수도 있다; (3)이번 방문은 특별한 상황을 부딪쳤는데 대사시중께 장문을 올려 기왕 특별한 상황이 생겼을 때 해주던 것처럼 가전(駕前)까지 감송(監送)해달라고 했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사적 자료를 훑어보면 최치원이 건녕3년(乾寧三年:896)에서 4년(897) 사이에 당나라에 방문하였으며 대사시중은 주운(朱濫)일 가능성이 높다. 관련 자료를 통해 최치원이 신라로 돌아간 후의 행적을 추정할 수 있다. 건녕2년(乾寧二年:895) 7월, 「해인사묘길상담기(海印寺妙吉祥塔記)」를 지었다.

4년(四年:897) 6월에 진성여왕 대신에 「양위표(讓位表)」를 작성하였다. 그 중에서 일년여 동안 행방이 묘연했다가 건녕5년(乾寧五年:898) 정월에 「신라가야산해인사결계장기(新羅伽耶山海印寺結界場記)」를 지었고 여름에 회랑화상에게 시를 보냈다. 그리고 그해 11월엔 면직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은퇴하였다. 시간상으로 봤을 때 건녕2년(乾寧二年)7월에서 4년 6월 사이, 그 기간에 봉사입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주운과 관련하여, 『구오대사(舊五代史)』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된 바 있다. 문덕원년(文德元年:888) ‘소종(昭宗)이 제검교시중(帝檢校侍中)으로 임명하였고(昭宗制以帝檢校侍中)’, 건녕3년(乾寧三年:896) ‘사신을 보내 가제검교시중(帝檢校侍中), 수중서령(守中書令)으로 임명하였다.’

그때까지 주운은 검교태사(檢校太師),시중(侍中)의 직함을 가졌다. 그가 이끄는 선무군(宣武軍), 선의군(宣義軍)이 각각 운하(運河)와 황하(黃河)의 중요한 도시인 변주(汴州), 활주(滑州)를 다스렸다. 신라 사신이 산동으로 상륙하든 강남으로 상륙하든 간에 막론하고 수도에 도착하려면 반드시 그 중의 한 군대를 거쳐야 하는 법이다.

또한 『자치통감(資治通鑑)』의 기록에 따르면 건녕 3년(乾寧三年:896)7월 이무정(李茂貞)의 난을 피하느라 당소종(唐昭宗)이 ‘화주에 와서 부서를 행궁으로 삼았다;……무정을 점령하였다.’광화원년(光化元年:898) 8월, ‘황제가 타는 수레가 황주에서 출발하여 장안에 도착했다.’ 그간 2년여 동안 소종은 화주를 행계소로 삼은 만큼 정국이 아주 혼란스러웠다.

앞의 세 가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추측을 할 수 있다. 최치원이 당나라 땅을 밟은 후 대사시중 주운이 다스리던 변주나 활주로 해서 수도에 갔다. 이무정의 난리로 소종이 임시로 화주에 도피할 만큼 사태가 아주 심각했다.그래서 최치원이 예전에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하던 것처럼 처리해달라는 장문을 주운에게 올렸던 것이다. ‘수륙 권첩(통행증)을 발급해 주시고 배편이나 먹을 음식, 말과 당나귀, 그리고 탈것들이 먹을 사료를 제공해주시며 가전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병사를 보내 주시옵소서.’이러한 추정은 『삼국사기(三國史記)』 등 역사 자료의 기록, 당 말기의 정치 상황과 일치한 것으로 보인다.

4. 결어

상술한 필자의 추정이 성립된다면 최치원이 귀국 후의 행적이 더욱 명확해진다. 뿐만 아니라 그가 당나라와 신라 두 나라의 교류사에 있는 중요한 역할도 두드러진 것이 분명하다. 바라보는 시선을 중고시대 동아시아 각국의 교류로 확대하여 볼 때, 최치원의 경력과 국제적 안목을 갖춘 그의 사상은 더욱 독특해 보인다.

신라에서 태어난 최치원은 당나라에서 유학했다가 빈공진사(賓貢進士)로 급제하고 나서 당나라에서 벼슬자리에 나갔다. 신라로 귀국한 후에도 당문화의 전파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였다. 나아가 조선반도의 유교, 불교, 도교, 풍류도에 모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의미에서 최치원은 신라만기 사상 문화를 집대성한 자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는 그가 회남에서 신라로 보낸 사신 역할을 맡은-‘계원행인’

이었고 나중에는 두 차례를 거쳐 신라에서 당나라로 보낸 사신을 맡은 ‘상구사자’였다. 그는 신라와 당나라 사이에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정치면에서나 문화면에서 모두 교류의 역할을 발휘했으며 양나라에 모두 크게 영향을 끼친 자는 오로지 고운최치원(孤雲崔致遠)뿐이었다. 중고시대 동아시아의 ‘국제인’으로서 최치원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역사속의 최치원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이재운

I. 머리말

崔致遠(857~?)은 나말의 대문호로서 또는 사상가로서 일찍부터 주목받은 인물이었다. 일찌기 신형식은 나말여초의 전환기에 있어서 두 왕조의 교량적 역할을 한 지적집단인 宿衛學生의 대표적 인물인 崔致遠의 사상적 동향속에서 고려건국의 방향을 찾는 동시에 과거제도와 같은 유교정치이념을 발견하였다.²²⁾ 이러한 주장은 학계에서 거의 받아들여져 결국 나말의 종교적 변화(3교의 통합)와 새로운 왕권강화과정에 따르는 유교정치이념 내지는 사회개혁사상으로 이어져 그의 위상정립이 가능해졌다.²³⁾ 그후 최치원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져 우선 官費 또는 私費 유학생이라는 자격문제를 비롯하여²⁴⁾ 그의 사상적 특징,²⁵⁾ 문학적 접근,²⁶⁾ 그리고 역사인식에 이르기까지²⁷⁾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그의 정치개혁사상에 따른

22) 申滢植, 「숙위학생고」(『역사교육』 11·12, 1969) p.84.

23) 李基白, 「신라통일기 및 고려초기의 유교적 정치이념」(『대동문화연구』 6·7, 1970)

成校珍, 「최고운의 도학사상」(『동양철학연구』 1, 1980)

都珖淳, 「최고운의 도교사상」(『국제불교학술회의논문집』, 1981)

崔敬淑, 「최치원 연구」(『부산사학』 5, 1981)

崔根泳, 「고운 최치원의 사상연구」(『한국사상』 19, 1982)

金福順, 「최치원의 불교관계 저술에 대한 검토」(『한국사연구』 43, 1983)

申滢植, 「최치원의 사상」(『신라사』, 1985)

柳聖泰, 「최치원의 종교관」(『한국종교』 10, 1985)

崔圭成, 「궁예정권하의 지식인의 동향」(『국사관논총』 31, 1992)

全基雄, 『나말여초의 문인지식층 연구』(부산대학위논문, 1993)

李在云, 「최치원의 유교관」(『백산학보』 46, 1996)

24) 李基東, 「신라하대의 빈공급제자의 출현과 나당문인의 교환」(『진해종박사 화갑논총』, 1979)

金世潤, 「신라하대의 도당유학생에 대하여」(『한국사연구』 37, 1982)

申滢植, 「나말여초 도당유학생 재론」(『변태섭박사 화갑논총』, 1985)

25) 金福順, 고운 최치원의 사상연구(『사총』 24, 1980)

崔根泳, 고운 최치원의 사회개혁사상(『한국사상』 18, 1981)

朴鐘根, 최치원의 정치이념과 종교관(『역사교육논집』 3, 1982)

宋恒龍, 최치원의 사상연구(『한국정신문화연구원논총』 82-2, 1982)

崔一凡, 고운 최치원의 사상연구(『동방사상논고』, 1983)

崔英成, 『최치원의 사상연구』(아세아 문화사, 1990)

26) 金文學, 최치원의 금석문학(『불교사상』 4, 1974)

金惠淑, 최치원의 시문연구(『종교학연구』 51, 1981)

宋雋鎬, 최고운 시의 위상(『동방학지』 36·37, 1983)

金重烈, 『최치원 문학연구』(고려대박사학위논문, 1984)

李九義, 『최고운의 삶과 문학』(국학자료원, 1995)

위상정립이 가능케 되었다.²⁸⁾ 이러한 연구결과 최치원은 나말의 종교적 변화[3교의 융합]를 주도한 인물이었다고, 王道政治 이념을 제시하여 고려왕조의 건설 및 왕권강화에 바탕이 된 사상가였고 이론가였음이 확인되었다.

동시에 최치원은 『帝王年代曆』을 비롯하여 고승전(『賢首傳』·『淨石尊者傳』) 등을 남긴 나말 최대의 역사가였다. 그는 불우한 현실 속에서도 역사서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중국적인 질서 속에서도 신라를 ‘海東의 중심체’로 인식하면서 자국사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뚜렷한 역사인식을 갖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신라가 중국의 동방에 치우친 나라이지만, ‘해뜨는 나라’(桑浦·桑津·鰈之鄉)로의 궁지와 동방세계의 주도자임을 강조하였고,²⁹⁾ 한국사의 체계적 정리와 제·려 양국의 정치적 강성에 따른 백제 해외경략설[遼西 및 淮河一帶進出]을 옹호해 준 장본인이었다.³⁰⁾

이에 우리는 그가 갖고 있었던 역사인식을 통해 그의 한국사관을 정리할 필요를 느낀다. 고운은 17년간의 재당생활과 활발한 교유활동 및 유교적 덕목을 익히는 과정에서 당의 사관제도를 비롯한 역사서술체제나 그 방법론을 체득하였을 것이다.³¹⁾ 동시에 허물어져 가는 신라사회를 목도하면서 왕도정치 구현에 기반이 될 자신의 경륜을 통해 구체적인 역사관을 재정립함으로써 한국전통사학의 정착과정에 기여했으리라 믿는다. 여기서 필자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그의 폭넓은 사상의 이해와 중국의 전통적인 역사인식의 바탕 위에서 성립된 최치원의 역사인식이나 사관이 한국전통사학에 준 영향과 그 위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II. 최치원의 출생과 가계

최치원이 생존하였던 시기는 혼란의 시기였다. 당에서 활약하던 시기도 황소의 난으로 당말 5대를 향해 가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그의 생애가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 고찰해 봄은 그의 사상적 측면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클 것이다.

최치원은 신라 헌안왕 1년(857)에 출생하였는데, 『삼국사기』 최치원전(32) 기록을 보면, 최치원은 王京 沙梁部 사람으로 字는 孤雲 혹은 海雲이며 諡號는 文昌侯라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출신지에 대한 기록은 다음의 여러 가지 설이 있다.

- ① 辰韓에는 옛날에 六村이 있었다. (중략) 四는 靑山珍支村이니, 촌장은 智伯虎라 하여 처음 花山에 내려와 이가 本彼部 최씨의 조상이 되었는데 지금은 通仙部라 하여 柴巴等 東南村이 이에 속한다. 최치원은 本彼部 사람이니 지금 황룡사 남쪽과 昧吞寺 남쪽의 옛터가 崔侯의 古宅임이 분명하다.³³⁾
- ② 공의 이름은 致遠이요, 字는 海夫요, 孤雲은 그의 호이니 湖南 沃溝 사람이다.³⁴⁾
- ③ 9년(32) 봄에 왕은 6부의 이름을 고치고 성을 주었는데, (중략) 高墟部를 沙梁部라 하여 그 성을 崔라 하고,

27) 申滢植, 「삼국사기 열전의 분석」(『삼국사기연구』, 일조각, 1981)

李賢惠, 「최치원의 역사인식」(『명지사론』 1, 1983)

趙仁成, 「삼국 및 통일신라의 역사서술」(『한국사학의 연구』, 을유문화사, 1985)

申滢植, 「신라인의 역사인식과 그 편찬」(『백산학보』 34, 1988)

崔英成, 「고운 최치원의 역사인식 연구」(『한국사상사학』 11, 1998)

李在云, 「고운의 역사인식」(『최치원 연구』, 백산자료원, 1999)

28) 崔英成, 『최치원사상 연구』(아세아문화사, 1990) 李在云, 『최치원 연구』(백산자료원, 1999)

29) 李賢惠, 앞의 글, pp.3~7

30) 申滢植, 『삼국사기연구』, p.350.

31) 申滢植, 「신라인의 역사인식과 국사편찬」(『백산학보』 34, 1988 및 『통일신라사연구』, 삼지원, 1990), p.272.

32) 『三國史記』 卷46, 崔致遠傳.

33) 『三國遺事』 卷11, 紀異 1, 新羅始祖 혁거세왕條.

34) 徐有槩 編, 『校印桂苑筆耕』 序, 1834 ; 『孤雲先生文集』 下, 1973, p.553.

大樹部를 漸梁部라 하여 그 성을 孫이라 하고, 于珍部를 本彼部라 하여 그 성을 鄭이라 하였다.³⁵⁾

위의 기사에서 보면 金富軾은 사랑부인으로, 一然是 본피부인으로, 徐有渠는 옥구인으로 각기 다르게 기록하고 있으나 이외에도 李能和의 소개에 의하면 조선 정종 당시 徐某人이 최치원의 전기를 썼는데 古群山人이라 하였다.³⁶⁾ 『崔孤雲傳』에서는 자못 世系까지 밝혀 놓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최고운의 父는 崔沖이며 文昌승으로 와서 출생하여 자랐기 때문에 뒷날 麗朝 초에 文昌候에 봉한 바 되었다는 것이다.³⁷⁾ 이외에도 또 하나의 生地로 거론되는 것은 杜州인데 이것 역시 이능화에 의해 소개된 것이다. 그에 의하면 그러한 내용이 『聊齋志異』에³⁸⁾ 수록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상의 것을 종합하면 지금까지 최치원의 출생지로 제기된 지명은 사랑부, 본피부, 고군산도(옥구), 문창, 두주 등 5종이다. 물론 이 가운데서 다수의 문헌에 통설로 되어 있는 것은 사랑부이다. 『慶州崔氏族譜』

에도³⁹⁾ 최치원을 시조로서 신라 왕경 사랑부인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東儒師友錄』에서도 『東史纂要』를 인용하여 사랑부인이라 하였으며⁴⁰⁾ 『東國輿地勝覽』 『慶尙道地理志』 『慶尙道志』에도 『史記』의 기록인 사랑부설로 통일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사서의 기록의 진위를 명백하게 판가름할 수 있는 확실한 자료도 남아있지 않거니와 더욱이 왕가에서 김씨 성을 칭한 것도 법흥왕대 후기에서 진흥왕대에 이르러서인데⁴¹⁾ 유리왕 9년에 왕실도 아닌 일반귀족에게 賜姓을 하였다는 『사기』의 기록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게다가 이처럼 최치원 가문이 경주에서 대대로 살아온 유력한 지배계층의 일족이었다고 한다면 그 세계가 실진될⁴²⁾ 까닭도 없어 매우 혼란스럽다. 이에 李相斐氏는 「문창후 최치원의 출생지 소고」, 『문리연구』 창간, 1983에서 遺蹟을 통한 고증을 통해 최치원이 출생한 곳은 內草島를 포함한 古群山列島의 어느 섬일 가능성이 많다고 하였으며, 이후 「최치원의 출생지에 관한 再考」, 『태산 선비문화조명학술대회』, 2000에서도 최치원은 경주최씨의 후예로서 고군산 선유도에서 출생하였으며 아주 한미한 가계의 소생으로서 독학으로 자라 唐 상인에게 발견되어 唐船에 태워져 入唐·登第하는 경로로 28세에 환국하였으며 환국 후에 경주에서 살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古群산이 杜州와 文昌의 屬島이기 때문에 출생지가 고군산일 때 두주와 문창에 관련된 내용도 무리가 없어진다고 보았다.

吳允熙氏도 「호서지방의 최치원 사적고」, 『사학연구』 51호, 한국사학회, 1996에서 최치원을 옥구출신 쪽으로 무게를 두면서, 그가 육두품 신분을 얻게 된 것도 당나라 직책을 갖고 왔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치원이 찬한 『初月山大崇福寺碑名並序』에⁴³⁾ 보면

35) 『三國史記』 卷1, 신라본기 1, 유리이사금條.

36) 李能和, 「朝鮮巫俗考」 제19장, 古群山 崔孤雲 神祠.

37) 『崔孤雲傳』, 大提閣 영인본. 이에 대하여 李能和는 文昌 出身이라서 文昌候로 追封된 것이 아니라 文章을 잘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였다(이능화, 위의 책).

38) 이것은 『江南五通之事』와 비슷한 것으로 여기에는 忠孝烈을 비롯하여 風俗, 史積, 神異한 說話, 歌詠 등이 수록되어 있다(이능화, 위의 책 참조).

39) 『麗朝名位譜』나 『慶州崔民上系遺篇』에는 6村中 突山高虛村長 蘇代部利를 得姓始祖로 삼고 최치원을 中始祖로 삼고 있다. 그러나 『典故大方』, 萬姓始祖에는 ‘慶州崔民始祖 崔致遠’으로 되어 있다.

40) 公諱致遠字孤雲一字海雲沙梁部人 沙梁慶州縣屬

41) 崔敬淑, 「최치원 연구」, 『부산사학』 5, 1981, pp. 12~13.

李樹建, 「고려 전기 土姓 연구」, 『대구사학』 14, 1979.

李鍾恒, 「新羅 王姓考」, 『국민대논문집』 2, 1966.

朱甫暉, 「新羅 中古의 지방 통치조직에 대하여」, 『한국사연구』 23, 1979. 은 眞平王代에 姓이 있었다 하였고, 三品彰英은 「新羅姓氏につしこ」, 『史林』 15-4에서 新羅의 姓이 眞平王代에 발생하였고 그 후 반세기를 지나 왕족 및 권문세가가 그것을 표방하고, 사회적 계급의 중류 이하는 통일후에 姓을 갖는다고 보았다.

42) 『三國史記』 卷 46, 최치원전. ‘史傳泯滅 不知基世系.’한편 『東史綱目』 卷 5上, 헌강왕 11년 3월조와 『海東繹史』 卷 67, 人物考 1에도 家系에 대한 언급이 없다.

43) 『朝鮮金石總覽』 上, p.123. 慶曆景午年(886)春 顧謂下臣曰 禮不云平 銘者自名也 以稱其先祖之德 而明著之後世 此孝子孝孫之心也 先祖締構之初 發大誓願 金純行與若父肩逸 嘗從事於斯矣 銘壹稱而上下皆得 爾宜

禮記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냐. 銘이란 스스로 이름함이니 그 선조의 덕을 칭송하여 후세에까지 밝게 나타내는 이것이 효자, 효손의 마음이니라. 선조께서 절을 이룩할 처음에 큰 誓願을 발하였는데 金純行이 그대의 아버지 肩逸과 함께 일찍이 이 일에 종사하였느니라. 이 銘이 한번 일컬어지면 상하가 모두 얻는 것이니 그대는 마땅히 銘을 지으라.

고 하여 헌강왕의 하명을 통해 부친의 諱가 건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문의 전면에서 “文王이 창안하고 武王이 계승한다”는 말이 있으므로 경문왕이 승복사를 창건할 때부터 완성된 헌강왕때까지 최치원의 부친 또한 이 불사에 계속 관여하여 왔음을 알 수 있으며, 후 發願文을 작성하는 등의 일에 참가하였던 문사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원래 승복사는 경문왕이 즉위한 후 원성왕의 夢感을 얻었다하여 그동안 버려두었던 鶴寺를 크게 개건하여 개칭한 것이었다. 대개 경문왕대의 造役事業이 원성왕 직계손간의 족벌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왕권강화의 일 방편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볼 때⁴⁴⁾ 그의 가계는 경문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듯 하다. 최치원이 비명을 찬하게 하였음도 경문왕, 김순행, 최견일의 밀접한 관계를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다.

최견일이 경문왕대 강화되기 시작한 유교진흥책을 통해 그의 아들 최치원을 경문왕 8년(866) 12세의 나이로 당에 보내며 ‘十年不第進士則勿謂吾兒 吾亦不謂有兒’라고 엄훈을 내리고 오직 학문수학에 열중하기만을 원함으로 미루어 볼 때 그가 중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깊었고 당 과거급제와 영달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 골품의 열세를 당의 권위와 학문의 힘으로써 만회하려 하였던 듯 싶다.⁴⁵⁾ 그러나 그 외는 최치원이 당에서 귀국했을 때 그의 부친이 이미 타계하였음을 『계원필경』 序의 ‘亡父’ 운운에서 짐작할 수 있을 뿐 전혀 알 도리가 없다.

또한 母兄으로 해인사 승인 大德 賢俊과 定玄師가 있고⁴⁶⁾, 從弟로는 崔捷遠과 崔仁浣(後名 彥撫=愼之)⁴⁷⁾ 보이고 있다. 따라서 그의 집안은 대체로 6두품의 文翰 집안으로서 그의 아버지와 형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볼 때 불교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⁴⁸⁾

그 밖에 그의 가족에 관한 기록으로는 『崔氏大同譜』에 ‘配羅州羅氏丞相業女’라고 되어 있어 그의 부인에 대한 유일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다. 『삼국사기』 그의 열전에 ‘最後帶家隱伽耶山海印寺’라고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羅夫人의 기록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그 결혼 시기는 그의 『계원필경집』에 단 한마디 언급도 없는 것으로 보아 귀국 이후에 이루어진게 아닌가 생각된다.

III. 최치원의 역사인식

崔致遠(857~?)은 나말의 대학자였다. 그는 12세의 어린 나이로 미지의 세계(唐)로 들어가 6년 만에 당당히 賓貢科에 합격하여 명성을 떨친 사실이 그것을 증명한다. 동시에 그는 당대의 문장가인 孤雲 · 羅隱 등과 맞서 시로서 교우관계를 맺은 대문호였다. 그리고 귀국 후 실의에 빠져⁴⁹⁾ 있었으면서도 고운은 당시

誤銘.

44) 金昌謙, 「신라 경문왕대 修造役事의 정치사적 고찰」, 『민병하정년기념논총』, 1988.

45) 李基白, 『신라시대의 국가불교와 유교』, 한국연구원, 1978, p. 163.

46) 『三國史記』 卷 46, 최치원전.

47) 「謝賜弟捷遠錢狀」, 『계원필경집』 卷 20. 「聖住寺朗慧和尚碑」, 『조선금석총람』 上, p.83.

48) 崔英成은 『최치원의 사상연구』, 아세아문화사, 1990, pp. 7~8에서 당시의 識者層, 특히 6두품 계열 가문에서는 父子 또는 兄弟間에 어느 한 사람이 佛門에 들면 다른 한 사람은 儒學을 전공하는 식의 기풍이 조성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49) 『三國史記』 권46에는 ‘自傷不遇 無復仕進意 逍遙自放 山林之下江海之濱 營臺榭植松竹 枕藉書史 嘯詠風

최고 지성이었던 朗慧·眞鑑선사들의 碑銘을 쓴 불교에 깊은 조예를 지닌 최고의 사상가였다. 또한 그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經書와 史書를 항상 탐독하였고, 중국에서도 『東國史』와 『鄉史』를 가까이하며 우리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⁵⁰⁾

최치원은 오랜 당나라에서의 생활과 당시 혼란한 양국의 사회를 목도하면서 자기나라에 대한 한없는 애착과 왕도에 대한 강한 인식을 갖게 되었음은 당연하다. 더구나 장기간의 재당생활 속에서 당의 사관제도나 역사서술체제 및 그 방법론을 체득하였음은 짐작이 간다. 당시 역사서술체제나 방법이 유교경전에 입각한 經史一致의 정신임을 알고 있는 그로서는 述而不作의 춘추정신에 따라 중국사는 물론 자국사(신라사)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은 사실인 것이다. 강한 東人意識을 지닌 그로서는 자기 전통에 대한 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했던 것이다.⁵¹⁾

따라서 그는 劉勰의 다음과 같은

본디 사서의 편찬은 많은 자료에 익숙해서 후세에 진실을 전하는 것이며, 한 나라의 흥망성쇠의 진상을 밝혀 흥폐의 거울을 삼게 하고 (중략) 왕도와 폐도의 업적을 천지간에 영원히 나타내게 하는 것이다⁵²⁾

라는 글을 자신의 역사인식이나 서술방법에 전범으로 간직하고 있었으며, 그것은 곧 그의 역사관 이해의 기준이 되고 있다.⁵³⁾

이러한 고운의 유교적 명분과 복고적인 尙古主義는

- ㉔ 반드시 堯舜을 따르고 禹湯의 정치를 펴면 五岳을 정원으로 삼고, 四海를 연못으로 삼아 훌륭하고 아름다워진다.(『桂苑筆耕』 권1 賀通華南蠻表)
- ㉕ 어진 신하는 그 임금이 요순처럼 된다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桂苑筆耕』 권9, 與金部郎中別紙 제2)
- ㉖ 도를 지키는 것은 옛 일을 상고하는 것이다.(『文昌候全集』 p.28)

에서 분명히 볼 수가 있다. 즉 역사의 모델이나 정치의 이상을 요순시대에 둔 상고주의는 그의 문장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풍조였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春秋의 정신을 충실하게 지녀온 유학자로서의 당연한 본분이라 하겠다.

따라서 고운의 역사인식체계는 孟子的 一治一亂說과 같은 맥락으로서

- ㉗ 인간의 일이란 성했다가도 망하는 것, 부절없는 삶이란 참으로 서러운 법(『東文選』 권9)
- ㉘ 산위에 올라보니 잠시 속세를 떠났지만 흥망성쇠를 읊조리니 한이 더욱 새롭구나(『東文選』 권12)
- ㉙ 재앙이 가면 복이 오고 적은 것이 가면 큰 것이 오기 마련이다(『桂苑筆耕』 7, 鄭畋相公 제2)
- ㉚ 악인이 변하여 선인이 된 자가 골짜기에 꼭 차게 되었으니, 도라는 것은 무너질 수 없는 것이니 때가 되면 저절로 행해지게 된다(『智證大師碑銘』)

와 같은 循環論의 입장인 것이다. 이러한 그의 순환론적 역사이해는 나당 양국의 정치·사회적 혼란을 목도한 현실적인 인식(신라멸망조짐)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⁵⁴⁾ 여기서 우리는 그의 신라멸망예언(有鷄林黃葉 鶴嶺青松之句, 『삼국사기』 46)도 그러한 배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실로 보여진다. 그러나 그의 난세론은 결국 현실의 비관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려는

月'이라 하였고, 『東史綱目』(권5 효공왕 2년 11월조)에는 駿足未展而沈鬱'이라고 자신의 심정을 피력하였다.

50) 『朝鮮金石總覽』 상, 「경주송복사비명」, PP.123~124.

51) 이현혜, 앞의 글, p.7. 최영성, 앞의 글, p.123. 이재운, 앞의 책, p.207.

52) 劉勰, 『文心雕龍』(史傳)

53) 이재운, 위의 책, p.229.

54) '사치란 예나 지금이나 망하는 법이다'(今古奢華盡敗身)라는데 엇볼 수 있다.(『崔文昌候全集』 p.207.)

발전적 의미가 있다. 여기에 고운의 역사적 위상이 있는 것이며, 새로운 사회로의 방향제시로서 代案의 표현인 것이다.

최치원의 현실개혁론은 신라말기 타락한 사회에 대한 강한 개혁의지에 나타나 있다. 그것은 왕권의 추락과 사회기강의 문란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는 모든 해결책인 왕 자신의 선정에 있다고 보고, 군주의 자질로서 왕의 仁政과 德治를 필수적 품격으로 들고 있다.⁵⁵⁾

㉠ 정치는 인으로 근본을 삼고 인으로 대중을 구제하는 정성을 보여야 한다(政以仁爲本 人以推濟衆之誠)⁵⁶⁾

㉡ 상주기를 중히하고 벌주기를 가볍게 하는 것은 왕이 행해야 할 은혜이다(重賞而輕罰者君之恩)⁵⁷⁾

㉢ 풍속을 교화하는대는 훌륭한 사람을 우선 등용해야 한다(化俗所資 尊賢是務)⁵⁸⁾

㉣ 옛 제후와 같은 중임을 맡기려면 마땅히 훌륭한 인재를 선발해야 한다(古諸候之任 宜選良才)⁵⁹⁾

에서와 같이 당시 병든 사회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관리를 뽑아 아첨배(倖門)를 멀리하고 良吏와 幹吏를 우대해야 한다는 것이다.⁶⁰⁾ 말하자면 맹자의 爲民思想에서 보는 稅制改革 · 大赦 · 賢士登用の 모습을 보게 한다.⁶¹⁾ 따라서 새로운 과감한 인사제도의 혁신을 통해 광범한 인재선발을 위한 銓衡制度의 개혁인 것이다.⁶²⁾ 이러한 관리선발제의 객관성과 혁신성은 결국 골품제의 극복에 따른 과거제도의 필요성 제기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고려(광종)의 과거제도 창설의 사회적 소지를 마련한 계기라 하겠다.⁶³⁾

다시 말하면 그는 나말이라는 문명해체기에 있어서 도덕적인 유교정치 이상이라는 고등종교를 통해서 선행문명(신라)에서 후행문명(고려)로의 이행을 가능케 한 초탈(detachment)과 변모(transfiguration)의 의미를 찾으려 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화석화된 신라사회를 재생시킨다는 정신적 승화작용의 장본인이라는 긍지를 가졌다고 생각된다.⁶⁴⁾ 여기에 그의 교훈사관 내지를 垂訓史觀의 의미가 있다.⁶⁵⁾ 이러한 ‘역사의 교훈론’은 그 후 한국전통의 정립에 큰 바탕이 되었음은 확실하다.

다음으로 고운의 역사관에서 간주할 수 있는 것은 나말의 혼란과 왕권의 추락에 대한 수습과 회복을 위한 자세이다. 따라서 그는 『제왕연대력』(帝王年代歷)을 통해⁶⁶⁾ 왕권의 권위와 정통성을 회복하고 정통국가로서의 신라가 해동의 중심체임을 강조하였던 것이다.⁶⁷⁾ 나아가서 그는 유교적 명분과 덕목을 중시하였으므로 「討黃巢檄文」에서

정의를 지키고 몇몇함을 실천하는 것이 道이며 위험에 처해서 규범(법도)을 바꾸는 것은 權이다. 어진 자(賢者)는 세상에 순응함으로써 성공하고 어리석은 자(愚者)는 逆理에 패망하기 마련이다.

55) 이재운, 앞의 책, pp.61~69.

56) 『조선금석총람』 上, <大崇福寺碑銘> p.120.

57) 『계원필경』 권11, <招遣璋君>

58) 『동문선』 권67, <新羅迦耶山海印寺結界長記>

59) 『계원필경』 권13, <授高霸權知江州車州事>

60) 『계원필경』 권2, <讓官請致仕表>

61) 柳初夏, 「맹자의 爲民意識과 그 性格」(『民族文化研究』 14, 1979) pp.123~139.

62) 이재운, 위의 책, p.69.

63) 신형식, 「나말여초의 宿衛學生」(『韓國古代史의 新研究』, 일조각, 1984) p.401.

64) 노명식, 「Spengler 와 Toynbee」(『서양사학사』, 범문사, 1990), pp.439~411.

65) 이재운, 앞의 책, p.69. 최영성, 「고운 최치원의 역사의식 연구」(『한국사상사학』 11, 1998), p.106.

66) 『제왕연대력』의 성격에 대해서 崔南善이 ‘삼국유사의 王曆에 모델이 되었다’는 지적(「삼국유사 해제」, 『啓明』 18, 1927 및 『新譯 三國遺事』 1941, p.23) 이후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되었다. 李基白은 「新譯 年代曆」(『증보문헌비고』 권244, 藝文考)으로 간주하였고(「최치원과 그의 저술」, 『한국고대사론』, 일조각, 1995, p.134), 李佑成도 비슷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우리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삼성문고』 88, 1996, p.28) 또한 高柄翊도 「중국(帝)과 우리나라(王)의 연표」로 생각하였으며,(앞의 책, p.29) 李基東(「고대국가의 역사인식」, 『한국사론』 6, 1980, p.19)과 趙仁成(「최치원의 역사저술」, 『역사학보』 94·95, 1982, p.52), 崔英成(고운 최치원의 역사의식 연구, 『한국사상사학』 11, 1998, p.118) 그리고 李在云(『최치원연구』, 백산자료원, 1999, p.219)으로 이어졌다.

67) 이재운, 앞의 책, p.213.

라 하여 守正과 修常을 내세워 황소의 불법과 비례를 탓하였다. 따라서 고구려와 백제도 결국은 造惡과 背德으로 망했다는 논리이다. 그러므로 당시 호족의 난립과 농촌의 파탄을 목도한 고운으로서의 현실극복의 개혁의지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으니, 그것이 時務策이다. 그러므로 그는 비록 골품제의 모순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조국과 그 상징인 왕을 저버릴 수 없었다. 즉 두 왕을 섬기는 비례를 거부한 것이다.⁶⁸⁾

따라서 이러한 최치원의 현실 개혁론은 귀족의 부패, 호족의 탈법, 신분질서의 문란 등에 따른 정치·사회기강의 회복에 기본 틀을 두지 않을 수 없다.

하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이요 사람이 받드는 것은 도이다. 사람이 도를 넓히는 것이요 도는 사람에게서 멀리 있지 않는 법이다. 그러므로 도가 높아진다면 사람은 저절로 귀하게 될 것이니, 능히 도를 돕는 것은 오직 덕을 높일 뿐이다.⁶⁹⁾

라 하여 도덕적인 선의 구현을 통해 난세를 극복하려는 정의의 실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그의 역사관은 결국 ‘덕의 실천과 도의 구현’을 위한 왕도정치를 실현하는 군주의 덕목을 제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즉 역사는 중앙집권의 필요성을 제시해주는 정치철학인 동시에 중국적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각적 인식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운이 『제왕연대력』에서 신라초기왕명(居西干·次次雄·尼師今·麻立干)을 중국식(왕)으로 바꾼 사실을 사대적 발상(慕華的恩考)이라고 비판하지만, 중국인들에 蠻族의 추장으로 인식되는 것을 반대하고 당당한 千乘之國의 군주로 일깨워주는 동시에 동양적인 보편개념으로 널리 인식시키려는 의도라는 견해가 주목된다.⁷⁰⁾ 따라서 중국인들에게 우리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 인식시키려는 의도라는 사실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⁷¹⁾ 따라서 최치원은 객관성과 합리성으로 인식된 당시 세계적 역사개념으로서의 중국적 역사체계 속에서 우리나라(신라)의 전통과 역사를 그 속에서 조명·정립시키려는 노력으로 볼 때,⁷²⁾ 그는 중국과 신라와의 차이를 확고히 함으로써 중국과 대등한 국가의식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는 한국사의 체계화와 그 서술체제에 있어서 한국전통사학의 정립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최치원의 역사인식을 보여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목할 수 있다.

㉞ 역사라는 것은 시키는 것이니 좌우(左右·右史)에게 붓을 잡고 기록하는 것이다. 傳이라는 것은 옮기는 것(轉)이니 경전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다. 傳은 비문의 간략함을 넓혀 후세사람에게 전수하게 하는 것이다.⁷³⁾

㉟ 옛적에 傳을 짓는데 그 형태와 같지 않아서 먼저 결과를 살핀 후에 그 원인을 펴는 것이며, 혹은 첫머리에 이름을 쓰고 뒤에 행적을 적기도 한다. 그러므로 司馬遷이 백이·숙제 등의 전기를 쓸 때, 반드시 들은 바를 먼저 쓰고 다음에 그들의 행적을 드러냈다.⁷⁴⁾

여기서 볼 때, 고운은 역사를 기존 문헌의 轉載하는 이른바 ‘述而不作’의 뜻을 보여주었고, 후세에 교훈이 되는 이른바 도덕주의적 교훈으로서 鑑戒를 그 목표로 하고 있었다.⁷⁵⁾

이러한 전통은 그 후 『삼국사기』와 『고려사』를 거쳐 한국전통사학의 기본골격을 이루었다.⁷⁶⁾ 또한 역사에 있어서 개인의 역할을 강조하여⁷⁷⁾ 그 자신이 개인전기(현수전·의상전)를 남긴 선례를 보여주었다.

68) 『崔文昌候全集』 <史官篇邁相公>, p.318.

69) 『東文選』 권 64, <善安住院壁記>.

70) 최영성, 앞의 글, p.125.

71) 이재운, 앞의 책, p.222.

72) 이현혜, 앞의 글, p.11.

73) 『崔文昌候全集』 法藏和尚傳, p.208.

74) 앞의 책, pp.242~243.

75) 전해중, 「중국인의 전통적 역사관」(『사관이란 무엇인가』, 청람, 1985), p.186.

76) 신형식(편), 『한국사학사』(삼영사, 1999), pp.22~23.

77) 신형식, 앞의 책, p.40.

IV. 맺음말

이상에서 우리는 나말의 대문호인 최치원의 역사인식을 찾아보았다. 유학자로서 그는 經史一致의 학문적 경향과 장기간의 재당생활에서 얻은 역사서술체제와 그 방법에 따라 자신의 견해를 남김으로써 역사가로서의 역할을 다한바 있다. 더구나 나말의 정치·사회의 파탄에 대한 현실극복과 호족의 발호나 농민반란에 대한 왕권몰락에 대한 정치복원의 필요성에서 그는 정치개혁의 바탕인 역사서술을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최치원은 유협의 역사인식이나 그 서술방법을 기준으로 역사는 춘추의 예에 따라 ‘述而不作’의 정신과 후세의 敎訓(垂訓·鑑戒)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전제는 중국 전통사학의 기본 방향이기 때문에 그 역시 복고적인 尙古主義를 통해 요순시대를 이상국가로 파악하였다. 나아가서 역사의 순환론에 따라 백제·고구려 멸망의 원인을 도덕타락에 따른 ‘필연성’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므로 당시 사회의 혼란과 파탄을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 그 문제를 제기하고 시무책과 같은 개혁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최치원의 한국사인식체제는 『제왕연대력』을 통해 한국사의 체계적 서술을 꾀하였고, 중국(帝)과 우리나라(王)을 하나의 틀[원리]속에 묶어 신라사를 정리하였다. 그러므로 그가 사용한 신라의 고유왕명(居西干·次次雄 등)은 중국에 대한 신라인의 긍지와 東人意識의 상징적 표현인 것이다. 또한 『현수전』(法藏和尚傳)이나 『부석존자전』(의상전) 등을 통해 역사에 있어서 개인역할을 중시하는 동시에 개인적 서술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 속에서 최치원은 유교의 덕목과 예의를 통해 혼란극복의 정신적 근거로 삼았으며 화엄의 圓融과 포용의 정신을 통해 사회통합의 근거를 마련하려 하였다. 무엇보다도 개인의 역할을 역사의 주제로 삼음으로써 왕·신하·백성간의 상호작용이 역사서술의 내용이며 ‘개인과 사회전체와의 상관관계’의 의미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는 통일 신라중심의 역사를 체계화하는데 있어서 마한-고구려설을 주장하였으나, 고구려가 虐民·違天(失德)으로 멸망함으로써 신라로 이어진 당위성 위에서 한국사의 체계가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도한 고구려를 정벌한 신라는 그 정당한 계승자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한국사의 범위를 발해까지 넓혔으며, 역사서술체제나 방법을 제시하여 한국전통사학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었다. 그의 교훈론과 순환론과 같은 역사인식은 그대로 金富軾으로 이어져 역사가 정치수단이라는 전통사학의 위상을 정립시켜 한국사학사의 한 위치를 점할 수 있었다.

“東國文學之祖”崔致遠研究的分歧与走向：

中國大陸2004—2014年

冷衛國¹ 岳俊麗²

(1. 中國海洋大學 文學與新聞傳播學院, 山東 青島；

2. 中國海洋大學 文學與新聞傳播學院, 山東 青島)

摘要：在2004年—2014年期間，國內研究崔致遠的相關學術論文有90余篇，其中包括多篇碩士、博士學位論文；文集校注1部；研究專著4部。詩人的生平、文學作品及其在中韓文化交流中的作用等幾個方面的問題是學界關注的重點，其中亦存在頗多爭議點，詩人的出生年份與及第時間尚無定論，其在唐踪跡有待更確切的考證，以及《雙女墳記》是否為崔致遠本人所作也多有爭論。

關鍵詞：綜述、崔致遠、文化交流、爭論

中圖分類號： 文章標識碼： 文章編號：

崔致遠，新羅末期人，字海夫，號孤云（一說字海夫，又字孤云）；諡號文昌侯，配享文廟。他12歲來唐求學，爾後中舉，任溧水縣尉、兵馬都統巡官、承務郎、侍御史內供奉等職，皇帝曾賜“紫金魚袋”；於公元884年回國，在新羅為官、治學、作詩，後因政治上受到排擠而隱居，卒年不詳。崔致遠一生生活在唐與新羅兩個國度，對中國傳統的儒釋道思想、詞賦詩文與書法棋藝等皆頗有造詣，並首次在其民族歷史上留下了個人文集，被韓國學術界尊奉為韓國漢文學的開山鼻祖，素有“東國儒宗”、“東國文學之祖”之稱，其在韓國學術思想史、韓國漢文學史、中韓文化交流史上皆具有十分重要的地位。

一、崔致遠生平研究

2004年至2014年間崔致遠研究中涉及其生平的主要有劉偉的碩士論文《〈桂苑筆耕集〉考述》（陝西師範大學，2004年）、李黃振的《崔致遠出生年份及其及第年齡再考論》（《銅仁學院學報》，2011年1月）、李定廣的《關於崔致遠研究的三個誤區及其突破》（《文學界》，2012年9月）三篇學術論文，吳在慶的《增補唐五代文史叢考·崔致遠生年》（黃山書社，2006年，48）、方曉偉的《崔致遠思想和作品研究》（廣陵書社，2007年，8、9、203）兩部學術專著。五人較為詳細地論述了崔致遠的生平並對研究中的爭議點進行深入探討，對崔致遠出生年份與及第年齡的意見較為統一，皆認為崔致遠生於855年、20歲及第，並對“857年出生、18歲及第說”進行了針對性反駁。

1、出生年份与及第年齡之爭

關於崔致遠的生卒年、來唐年份和及第年齡的爭議，可上溯至2001年党銀平与諸祖煜的論爭。諸祖煜在其《崔致遠登第年齡考》（《揚州教育學院學報》，2001年3月）一文中認為崔致遠當是生于855年、20歲及第；而党銀平在《“東國文學之祖”崔致遠生卒年考》（《遼寧師範大學學報》，2001年9月）一文中則認為崔致遠857年出生、18歲及第。諸、党兩人征引大量文獻資料對各自的觀點展開論述，但“857出生，18歲及第說”影響較大，其后的多篇論文都對該觀點直接引用。而2004年后，“855出生，20歲及第”再次引起學界關注，并有多篇論文進行深入考証。

(1) 857 年出生、18 歲及第說

党銀平在其文中指出：“崔致遠的出生年齡一般是根据其入唐年代、年齡或留唐時間來進行推算的……崔氏及第時間，在其詩文中未作說明，高麗金富軾《三國史記》卷四十六《崔致遠傳》首載崔致遠18歲及第。清徐松《登科記考》卷二十三乾符元年（874年）條同載：‘本年禮部侍郎裴瓚主試時，進士及第者共三十人，可考知姓名者六人：歸仁澤、劉崇望、夏侯澤、崔致遠、顧云、蔣曙。’”[1]党文中說《三國史記》明確記載崔致遠18歲及第，《登科記考》僅記載崔874年及第，由此便可推出崔致遠生于857年。按：据《桂苑筆耕集》卷十八《前湖南觀察巡官裴療》云：“右件人是某座主侍郎再從弟。”另晚唐著名文人顧云也是在咸通十五年登第，而崔致遠稱顧云為同年，這都可証崔致遠中第時座主是裴瓚，那么崔致遠在咸通十五年（874年）登第應毫無疑問。但崔致遠及第年齡18歲并不能因此被証實。又，關於崔致遠的及第年齡，党銀平主要從《桂苑筆耕集》中尋找線索，《桂苑筆耕序》中曾略言：“右臣自年十二离家西泛……觀光六年，金名榜尾。”[2]（P1）在這里主要的分歧在于對“觀光”一詞的理解，党文中并未對“觀光”做出明確的解釋，并轉向對“20歲及第說”進行反駁，其中又引出對“遷鶯谷”的解讀。

而諸祖煜在其《崔致遠登第年齡考》一文中則對“觀光”進行了詳細的考証，“‘觀光’語出《易·觀》：‘觀國之光，利用賓于王’。原指觀覽國之盛德光輝。唐時，赴京參加科舉考試或入國學瞻仰先師（孔子）也稱‘觀光’。崔所述‘觀光’，如理解為在京應試是不現實的。因為崔入唐時十三歲，應童子科已无可能（唐制，童子科須年十二以下）。若應進士科，則年齡太小，學養不足；況且異國士人，未經深造就參加艱難的進士科考試，几乎无中第的可能。所以，這裏的‘觀光’應指入國學瞻禮。”[3]

李黃振在其文中亦對“觀光六年”即“留學六年”的說法表示懷疑，并提出另一個新的問題，崔致遠回國之時曾因天氣原因被阻山東，而十二歲時離開新羅赴唐留學，是否于同年順利到達大唐？其后，李黃振對崔致遠及第年齡進行了推算，“唐代國子監入學規定，當時入學國子監的最低年齡至少是14歲。崔致遠按照規定14歲入學國子監的話，那時就是868年，他在874年科舉及第時就是20歲。”[4]

“觀光”是唐代習慣用語，是對進入國子監學習準備參加科舉考試的習稱。因此，《桂苑筆耕集》中的“觀光六年”當指在國子監學習六年，并非指來唐六年之后就參加科舉。“857年出生說”以“觀光六年”立論，稍顯草率。

“857年出生，20歲及第說”根據《三國史記》的記載推論而來，長期流傳在韓國學術界，并影響至中國學術界，大量的學術論文、碩士博士學位論文未做深入考証便直接加以引用，甚至在“855年出生，20歲及第說”正式提出后，仍居主流，值得深思。

(2) 855 年出生、20 歲及第說

“855年出生說”以諸祖煜的《崔致遠登第年齡考》為代表，立足崔致遠自述對“857年出生說”進行反駁。

諸祖焜認為崔致遠以“賓貢”的身份入唐，在應進士科考試之前，要到唐朝國學進行深造，所謂“觀光六年”，指在國學學習而言。且《新唐書·選舉志》對唐朝入學年齡的規定有明確記載：“凡生，限年十四以上，十九以下。”[5] (P761) 即唐代入學年齡至少要十四歲，最大不超過十九歲。所以，崔致遠當是十四歲入國子監學習，于公元874年20歲時進士及第，由此得以推出崔致遠當生于855年。

劉偉在其碩士學位論文《〈桂苑筆耕集〉考述》中對諸祖焜的觀點表示贊同，并且有所補充，“再檢《桂苑筆耕集》卷十八《謝探請料錢狀》，其辭云：‘伏惟太尉，念以依門館次三千客，別庭闈已十八年，既免行佣，有希反哺，賜探給三個月料錢。’卷二十《謝許歸敷啓》云：‘伏蒙恩慈，念以某久別庭闈，許令歸孰者。……夏綵某自十二離家，今已二九載矣。’按此計算，崔致遠十二來中國，經過十八年，至中和四年歸國時，已有三十歲了。據此推斷，崔致遠也應在二十歲登第，其來中國時間為咸通七年（866年）。”[6]

受《三國史記》中《崔致遠列傳》的影響，后世文獻大部分記泉崔致遠在874年18歲時及第，在884年28歲時決意回國，啓程返回新羅。党銀平先生文中指出《三國史記》明確點出崔致遠18歲及第，而李黃振在其《崔致遠出生年份及其及第年齡再考論》則說《三國史記》并未直接說明崔18歲及第，甚至連“觀光六年”都未曾提及。筆者查詢朝鮮史學會《三國史記》，其中僅有“乾符元年甲午，禮部侍郎裴瓚下一舉及第。調授宣州溧水縣尉”[7](P464)，并无崔致遠18歲及第一說，另附《儒仙歌》：“十二乘船渡海來，文章感動中華國。十八橫行戰詞苑，一箭射破金門策。”其中“十八橫行戰詞苑”中的“十八”是否為18歲及第并不能確定，另党氏与李氏文中皆提到此詩記載為顧云所作，但其真偽亦頗有爭議，李黃振考其或出《孤云篇》，但証据不足，尚無明確論斷。所以，以《儒仙歌》作為崔致遠18歲及第的証据也不妥。

(3) “遷鶯谷”的爭議

對崔致遠及第年齡的推算，有賴于對當時特有名詞的理解，如上文所提到的“觀光”，以及《桂苑筆耕集》中的“遷鶯谷”。解讀角度不同，所得答案亦存在較為明顯的差異。

“遷鶯谷”見于《桂苑筆耕集》卷十七《初投獻太尉啓》：“自十二則別鷄林，至二十得遷鶯谷，方接青衿之侶，旋從黃綬之官。”[8] (P160)

諸祖焜在其文中指出：“遷谷”出自《詩·小雅·伐木》，唐以來人們以為出谷之鳥是黃鶯，于是出現鶯谷、鶯遷、遷鶯等詞。“鶯谷”喻晦而未達的處境，“鶯遷”、“遷鶯”有時指遷移居所，有時指官職升遷，有時指中第。查崔二十歲時并无遷居之事，此可以排除在外。至于官職升遷，崔中第后即漂泊東都，而后作溧水縣尉，距登第已數年，其作尉之年不可能在二十歲；況且任尉溧水，只是初次釋褐，沉迹下僚，品卑秩低，談不上什麼升遷。因此，這裏的“得遷鶯谷”即指登進士第，也就是崔所說的“金名榜尾”。[9]

李定广在其文中亦指出：由于進士文化到中晚唐進入高潮時期，故中晚唐人凡用“遷鶯”一語者，均指進士及第，正如晚唐韋絢《劉賓客嘉話錄·附編》所謂“今謂進士登第為‘遷鶯’者久矣！”乃至有當時流行的曲子詞《喜遷鶯》皆寫進士及第之喜悅。[10]

党銀平認為“遷鶯谷”指得官升職，劉偉對此進行了反駁，劉以為假設“二十得遷鶯谷”當為授縣尉的話，會產生几个矛盾和疑問。按唐代制度，及第之人至少兩年以后才能申請任官，也就是說崔致遠876年以后才能申請任官并得授官職。可是如果像“857年出生說”所述，“二十得遷鶯谷”所指并非及第而是指崔致遠20歲赴任溧水縣尉一事的話，那么赴任時間就應該是876年了。党銀平曾指出“崔致遠正式出任溧水縣尉的時間是

乾符四年（877）”，這樣一來，對“二十得遷鶯谷”的解釋和對出任年齡的實際判斷就出現了相互矛盾。此后，李黃振又指出，崔致遠第一次受官是出任溧水縣尉職，而首次赴任很難稱作“得官升職”。但是把“遷鶯”解釋為赴任溧水縣尉職，《初投獻太尉啓》只提到他12歲離家，20歲走上仕途的經歷，遺漏了到當時崔致遠人生中最為驕傲的經歷——及第。

結合唐代史實來看，“遷鶯谷”應指進士及第而非得官升職，因此，由得官升職而來的“18歲及第說”就難以成立。

總而言之，對於“857年出生、18歲及第說”，雖然許多后世文獻都為其提供了根據，但它與崔致遠自述中所說“在唐生活了18年”這一事實并不相符，這是決定性的一點。“855年出生、20歲及第說”

雖然與後世文獻的一些記象不相符，但是基本上能與崔致遠的自述相吻合，然而還需要通過對當時的制度或對某些詞匯的解釋來進行補充說明。兩種說法雖然都存在一些症結或疑問，但與後世文獻的記象相較，崔致遠自己的敘述更應處於首要地位，因此可以說“855 年出生、20 歲及第說”更為妥當、更加準確。

2、在唐踪跡考證——奉使東歸路線之爭

崔致遠來唐時間距今已有一千多年，中、韓史書對其在唐期間具體的游歷踪跡，或無記象，或語焉不詳。他雖有文集流傳，但其作品散佚過多，對其踪跡的考證面臨多方面的困難。

韋旭升在其韋旭升認為“才山”指山東半島嶗山灣北岸的才山，且《桂苑筆耕集》中多有涉及“才山”之作，如：《祭才山神文》、《將歸海東才山春望》、《和金員外贈才山清上人》。《祭才山神文》當為《祭》，“嶗山”位於青島即墨市田橫鎮南部，因山勢陡峭、嶗岩錯落而得名。

筆者查閱中華書局1985年版《桂苑筆耕集》，中華書局2006年版党銀平校注的《桂苑筆耕集校注》，書中皆為《祭》，且凡“才山”出現之處皆為“”。因此，任說為是，韋文雖論證詳細，但稍有疏漏。且方曉偉《崔致遠思想和作品研究》（廣陵書社，2007年9月，5）考證崔致遠于唐中和四年（884年）秋，以淮南入新羅兼送詔書國信等使的身份回國。崔致遠返回新羅的路線，是由淮南登舟，行經山陽、膠州，于這一年的十月來到山東登州東牟郡乳山、嶗山一帶等候風向轉變，直到次年四月才回到新羅。因此崔致遠奉使東歸的路線當為。

二、崔致遠文學作品研究

崔致遠具有較高的文學造詣，創作了大量的文學作品。據崔致遠《桂苑筆耕集》自序，他曾作《今體賦》五首，《五言七言今體詩》共一百首，《雜詩賦》三十首，《中山覆篋集》五卷，《桂苑筆耕集》二十卷，但多不見。《新唐書》卷六十《藝文志·別集類》僅著錄其《四六集》1卷，《桂苑筆耕集》20卷，《宋史》卷二零八《藝文志·別集類》著錄崔致遠《筆耕集》二十卷，又《別集》一卷。《新唐書·藝文志》、北宋官修書目《崇文總目》均曾著錄《桂苑筆耕集》，然而南宋《直齋書錄解題》、《郡齋讀書志》以及元、明公私書目皆未再著錄，可推知《桂苑筆耕集》宋代以後在中國失傳。直到清乾隆三十九年（1774年），朝鮮人徐有榘在得到洪奭周所藏的《桂苑筆耕集》後，“及加証校，用聚珍字（即木活字）擺印”。這一事件在《桂苑筆耕集》的流傳史及版本史上具有重大意義，之後該集流傳漸廣，版本漸多；道光以後，《桂苑筆耕集》二十卷的朝鮮抄本、刻本、活字本先後舶來中國。

關於崔致遠文學作品的研究以《桂苑筆耕集》為主，主要集中在版本考證與文學、史料價值等方面，且對版本源流的爭論延續至今；對崔致遠詩歌亦有專業性的學術論文、學位論文，但多在主觀解讀，稍顯單薄，並無明顯的分歧；齋詞是崔致遠文集中比較特殊的一種文體，亦有頗多論文進行研究，並多涉及崔致遠的道教情結，觀點較為統一；另對《双女墳記》的研究爭議頗多，主要集中在《双女墳記》是否為崔致遠所作的問題，學界尚無統一觀點。

1、《桂苑筆耕集》版本考

(1) 日本國會圖書館所藏寫刻本

金程宇在《日本國會圖書館藏〈桂苑筆耕集〉的文獻價值》一文對日本國會圖書館所藏刻本有詳細的介紹，“國會本遇尊改行、空格，崔致遠曾撰《四山碑銘》，其中三碑仍存，《智異山双溪寺眞鑿禪師大空塔碑銘》為其手迹上石，尚存其改行、空格樣式，可與國會本相對照。”[11]金文將國會本與通行版本進行對比後發現國會本在卷目篇次與注文正文方面更符合古書原貌，且脫字、誤字較通行本少，因而推論國會本是更為接近原貌的早期刻

本。另有李時人、詹緒左的《崔致遠〈桂苑筆耕集〉的版本及校勘札記》一文論及國會本《桂苑筆耕集》，指出“日本學者藤本幸夫據藏書印及墨書考察，推測國會本為朝鮮明宗朝（1546年—1567年），亦即16世紀中葉的刻本，比《四部叢刊》所據底本要早一百年。並通過對比證明日本國會圖書館藏本不僅早於《四部叢刊》本和徐有槩木活字本，而且在許多方面優於這兩個版本，很可能更多地保存了原作的面貌，以其作為校勘的底本顯然更為合適。”[12]

(2) 《四部叢刊》本

四部叢刊本為《桂苑筆耕集》流傳最廣的版本。該本不避清諱，無洪奭周、徐有槩序。1919年商務印書館《四部叢刊》據無錫孫氏（孫毓修）小綠天藏本影印《桂苑筆耕集》二十卷。傅增湘《藏園訂補邵亭知見傳本書目》記《四部叢刊》影印孫氏藏本云：“朝鮮古刻本，十行二十字，白口，四周雙欄，前中和六年進書表。”《四部叢刊書錄》（民國十八年涵芬樓鉛印本）集部第三十七頁著錄，云：“《桂苑筆耕集》二十卷，三冊，無錫孫氏小綠天藏高麗刊本，唐崔致遠撰。《唐書·藝文志》載崔致遠《桂苑筆耕集》，近代不見流傳……乾隆中彼國有活字版本，今亦難得。此鏤刻本，尚在活字本前，目連正文，首載自序。”[13]（集部P37）此處指出《四部叢刊》本的底本在活字本之前，國內學者認為難以確定；而根據日韓學者的有關論述，此說實為可信。韓國學者李仁榮在其《清芬室書目》卷九（510—511）有詳細論述，使“此鏤刻本，尚在活字本前”的判斷得以成立。

(3) 徐本

徐有槩木活字本是近世流傳較廣的《桂苑筆耕集》刊本，刊於1834年，著名學者李圭景參與校勘，刊刻較精，成為較通行的版本。見於邵懿辰、邵章《增訂四庫全書簡明目錄》、傅增湘《藏園訂補邵亭知見傳本書目》等書目。徐有槩在《校印〈桂苑筆耕集〉序》中曾談到“是集屢經鈐印，板刻日佚，搨本亦絕罕”，因知在木活字本以前應有過不止一次的刊刻，只是因為戰亂等原因，流傳下來的不多而已。清代重新傳入中國的《桂苑筆耕集》亦以木活字本為最多。

(4) 潘本

1847年廣東潘仕成刊行《海山仙館叢書》，其中收錄了《桂苑筆耕集》，是該書在中國的第一個刊本；收入商務印書館《叢書集成初編》。莫友芝《邵亭知見傳本書目》卷十二、張之洞《書目答問》卷四、邵懿辰《四庫簡明目錄標注》等均有著錄。

潘本受到許多學者的批評，認為其校讎不精，錯誤較多。關於其版本來源，所據底本，鮮有考證，只因其書前有洪奭周、徐有槩序，一般認為其以徐有槩木活字本為底本刊刻。金程宇在其《〈桂苑筆耕集〉流傳中國考》中指出這一刊本與木活字本在目錄順序、各篇題目及正文文字等方面都有明顯的差異，而與《四部叢刊》影印本相當接近，故所據底本不可能是木活字本，而是一個與叢刊本相同或相近的朝鮮刻本。李時人、詹緒左的論文對此表示認同並引用了這一觀點。

對以上四種版本的源流關係、時間先後、優劣，存在諸多爭議，已有多篇論文深入探討。

劉偉在其《〈桂苑筆耕集〉考述》一文中繪制了《桂苑筆耕集》版本源流圖，如下圖所示：

另有學者考証《桂苑筆耕集》曾有朝鮮抄本，見莫友芝《邵亭知見傳本書目》卷十二眉注，云：“頃收江編修家高麗舊鈔本。”傅增湘在《藏園訂補邵亭知見傳本書目》亦記載：“此書有高麗舊抄本，由清代頃收江收藏。”《增訂四庫簡明日錄標注》邵章《續泉》亦有注錄，今未見。

2. 《双女墳記》的爭議

(1) 《双女墳記》版本及流傳概況

《双女墳記》最早見于朝鮮朝初期（約1462—1484）的《太平通載》卷六十八，這也是最完整的版本，標明泉自高麗《新羅殊異傳》，題為《崔致遠》；其后，權文海按韻部編纂的辭書《大東樂府群玉》卷十五中有節錄，改為《仙女紅袋》。韋旭升在所編《朝鮮文學史》中稱其為《仙女紅袋》，另稱長詩為《双女冢》。《双女墳記》主要描寫新羅詩人崔致遠在中國的一段傳奇經歷，在中韓文學交流史上具有重要意義。自1997年双女墳實物在江蘇省高淳縣被發現以來，《双女墳記》更成為中韓各界關注的焦點。而《双女墳記》是否為崔致遠本人所作一直存有爭議，自發現“双女墳”后，崔致遠作《双女墳記》几成定論。

李岩、徐建順的《朝鮮文學通史》對《双女墳記》的流傳有詳細介紹：“《双女墳記》在中國最早見于南宋高宗紹興時張敦頤的《六朝事迹編類》卷下‘墳陵門’第十三‘双女墓’，其中點出《双女墳記》的篇名。后馬光祖、周應谷纂修《景定建康志》卷四十三《風土志二·古陵諸墓》及元張鉉纂修《至正金陵新志》卷二十二下《古迹志》皆有‘双女墳’，亦皆引《双女墳記》，文字与《六朝事迹編類》只有極小的差異，顯然源于《六朝事迹類編》。再後來，清朝朱紹文編纂的《乾隆高淳縣志》，增加了新的內容，指明‘双女墳’的具体位置。”[17]

《六朝事迹類編》明确指出所引來自名為《双女墳記》的文章，雖然文字極為簡略，但其所敘故事的框架、情節進程以及地点、人物，与《殊異傳》中的《崔致遠》都有着密切對應的關係——特別是其中“有鷄林人崔致遠，唐乾符中補溧水尉”，以及二女自称張氏二女，“為父母匹于鹽商小壑，以此憤恚而終”等語——證明朝鮮的《崔致遠傳》与中國的《双女墳記》是同一个故事流傳下來的不同版本，而中國的《双女墳記》創作時間更早。說明先出現中國的《双女墳記》，而后才有朝鮮的《崔致遠傳》，而這極有可能存在影響關係。

(2) 《双女墳記》的作者之爭

① 《双女墳記》乃崔致遠所作

《双女墳記》是唐代流行的傳奇，有中國史籍的記載佐証其為崔致遠所作。唐代《傳奇》的作者裴綯，号‘谷神子’，唐懿宗咸通五至九年（864年—868年）曾為高駢的掌書記。裴綯《傳奇》所記皆神仙怪譎事，崔致遠与裴綯都在高駢幕府供事，他用傳奇体寫《仙女紅袋》，或許受到裴綯《傳奇》的影響。“[18]

倪文波在其博士學位論文《崔致遠文學創作研究》（2006年）中引用李岩《中韓文學關係史略》（社會科學文獻出版社，2003年，183）的論証，認為《双女墳記》應出自崔致遠之手，首先，因《双女墳記》中男女主人公故事發生的地理背景是溧水縣，与崔致遠在溧水任縣尉的經歷密切相關。這一觀點后見于2010年何鎮華的《朝鮮文學論集》（線裝書局，2010年04月，9）。再者，《双女墳記》在《六朝事迹編類》的記載与《大東樂府群玉》、《太平通載》几乎相同，只是繁簡不同。最后，《双女墳記》藝術性較高，人物形象刻畫得栩栩如生，人物心理描寫細致入微，乃是大家手筆，并且以為《双女墳記》的創作受到《游仙窟》、唐傳奇、《長恨歌》，甚至唐代變文的影響。

其后，李時人亦認為《双女墳記》是崔致遠所作，并舉出兩点依据：“一是立足于《双女墳記》的流傳，上文已作簡單梳理；《双女墳記》是一篇典型的唐代‘文人短篇小說’，文詞華麗，詩文參差交錯，呈現出比較典型的唐代文人小說的格局和風范；其次，其主体部分渾然天成，詩文之間存在着不可分割的有机聯系，不可能是先有傳說故

事的框架，然后又加以增飾的。即使是文末以長詩配文，也是唐人小說中‘詩’与‘文’相輔相成的特殊范式。不僅長詩內容与前文妙合无垠，就其詩的內容与格調亦非后世高麗文人所能配加；最后，只有小說的開頭和結尾部分才明顯看出后人改動的痕迹。特别是小說的結尾述及崔致遠歸新羅后隱居終老一段，与《三國史記·崔致遠傳》所述同出一轍，顯然是后人對崔致遠隱居生活的補述。”[19](P510)

②《双女墳記》非崔致遠所作

徐健順在《〈双女墳記〉的創作与流傳過程辨析》（《東疆學刊》，2010年7月）一文對《双女墳記》創作及流傳過程進行了詳細的考証。徐文指出“在《崔致遠》中，敘事部分對主人公的称呼為‘致遠’与‘公’間雜。‘公’是尊称，‘致遠’或為自称，或為長輩對其指称，或為后世對其的一般称呼……正文中，以‘致遠’称呼的文字占絕大多數，以‘公’称呼的文字較少，共出現8次。且對現存唐傳奇進行考証后發現，用第一人稱敘事的僅有兩篇——張鷟《游仙窟》自称‘仆’，沈亞之《秦夢記》自称‘亞之’。《秦夢記》一文，是否是沈亞之所做，向有疑議。用第三人稱敘事的，如《柳毅傳》称名‘毅’，《李娃傳》称身份‘生’，《虬髯客傳》称尊称‘公’。因此，用‘致遠’称呼敘事主人公，既可能是第一人稱，也可能是第三人稱。再考崔致遠文集的自称，均為‘某’或‘臣’，沒有自称過‘致遠’。但是唐人在文中确有自称其名的現象，傳奇之外如韓愈《張中丞傳后叙》之類也是如此。因此由称呼并不能斷定《崔致遠》的作者。《崔致遠》的題目，很像《沈亞之》的題目式樣，都是以敘事主人公命名。但是為他人作傳或敘事者，也多用這類題目，所以由題目也不能斷定作者。”[20]

經過多方面的論証，徐文得出以下結論：“《双女墳記》原為一則較短的神怪傳奇，如沈既濟《枕中記》之類。張敦頤《六朝事迹編類》記其梗概，遂傳之后世。另一人又依《游仙窟》的体制，將其敷衍而成長篇駢文傳奇，并在高麗流傳，后又經人增寫。同時，由于《双女墓》所載文字，僅‘少親筆硯，長負才情’一句對仗，可以推知，《双女墳記》原文應是散文。散文中也可偶有對句，但如果原文是駢文，就很難敷衍成如此散文了。最早的《双女墳記》的作者是誰，已不可考，不能確定是崔致遠。唐傳奇主要來自文人之間‘征奇話异’的觀點，但把《双女墳記》斷為崔致遠所作還是証据不足。既然是‘征奇話异’，也完全可以由崔致遠敘述其經歷，而由別人來寫成，白行簡《李娃傳》、沈亞之《异夢泉》等都是典型的例子。而‘有鷄林人崔致遠者，唐乾符中補深水尉’一句，也不像是自述的口氣，更像是第三人稱的敘述。”[21]

由上可以看出，崔致遠作《双女墳記》已被大多數學者所接受，徐建順別出新見，且綜合史料多方論証，有理有據，再次對《双女墳記》的作者提出質疑。可見，崔致遠是否作《双女墳記》仍有繼續探討考証的必要。

綜上所述，在全球化時代，各國文化交流加強，對崔致遠的研究在中韓文化交流中尤為重要。綜觀十年崔致遠研究，成果丰碩，但亦存在許多爭議，尚有諸多疑点難点需要解決。尤其是崔致遠的出生年份与及第年齡尚無統一論斷，“855出生說”雖多次被論証，但“857出生說”在學界仍勢力強大，許多后来人不假思索，研究時依然直接引用。崔致遠在唐踪迹在20世紀90年代雖有專篇論文論述，21世紀也有少數論文涉及，然無突破性進展，挖掘深度不够，并且和其文學創作的關係也鮮有論及。《桂苑筆耕集》的研究有多篇專門論文，其史料价值得到重視，文學价值雖有涉及，然多是主觀解讀，應向文体學、文章學等領域广泛擴展。《桂苑筆耕集》的版本源流進展頗大，追源溯流，不斷向源頭靠近。然因版本駁雜，又因文獻資料匱乏，版本之間的流傳關係仍無定論，須進一步考証，金程宇先生的論文旁征博引，用多种史料多角度全面、深入闡述，值得借鑒。學界以崔致遠作《双女墳記》為主流觀點，但論証多有重復，缺乏新發現，深入推敲漏洞頗多，徐建順的論述有理有據，并運用許多唐代史料与傳奇作品相印証，值得參考。崔致遠作為在唐游歷多年的新羅詩人，其身世頗有傳奇色彩，因此，研究中爭議較多，但爭議仍須在作家作品中尋找答案。

參考文獻：

- [1] 党銀平.“東國文學之祖”崔致遠生卒年考[J].遼寧師範大學學報, 2001, (3) .
- [2] [8] 崔致遠.桂苑筆耕集[M].北京：中華書局, 1985.
- [3] [9] 諸祖煜.崔致遠登第年齡考[J].揚州教育學院學報, 2001, (1) .
- [4] 李黃振.崔致遠出生年份及其及第年齡再考論[J].銅仁學院學報, 2011, (1) .
- [5] 新唐書·選舉志[M].北京：中華書局, 1999.
- [6] 劉偉.《桂苑筆耕集》考述[J].陝西師範大學, 2004.
- [7] 朝鮮史學會.三國史記[M].韓國：近澤書店, 昭和3年02月.
- [10] 李定广.關於崔致遠研究的三個誤區及其突破[J].文學界, 2012, (9) .
- [11] 金程宇.日本國會圖書館藏《桂苑筆耕集》的文獻價值[J].域外漢籍研究集刊, 2006, (2) .
- [12] 李時人、詹緒左.崔致遠《桂苑筆耕集》的版本及校勘札記[J].文學與文化, 2010, (3)
- [13]四部叢刊書彙.[M].上海：涵芬樓鉛印本, 1929.
- [14] 党銀平.新羅文人崔致遠《桂苑筆耕集》版本源流考述[J].中國典籍與文化論叢（第七輯）, 2005.
- [15] 金程宇.《桂苑筆耕集》流傳中國考[J].域外漢籍叢考, 2007.
- [16] 曹旅宇.黃永年先生舊藏高麗刊本《桂苑筆耕集》[J].山東圖書館學刊, 2010. (4) .
- [17] 李岩、徐建順.朝鮮文學通史[M].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0.
- [18][J].
- 李時人.中國古代小說與文化論集[M].北京：中華書局, 2013.
- [20] [21]徐健順.《雙女墳記》的創作與流傳過程辨析[J].東疆學刊, 2010. (3) .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Core University Program for Korean Studies through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the Korea and Korean Studies Promotion Service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KS-2014-OLU-2250004).”

2004년—2014년 최치원 연구 총괄(요약본)

1. 최치원 생애 연구

2004년에서 2014년까지 최치원을 연구하는 논술 가운데 특히 생애를 다룬 연구로는 학술논문 4편, 저서 3부가 있는데, 이들은 주로 최치원의 생년월일, 급제 나이, 그리고 귀국 노선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1) 생년월일 및 급제 나이에 대한 논쟁

‘857년 출생, 18세에 급제하였다’는 설은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기록에 따른 추정이다. 한국 학술계에 널리 받아들여진 이 학설은 중국 학술계까지 영향을 미쳤다. 2001년 쭈주위(諸祖煜)가 「최치원등제연령고(崔致遠登第年齡考)」(『양주교육학원학보(揚州教育學院學報)2001년3월』)에서 ‘855년생, 20세 급제’설을 제시하였는데 학계에서 파장을 일으켰다. 그 뒤 계속 학술논문 3편, 학술저서 2부에서 이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펼쳐지기도 하였다.

(1) 857년생, 18세 급제설

당인평(党銀平)의 「“동국문학지조”최치원생졸년고(“東國文學之祖”崔致遠生卒年考)」(『요녕사범대학학보(遼寧師範大學學報)』2001년9월)가 21세기 이후 ‘857년생, 18세 급제설’의 대표적인 논의다. 이 논의에서는 학자들이 흔히 당나라에 갔을 때의 나이, 연대, 그리고 당나라에 머무른 시간을 통해서 최치원의 생년월일과 나이를 추론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고려 김부식(金富軾)이 『삼국사기(三國史記)』 권46 「최치원전」에서 처음으로 최치원이 18세의 나이에 급제하였다고 기록하였으며, 청대(清代) 서송(徐松)이 『등과기고(登科記考)』에서 최치원이 건부원년(乾符元年: 874년)에 급제하였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고 하면서 이런 기록에 근거하여 최치원이 857년에 태어났다고 추정하였다.

(2) 855년생, 20세 급제설

‘855년생, 20세 급제 설’을 가장 먼저 내세운 쭈주위(諸祖煜) 선생은 『계원필경서(桂苑筆耕序)』에서 언급된 ‘관광(觀光)’라는 표현에 대해서 자세히 고증한 바 있다. ‘관광6년(觀光六年)’이란 최치원이 중국에서 6년동안 공부했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면서 많은 당나라 역사 자료를 인용하여 최치원의 입학 나이가 14살보다 더 이를 수 없음을 논증하였다. 14살 때 입학한 6년 후, 곧 874년 20살 때에 급제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의 생년월일은 855년이 마땅하다는 주장을 보였다.

조선사학회의 『삼국사기(三國史記)』를 찾아보면 ‘건부원년갑오해(乾符元年甲午) 예부시랑(禮部侍郎)

배찬하(裴瓚下)가 단번에 급제하였으며 선주표수현 현위(宣州漂水縣尉)로 발령받았다’는 기록만 보이고 최치원이 18살에 급제하였다는 얘기가 없었다. 그러니 당인평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정확하고 실제적인 근거가 없다.

(3) ‘천앵곡(遷鶯谷)’ 에 대한 논쟁

‘천앵곡(遷鶯谷)’은 『계원필경서(桂苑筆耕序)』 권17 『초투헌태위계(初投獻太尉啓)』 라는 글에 나온내용이다. ‘12살 때 계림을 떠나 20살이 되어서야 천앵곡(遷鶯谷)할 수 있었으며 선비 친구도 사귀고 벼슬길을 나오게 되기도 하였다.’

당인평은 ‘천앵곡(遷鶯谷)’을 관직을 얻고 벼슬길을 나서게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쭈쭈위는 ‘앵곡(鶯谷)’이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를 나타낸다고 보고 ‘鶯遷(앵천)’, ‘遷鶯(천앵)’은 이사, 벼슬상의 승진, 또는 급제를 가리킨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니 최치원이 말한 ‘천앵곡(遷鶯谷)’은 진사 급제를 가리켰던 것이다. 이에 대해 리딩광(李定光)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진사 문화가 당나라 중만기에 이르러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마치 만당시기 위현(韋絢)이 「유빈객가화록·부편(劉賓客嘉話彙·附編)」에서 ‘진사급제를 보고‘遷鶯(천앵)’이라고 한 지 오래 된 일이네’라고 하는 것처럼 당나라 중만기에는 “遷鶯(천앵)”이란 말은 모두 진사급제를 가리켰다. 심지어 그때 당시 유행했던 곡자사(曲子詞) 「희천앵(喜遷鶯)」도 모두 진사급제했을 때의 기쁨을 그려냈다.

2) 재당 행적 고증—귀국 노선의 논쟁

웨이취썩(韋旭升)은 「최치원거당환도시기족적고술(崔致遠居唐宦途時期足跡考述)」(『연변대학학보(延邊大學學報)』 사회과학판(社科版), 1999년 제3기) 에서 최치원의 귀국노선을 다음과 같이 그려 보았다. 회성(淮城)→회남(淮南)→산양(山陽)→초주(楚州)→대주산(大珠山)→유산(乳山)→재산(才山)→해문(海門)

런샤오리(任曉禮)는 「최치원기유산동반도행정여문학창작고변(崔致遠羈留山東半島行程與文學創作考辨)」(『동악논총(東岳論叢)』 2013년10월) 에서 재산(才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재산(才山)이 아니라 참산(嶺山)이 맞다고 주장하였다. 中華書局에서 1985년에 출판한 『계원필경집(桂苑筆耕集)』 과 中華書局에서 2006년에 출판한 당인평(唐銀平)의 『계원필경집교주(桂苑筆耕集校注)』 을 살펴보면 모두 「제참산신문(祭嶺山神文)」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최치원의 귀국노선은 회성(淮城)→회남(淮南)→산양(山陽)→초주(楚州)→대주산(大珠山)→유산(乳山)→참산(嶺山)→해문(海門)으로 보아야 한다.

2. 최치원의 문학작품 연구

1) 『계원필경집(桂苑筆耕集)』 판본고

(1) 일본국회도서관에서 소장된 사각본(寫刻本)(국회본)

일본학자 후지모토 유키오(藤本幸夫)는 장서인과 묵서(墨書)를 고찰함으로써 일본 국회본이 조선 명종조(1546년-1567년) 즉 16세기 중엽 때의 각본임을 추정하였다. 국회본과 통행본을 비교한 결과, 국회본은 권목(卷目)과 편목(篇次), 그리고 주문과 본문에 있어 고서의 원래 모습에 더 가까우며 글자의 탈락 현상이나 오타 현상도 통행본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보아 국회본은 원래 모습에 더 가까운 초기 각본임을 추정할 수 있다.

(2) 『사부총간(四部叢刊)』 본

『사부총간』본은 가장 널리 전해지는 『계원필경집(桂苑筆耕集)』의 판본으로 청대(清代)의 금기를 피하지는 않았지만 홍석주(洪奭周), 서유구(徐有集)의 서문이 없다. 1919년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에서 출판한 『사부총간』은 우시(無錫) 손육수(孫毓修)의 소록천장본(小綠天藏本) 『계원필경집(桂苑筆耕集)』 영인본 20권에 근거한 것이다. 『사부총간』본의 저본이 활자본의 저본보다 그 시기가 더 이르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는 한국 학자 이인영의 『청분실서목(淸芬室書目)』 권9(510-511)에서 자세히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 루각본(새긴 판본)이 활자본보다 먼저 생겼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3) 서씨 판본(徐本)

서유구(徐有集)의 목활자 판본은 근세에 와서 널리 전해지는 『계원필경집(桂苑筆耕集)』의 판본이다. 1834년에 출간된 이 판본은 유명 학자 이규경(李圭景)이 직접 교감 작업에 참여하였으며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다. 그래서 비교적 널리 전해지는 판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청나라 때 다시 중국으로 유입된 『계원필경집(桂苑筆耕集)』이 역시 이 목활자본이 가장 많았다.

(4) 판씨 판본(潘本)

1847년 반사성(潘仕成)에 의해 간행된 『해산선관총서(海山仙館叢書)』에는 『계원필경집(桂苑筆耕集)』이 수록되었다. 이 책은 중국에서의 첫째 판본이며 나중에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의 『총서집성초편(叢書集成初編)』에 수록되었다. 그리고 막우지(莫友芝)의 『소정지견전본서목(邵亭知見傳本書目)』 권12, 장지동(張之洞)의 『서목답문(書目答問)』 권4, 소의진(邵懿辰)의 『사고간명목록표주(四庫簡明目錄標注)』에도 모두 수록되어 있다. 판씨 판본은 『사부총간』의 영인본과 대동소이한데 그것의 저본은 『사부총간』 판본과 같거나 유사한 조선 각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보존되어 온 『계원필경집(桂苑筆耕集)』의 판본으로는 주로 일본국회도서관에 소장되고 있는 사각본(寫刻本), 사부총간본, 판씨 판본과 서씨 판본 모두 4 가지다. 그 중에서 일본 국회도서관에 소장되고 있는 사각본은 그 저본이 가장 빠른 시기의 것이며 사부총간본과 판씨 판본의 저본이 서씨 판본의 저본보다 시기가 이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부총간본은 서씨 판본과 같은 판본 체계에 속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쌍녀분 (雙女墳記)』에 대한 논쟁

(1) 『쌍녀분』 판본과 전해 내려온 상황

『쌍녀분기(雙女墳記)』는 가장 먼저 조선조 초기(약1462-1484)의 『태평통재(太平通載)』 권68에 보인다. 이는 가장 온전한 판본이기도 하다. 거기에는 『최치원(崔致遠)』이란 제목을 하고 있으며 고려 『신라수이전(新羅殊異傳)』에서 발췌해 왔음이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 후 권문해(權文海)가 운부(韻部)에 의거해서 편찬한 사서(辭書) 『대동악부군옥(大東樂府群玉)』 권15에서 절록하여 『선녀홍대(仙女紅袋)』라는 제목으로 바꾸었다. 『쌍녀분기』가 중국에서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남송 고종 소흥(南宋高宗紹興) 시기의 장돈이(張敦頤)가 편찬된 『육조사적편류(六朝事迹編類)』이다. 그 후에는 마광조(馬光祖), 주응곡(周應谷)이 편찬·수정한 『경정건강지(景定建康志)』, 그리고 원나라 장현(張鉉)이 편찬·수정한 『지정금릉신지(至正金陵新志)』에도 모두 『쌍녀분기』를 인용하였는데 문장이 『육조사적편류』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육조사적편류(六朝事迹類編)』에서 발췌했음이 분명하다. 청나라 주소문(朱紹文)이 편찬한 『건륭고순현지(乾隆高淳縣志)』에서는 새로운 내용을 덧붙여서 ‘쌍녀분(雙女墳)의 구체적인 위치까지 밝혔다.

(2) 『쌍녀분』 저자 논쟁

① 『쌍녀분(雙女墳)』이 최치원에 의해 창작되었다는 견해

장저홍(張澤洪), 니운보(倪文波), 리스런(李時人) 등이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논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장저홍은 다음과 같이 논의한 바 있다. ‘당나라 『전기(傳奇)』의 저자인 배형(裴鏞; 號 谷神子)은 당의종 함통(唐懿宗咸通) 5년에서 9년까지(864년-868년) 고병(高駢)의 장서기(掌書記)를 지냈다. 배형(裴鏞)의 『전기』에는 모두 신선이야기나 괴상하고 신비스러운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최치원과 배형이 함께 고병의 막부(幕府)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최치원이 『선녀홍대(仙女紅袋)』를 전기체로 창작한 것은 이런 배형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니운보는 『쌍녀분』 중 남녀 주인공의 이야기가 벌어진 지리적 배경이 율수현(溲水縣)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최치원이 율수현 현위를 지냈던 경력과 밀접한 관계가 피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쌍녀분』의 예술성이 뛰어나 대가의 작품임이여야 하는 점도 최치원과 일치한다고 보았다. 리스런은 작품을 논하면서 당전기(唐傳奇)의 형식과 대조했는데 『쌍녀분기』의 형식과 부합되는 작품이라고 주장하였다.

② 『쌍녀분』은 최치원의 작품이 아니라는 견해

쉬지엔순(徐健順)은 『『쌍녀분기』의 창작과 전해져 내려오는 과정에 대한변석(〈雙女墳記〉的創作與流傳過程辨析)』(『동강학간(東疆學刊)』2010년7월)에서 당나라 사료와 당전기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쌍녀분』 최초의 작가가 누구인지는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최치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당전기는 주로 ‘신기하고 특이한 소재를 기술한다는 문인들의 관점에서 나온 것이지만 『쌍녀분기』가 최치원의 작품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 자료명 : 제1회 고운 최치원 한·중 국제 학술대회
- 발행처 : 군산시
- 주 관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군산대 인문과학연구소